

능행 스님 (자재요양병원장)
"호스피스는 다음생 준비 위한 봉사
누구의 죽음도 소외되선 안되요"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5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95호 2014년 6월 4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고 조심스럽라.

도난 성보, 경매에 출품 '충격'

조계종 문화부 모니터링 '적발' … 문화재청·경찰 수사

도난된 성보문화재가 고미술품 경매시장에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와 문화재청, 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은 고미술품 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이 6월 2일 여는 '조선시대 불교 미술 특별 경매' 출품작을 29일 긴급 조사해 이중 4점을 압수했다.

출품작은 총 18점으로 4점이 도난문화재로 확인됐으며 14점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난문화재로 밝혀진 4점은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충북문화재 제206호, 2004년 5월 도난),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2000년 5월 도난), 청송 대전사 신중도(2000년 9월 도난),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1993년 4월 도난)로 제작년도가 각각 1700~1800년도로 경매가가 1억에서 6억원이 매겨진 상태였다. 위 4점은 임시보관처인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상태다.

이번 도난문화재의 환수는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이 진행하는 문화재 모니터링 결과다. 문화부는 5월 28일 마이아트옥션의 경매 도록을 모니터링하고 도난문화재로 의심되자 29일 오전 문화재청과 경찰에 신고, 함께 현장을 찾았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경매로 나오는 불교문화재에는 도난문화재가 포함될 수 있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나머지 문화재들도 도난문화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번 도난문화재로 확인된 작품 4점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송했으며 최종 확인 과정 후 해당 사찰로 돌려줄 예정이다.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고미술품의 경우 경매에 나가기까지는 작품의 진위와 도난품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불교문화재의 경우 상당수가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국내 대표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S옥션 관계자는 "불교미술품의 경우 사찰에서 작품을 직접 파는 경우가 없기에 도난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조계종 도난품 백서와 문화재청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매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총 18점 중 4점 파악
道지정문화재도 있어
14점도 세밀히 조사 중

이에 대해 마이아트옥션 측은 "도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경매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두 박물관에서 소장했던 것으로 파악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문화재청의 도난 목록 사진 등에 화기 등이 보이지 않아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아트옥션은 나머지 작품이 도난 문화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경매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청송 대전사 신중도

도난문화재, 위탁인이 소유권 주장한다면?

이번 경매장에서 환수한 4점에 대해 위탁한 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도난문화재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다.

문화재청은 2007년 7월 도난문화재의 거래에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도난문화재나 유실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사들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의 취득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이런 점이 악용됐기 때문이었다. 도난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예외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며 확정됐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조합원 700명이 5월 27일 조계사를 찾아 발원문을 낭독하며 기원하고 있다.

"죽음의 행렬 막아주십시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조계사 방문 108배 · 명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원 700명이 5월 27일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를 방문하고 "더 이상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을 막아 달라"며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합원 700명은 조계사 마당에서 발원문을 낭독한뒤 108염주를 한알씩 꿰며 108배를 했다. 조합원들은 부처님을 향한 발원문에서 "차별과 탄압많은 세상을 헤쳐갈 수 있도록 좌절감을 갖지 않고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회사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건희 회장의 빠른 쾌유를 빌기도 했다.

108배를 마친 조합원들은 조속한 해결을 기원하는 서원지를 작성해 조계사 대웅전 앞에 매달기도 했다.

이후 조합원 지도부 6명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접견 자리에서 "동료들이 또 목숨을 버릴까 걱정이 된다. 부처님은 생명 존중 사상을 설파하셨다고 들었다. 죽음의 행렬을 막고 조속히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도움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일 줄 알았던 분들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종단이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배현진 기자**

국내 最古 11세기 '청동바라' 찾았다

동국대 박물관, 개교108주년 상설전 앞두고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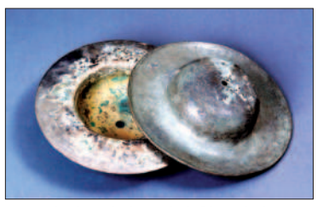
고려 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바라 두 쌍이 최초로 공개됐다.

국내 현존하는 바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바라 중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곡성 태안사 청동대바라(제956호)' 보다 4세기 앞서 보물급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정우택)은 5월 27일 "본교 건학 108주년 기념 상설전시실 재개관에 맞춰 수장고 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87년 제작된 고려시대 청동 바라 4점을 새로이 찾았다"고 밝혔다. 청동바라는 박물관이 1970년 입수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바라 4점은 각각 지름 30cm 크기로 2쌍으로 3점에는 24자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에는 '대안(大安) 3년 음력 7월'에 바라가 제작됐다고 쓰여 있다. 대안은 중국 요(遼)나라 도종(道宗)의 연호이다. 고려 선종 4년인 1087년에 해당한다. 바라의 제작자는 광주목관(廣州牧官)이라고만 적혀 있다.

박물관 측은 "현존 최고의 바라로 확인된 만큼 더욱 세밀한 학술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박물관은 이번 재개관과 함께 그동안 보존 관리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던 보관 문화재를 상당수 공개했다. 특히 보물 제569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과 국보 제176호 '백자 청화 홍치2년명 송죽무늬 항아리'와 보물 제743호 '정조필 파초도' 도 등이 눈길을 끈다. (02)2260-3722 **노덕현 기자**


동국대 박물관이 공개한 청동바라.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본격 추진

조계종, 기념관 불사 계획안 발표… 조계사 일원 1688억 원 투입 예정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10.27법난 기념관 건립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기념관 불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집행위원장 지현 스님은 5월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 · 27법난 기념관 사업계획의 세부일정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현 스님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27법난위)가 5월 28일 제30차 회의에서 조계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총액 1688억 원과 2015년도 예산요구안 54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0.27법난위의 국고예산 의결에 따라 조계종은 오는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조계종의 사업계획서를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국회에서 국고 지원이 확정되면 2015년 기본조사설계, 2016년 실시설계, 2017년 기념관 건축공사 착공을 거쳐 오는 2018년 기념관을 준공한다는 게 조계종의 계획이다. 사업 예산으로는 국가보조금 1534억 원, 자부담 150억 원 등 총 1688억 원이 투입된다.

조계종이 발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10.27법난 기념관은 국가 폭력과 억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는 기념관과 치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치유센터로 나눠진다.

'기념관'은 연면적 20,100㎡(6070평)의 지하 5층, 지상 6층 건물로 전시실, 불교문화체험실, 불교자료열람실, 사무 · 연구공간, 강당 등이 들어선다. '피해자 치유시설'은 연면적 1,418㎡(425평)에 지하 3층, 지하 1층 건물로 물리치료실과 치유시설, 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95호 INDEX

테마 사찰 기행 12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종합 2·3
사찰 장애인 시설 개선 필요
포교원 '명상 포교' 종책 연찬회
맞춤형 템플스테이 '아생여당' 출시
동국대 108주년 기념관 건립

연중기획 탐·진·치 줄이기 5
학술 · 문화재 9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세미나
불교평론 '불교와 정치' 특집

新사찰건축-탄허기념박물관 13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품절]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조계종, 세월호 규명 1천만인 서명 동참

자승 스님, 29일 유가족 대표 예방 자리서 밝혀

조계종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종단적 차원으로 동참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29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예방 자리에서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이 10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아이들을 비롯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발생했으나 여야 정치권은 정치 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불교계가 사회의 정신적 스승으로서 죽비 경책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그간 진도 팽목항과 안산에서 실종자와 희생자를 위해 기도와 자원봉사를 통해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왔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절대 정치화돼서는 안된다.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5월 29일 예방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서명 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2기 인사 단행

총무 정만 · 호법 서리 세영 스님
사회 정문 · 박물관장 화범 스님

조계종 총무원 2기 인선이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30일 총무부장에 정만 스님 등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총무부장 정만 스님(부산 범어사 금강암), 호법부장 서리 세영 스님(여주 신륵사 주지), 사회 부장 정문스님(중앙종회의원),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남양주 흥국사 주지)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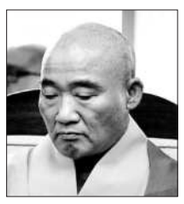
이와 함께 불교신문 주간에 주경스님(서산 부석사 주지)가 임명됐으며 수입사업담당총괄 특보에 설암 스님, 사찰음식 담당 특보에 대안 스님이 각각 위촉됐다. 기획실장 일감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유임됐다.

이들 인사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한 후 자승 스님은 "임명 받은 스님들은 종단을 잘 이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소임자들은 책임과 의무, 봉사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총무부장 정만 스님


사회부장 정문 스님


호법부장 세영 스님


박물관장 화범 스님

'교구중심제' 실현위한 위원회 구성

본사주지협, 26일 회의서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교구중심제'를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협회(회장 돈관)는 5월 26일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에서 요청한 '중앙 · 교구발전위원회'를 결성했다.

'중앙 · 교구발전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 4인과 교구본사 주지 6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중앙종무기관에서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본사주지협회장 돈관 스님을 당연직으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부산 · 경남),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경북),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전라),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충청),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경기 · 강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또 위원회 산하에 중앙종무기관의 총무차장, 사찰교무팀장, 기획팀장, 교육차장, 포교차장과 교구본사에서 추천하는 4~5인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사찰 접근성 결여…장애 불자 13% 개종 생각

조석영 관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래포럼서 주장

사찰의 접근성 결여로 개종을 생각한 비율은 13.3%,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신앙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4월 장애불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버스를 운영한 덕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불교계 지역사찰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을 주제로 5월 26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그간 불자 장애인의 사찰 내 접근과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토론장이다. 사찰에서 장애인들의 신행활동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온 터다.

신축 사찰은 이런 문제가 덜하지만 문제는 전통 전각이다. 전통사찰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가 까다롭다는 난점이 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법당은 계단과 문턱때문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지목되어온 대표적 건물이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불자회 바라밀 회원들이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 사찰 9곳을 방문한 결과 법당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한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일주문에서 전각까지

전통사찰 9곳 편의시설 체크하니
법당 경사로 설치는 12%에 불과
현대 사찰 시설은 상대적 '양호'

"전통사찰 지리적인 한계 있지만
정서 유대감 위해 인력 배치 필요"

경사로 설치 비율은 32.1%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사로와 장애인용 화장실, 계단 내 손잡이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꼽았다. 장애인 접근권은 공중 이용시설에 일반인 등과 같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다. 공공시설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공연장,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다. 사찰의 경우 전각 하나의 면적이 해당 기준(500㎡)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 법적 설치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사찰내 문화재 관람과 여가 기능까지 고려하면 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리적으로 배려 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통해 이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사찰의 역할이며 종교적 포교라고도 지적한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조석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역시 사찰의 지리적 위치와 건축물 특성상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불교계의 사회적 인식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자 장애인들은 신행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찰접근성을 높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관장은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핸드레일을 먼저 설치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해 설비시설을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한쪽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활용이 불편한 핸드레일을 미관상 좋다는 이유로 설치한 경우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전통사찰 지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규제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종단 차원에서 자문 지원 기구 설치를 위해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 경기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사찰 편의시설 개편 후 이를 바탕으로 도시형과 산지형을 구분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편의시설 확충이 어려울 경우 사찰 내 봉사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장애불자들을 위한 사찰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월 26일 열린 포럼에서 조석영 관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명상포교, 현장 연구와 지도자 양성 시급"

조계종 포교원, 종책연찬회
종단 內 명상 포교 기관 필요

오늘날 명상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마음산업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기업과 사회, 학교나 가정,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종단차원에서 명상포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포교원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56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명상포교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는 김재성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교수가 '명상포교, 어떻게 전개돼야 하나'를 주제로,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치료학과 교수)이 '명상포교의 역할과 종단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경 스님은 "명상의 원류는 분명하게 불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명상의 붐은 불교계보다 외부 영향력에 의해 발생 ·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교의 활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은 불교가 명상의 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정체성 확립의 문제 △문헌학 중심연구에서 현장연구에로 전환의 시급성 △지도자양성의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현실사회 속에서 불교 포교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점에서 명상포교는 불교의 정체성과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현재 불교계 내부에서 명상에 대한 현장연구가 미약하다며 "불교계 내부의 연구는 여전히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연구에 대한 방법론이나 관심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장연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으면 지도자 양성문제와 더불어 현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새로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도자양성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스님은 "명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들 수요에 대응하는 지도자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총무원과 교육원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 종단 내부에 명상포교와 관련한 기관을 설립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재성 교수는 현재 불교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명상포교의 정의, 역할, 종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명상포교의 전개방법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포교를 담당하는 스님이나 재가자들이 명상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수련이 능숙해져야 한다"며 "수행을 지도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종단과 개별사찰, 연구기관이나 종립학교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초기불교승가대학원이 있어 초기불교에 대한 교학적인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명상 연구와 수련을 위한 선원은 전무한 형편"이라며 "조계종 불학연구소나 포교원 산하에 명상연구 및 교육 전문기관을 두어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있고 효과있는 새로운 불교 명상을 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단차원에서 명상포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56차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했다.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템플스테이, 新브랜드로 변화 추진

문화사업단, '아생여당 · 본디나' 잇달아 선보여

2012년 시즌2를 선포한 템플스테이가 새로운 10년을 위한 브랜드 '아생여당(我生如堂)' 과 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VONDINA)' 를 각각 선보이고 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는 5월 26일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출시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브랜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기존 템플스테이 형태를 변화시키고 이를 브랜드화 한 '아생여당' 이다.

'아생여당' 은 템플스테이가 수련회 이미지에서 벗어나 참가자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불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사업단은 2012년부터 브랜드 체계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시범운영사찰을 선정 · 컨설팅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사전 준비를 마친 '아생여당' 은 6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아생여당' 은 '아아(我我)' '생생(生生)' '여여(如如)' '당당(堂堂)' 등 네 가지 템플스테이로 나눠진다. '아아' 템플스테이는 위로를 테마로 하고 있으며, 전북 김제 금산사와 충북 영동 반야사, 충북 보은 법주사, 경북 성주 심원사가 운영사찰로 참여한다.

건강을 테마로 한 '생생' 템플스테이는 불교적 건강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강원 동해 삼화사와 전남 영암 도갑사, 경기 양평 용문사, 경남 산청 대원사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행(비움)을 테마로 한 '여여' 템플스테이에는 전남 해남 미황사와 충남 예산 수덕사가 참여하며 꿈을 이야기하는 '당당'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당당' 템플스테이는 강원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 경기도 용인 법륜사에서 만날 수 있다.

'아생여당' 에서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브랜드 캐릭터들이다. '아아' '생생' '여여' '당당' 등 네 가지 캐릭터를 제작해 각각의 템플스테이가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전통문화상품의 고유 브랜드 '본디나(VON DI NA)' 도 새롭게 선보였다. 이에 따라 6회까지 진행된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통해 상품화된 제품들도 모두 '본디나' 의 브랜드를 가지게 됐다.

'본디나' 는 한국불교문화의 고유한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맞춰 '본디나' 는 한국 사찰의 문살과 단청 등을 패턴화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새롭게 선보인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아생여당' 의 캐릭터들. '아아' '생생' '여여' '당당' 등 네 가지 컨셉에 맞춰 템플스테이들이 운영된다.

'我生如堂'
템플스테이 패밀리 브랜드
'위로 · 건강 · 비움 · 꿈' 의미
특성화 사찰 13곳 운영해

'VON DI NA'
꾸준히 개발한 문화상품들
묶어낼 통합 브랜드 '눈길'
16개 문양 디자인 개발해

현재 용문사, 법주사, 범어사 등에서 16개 패턴 디자인을 개발했고, 여권 케이스 · 네임택 · 소프트 노트 등에 적용해 제품도 제작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행복의 씨앗을 찾아 가꾸는' 템플스테이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패밀리 브랜드를 만들었다"면서 "경쟁사회에 지친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삶의 저물녘에 있는 실버 세대, 이국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함께 엮어나갈 다양한 템플스테이 면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새롭게 런칭한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

신성민 기자

동국대, 건학 108주년 기념관 추진

5월 27일 제282회 이사회서 의결… 450억 원 불사

동국대가 건학108주년을 맞아 학교를 대표하는 기념관 건립에 나선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5월 27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282회 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건학108주년 기념관은 연면적 2만6446㎡(8000평) 규모로 불교 · 연구 · 문화 · 예술을 모두 다루는 종합문화시설로 지어진다.



동국대 108주년 기념관 조감도

10월 8일 불사선포식 봉행
컨벤션홀 등 다목적 활용
"동국대 새로운 상징 될 것"

총 공사금액 45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기념관 내부에는 1000명을 수용하는 컨벤션홀을 비롯해 불교학술원, 불교학센터, 박물관, 국제선센터 등이 들어간다. 7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도 마련된다.

108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해 동국대는 불사추진위를 구성하고 동문을 중심으로 후원금 모연에 나설 계획이다. 모연은 2단계로 추진되며 10월까지 108억원 이상을 모연한다는 방침이다. 10월 8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불사 선포식도 열린다.

또 11월부터 준공까지는 350억 원을 목표로 10월 25일 오후 3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사봉행법회를 열고 모연캠페인을 전개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법회 증명법사로, 고문은 이사장 정련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촉할 예정이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그동안 종립대학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건물이 없었다"며 "흩어져 있는 불교교육기관과 박물관 등을 모아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도 지닌 불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2명 중 9명이 참석했으며 교원인사, 정관변경, 바이오메디캠퍼스 바이오관 신축 공사 승인, 2013년 각급 기관 회계 예결산 승인 등을 원안 통과시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반도 통일 위해 로드맵 재수립해야"

민추본 교류 활성화 좌담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5월 27일 개최한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에서는 불교계 통일로드맵 전면수정의 목소리가 대두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한 당국의 통일 정책과 연계해 불교계 통일 로드맵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화해협력단계(2000~2021) △국가연합단계(2022~2027) △통일국가완성단계(2027 이후) 등 '불교계 통일 로드맵' 을 설명하며, 화해협력단계와 국가연합단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연합단계에서 각자 대외적 권한을 유지하며 남북불교종단협의회와 남북불교 공동사무처 등을 활용한 단계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자연공원 규제 완화보다 보존에 중점을"

조계종 환경위, 30일 세미나
이병인 교수 "검증 철저해야"
환경부, '보전 효과' 원칙 고수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6월 지방 선거 이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립이 재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규제 완화 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은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자연공원과 규제완화'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병인 부산대 교수(조계종 환경위 부위원장)는 경제적 활성화와 현실적 이용도 중요하지만, 복합유산 자원으로 가치를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연공원 내 규제 완화 문제는 경제적 목적이나 정권 ·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약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21세기 국가유산자원의 온전한 관리와 공익성 ·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원칙하에 철저한 사전검증이 확인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5월 30일 '자연공원과 규제완화'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협동처장도 이 교수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 처장은 '자연공원 케이블카 논쟁, 이제 끝내고 싶다' 의 제하 발제를 통해 자연공원법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처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영 · 호남에 하나씩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과 양양군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을 추진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잠잠했던 국립공원이 선거가 다가오며 꿈틀대고 있다. 표가 궁색한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지리산을, 설악산을 팔아먹기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그간 건설된 케이블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훼손보다 환경보전효과가 큰 경우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산사음악회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위한 천도재도 진행

전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뜻깊은 음악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보)은 5월 24일 경내에서 '제10회 한마음 산사 음악회'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혜보 스님, 혜도 스님(부산지원장), 혜솔 스님(대구지원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음악회에서는 힐링멘토 정목 스님의 사회로 중부경남지원 선법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진주지원 선법합창단이 참가해 선법가를 불렀으며, 최선희 무용단이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공연도 선보였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도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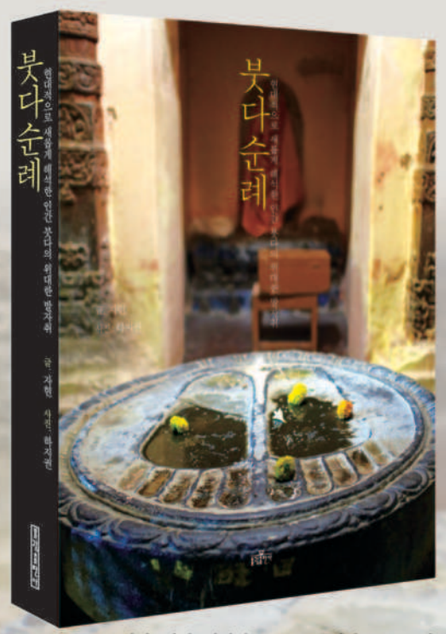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5월 24일 경내에서 '제10회 한마음 산사 음악회' 를 개최했다.

철학, 역사, 문화를 종횡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만나다

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의 저자 자현 스님이
명쾌한 언어로 흥미롭게 풀어낸 붓다의 생애!



붓다순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인간 붓다의 위대한 발자취

이 책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 붓다는 4월 8일에 탄신하신 게 아니다.
- 마야부인은 7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 녹야원의 첫 설법 장소는 잘못된 것이다.
- '자등명 법등명'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 붓다의 탑은 살아 계셨을 때도 유행했다.
- 붓다의 열반일은 2월 15일이 아니다.

불교 전문 사진작가 하지권의
인도 성지 순례 사진 100여 장 수록!

글_자현 | 사진_하지권 | 352쪽 | 올컬러 | 18,000원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15가지
불교적 성찰



글_곽철환
192쪽 | 12,500원

놓아버림,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시공 불교사전」의 저자 곽철환이
원고지 500매로 압축한 불교의 핵심

충돌하는 욕망과 가치들로 어지러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제시하는
'삶을 바꾸는 공부책'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불광출판사

일 주 문



새로운한국국민운동 상임대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5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대회에서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6월 7일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사찰 산사음식 강좌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8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경내 사찰음식체험관에서 '산사음식 강좌'를 개최한다.(02)359-8410



영어명상 강의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6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풍경소리 대강의실에서 총 9회에 걸쳐 영어명상 강의를 진행한다. (02)736-5583



난치병 어린이 지원금 전달

이채원 BBS불교방송 사장은 6월 2일 '거룩한 만남'으로 모연된 난치병어린이 지원금 5000만원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금강대 · 교직원공제회 업무협약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5월 30일 금강대에서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산학렵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기부

박범훈 前중앙대 총장은 5월 29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1300만원을 전달했다.

원융종 총무원장 대행 진호 스님

前총무원장 성관 스님 일신상 문제로 사의



(사)대한불교원융종은 5월 19일 종정 일공 스님을 비롯한 원융종 종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성관 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총무원장 대행으로 부원장인 진호 스님〈사진〉을 선임했다.

총무원장 성관 스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총무원장직을 사임했다.

임원회의에서는 6월 18일 중국 하남성 원융사에서 봉행되는 원융종 종맥 전법법회 진행상황 등이 보고됐으며 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 2의 성장도약기로 삼겠다"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 인터뷰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해 올해를 제2의 성장 도약기로 삼겠습니다."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은 5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 이래 14년간 여성불자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대사회 활동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2011년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구성원을 비롯해 여성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해 다양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서울 조계사 인근에 건평 1천평의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발원, 2011년 8월 입재식을 갖고 2020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기금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후원자 1만명을 모집해 1인당 108만원씩 3년간 후원하는 캠페인과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 539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약 9억 3천여만원을 모금한 상태다.

모연금으로 2012년 11월 전용 교육관을



2020년 불교여성광장 건립 목표

6월 13일 자비나눔행사 진행

마련한 불교여성개발원은 △승만경 강좌 △다문화봉사단 교육 △여성리더십 교육 △웰다잉 교육 등 여성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정경연 원장은 "불교여성광장은 양성평등을 넘어 인류애로 한국불교 중흥으로 세계평화를 이끌 교류와 실천의 장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2011년 제1기에 이어 불교여성광장건립 2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불교르네상스를 이끌어갈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불교여성개발원은 30일 제2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 13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자비나눔 문화행사 '마음 모아 함께'를 개최한다.

행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입재식을 시작으로 기획전시회, 문화행사, 기증품 전시판매, 먹거리 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의 동사섭 특강과 명상요가 등이 진행되며 다음 날 오전 11시부터 다도 퍼포먼스, 국악공연 등이 이어진다.

정경연 원장은 "앞으로 여성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인류의 행복을 위한 연구, 교육, 수행, 봉사를 추진하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 개발로 전세계적 불교문화부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따라서 불교를 바탕으로 인류의 정신문화를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통합공간인 불교여성광장을 건립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상월원각대조사 40주기 열반대재 봉행

천태종, 2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2만 대중 운집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대조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열반대재가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엄수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5월 2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제40주기 열반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열반대재에는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 정병조 금강대 총장,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 이재오 · 송광호 국회의원 등 정계인사, 김동성 단양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춘광 스님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일불승의 자취이니 오늘은 상월원각대조사께서 열반의 시적(示寂)으로 억만 겁 중생을 공양하는 날, 불보살과 중생의 경계



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대조사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열반대재가 끝난 뒤 사부대중들은 오후 1시 30분경 구인사 뒤편 수리봉 적멸궁에서 적멸궁재를 지냈다. **김주일 기자**

"불교문학에 새로운 활력 제공 할 것"

〈한국불교문학〉 30호 발간한 선진규 한국불교문인협회장

한국불교문인협회가 〈한국불교문학〉 30호를 발간했다. 이에 한국불교문인협회는 5월 31일 마포 다보빌딩 지하에서 기념법회 및 시낭송회를 가졌다.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사진 · 봉화산 정토원장) 회장은 "1985년 설립된 이래 연1회 서화집 형식으로 협회지를 발간하다가 2012년부터 계간지로 전환, 일년에 네 번씩 〈한국불교문학〉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30호 발간은 침체된 불교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30호에는 시 23편, 시조 5편, 수필 3편, 명시 11편 등이 담겨 있으며, 지안 스님(통도사 반야암 감원)이 선별한 선시 14편도 실려 있다. 또한 청화 스님의 인터뷰도 특집으로 게재했다. 이밖에도 3.1절 기념으로 열린 전국 만해백일장의 초 · 중 · 고 및 대학일반부 장원 작품 16편도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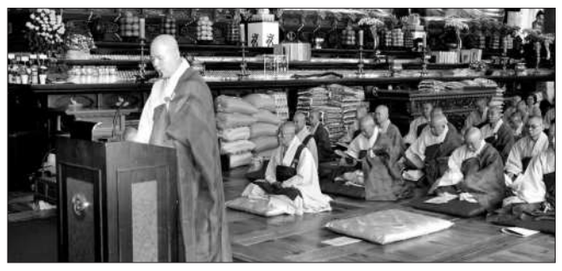
선진규 회장은 앞으로 회원 재정비, 신인발굴, 청소년 문학인재 양성 등을 통해 한국불교문인협회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문



화포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인상에 상금 수여 방식을 도입해 소양 있는 불교문학인을 발굴할 예정이며 준회원으로 청소년들을 가입시켜 기성세대와의 소통은 물론 젊은층 포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계종, 조계사서 도의국사 다례재



조계종조 도의국사의 가르침과 유훈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 다례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인환, 혜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종회의장 향적 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행복을 위해 정진하는 종조의 후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총지종 어울림 힐링 센터 개원



불교총지종 어울림 힐링 센터 개원법회가 5월 25일 총지종 총본사 총지사에서 봉행됐다. 개원법회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티베트 전통음악 연주자인 카락 빤바 체링의 음악으로 최경실 교수의 힐링 춤 공연과 마술사 정병구씨의 마술공연 등이 선보였다. (02)501-9035 **김주일 기자**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기념법회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이사장 박청운, 상임이사 서병열)은 5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인류 평화와 남북통일기원 및 설립기념 대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50여 종단 종정 스님들과 정재계 내빈, 주한 스리랑카 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이사장으로 청운 스님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또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의 대회사,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의 봉행사 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과 의현 스님의 격려사, 대한불교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스님의 세계불교도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貪心 줄이기
탐심
–더 나누자

‘1시간의 기적’에서 해외봉사까지 활동 다양

취업 준비 시간쪼개 ‘나눔’
재능기부 · 장기기증 동참
1997년 창단… 수시모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조금 시간을 내 도와주면 이 학생들이 커서 우리사회를 빛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도학생을 가르키던 한세준(동국대 3)씨가 한 말이다. 한 씨는 한달에 한번 1시간 일한 시급 5000원을 기부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교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른바 ‘1시간의 기적’이다. 한씨는 여기서 더나가 매주 한번 두시간씩 학생들 수학교육을 하고 있다. 한 씨는 “진지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며 스스로도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씨와 같은 젊은 청년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활동하는 그 곳이 바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이다. 불교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일념하에 인재 양성에 나선지 108주년을 맞은 동국대. 그중에서 우리사회에서 자비사상을 직접 실천하며 그 큰 깨달음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단연 눈길을 끈다.

1997년 창설된 참사랑봉사단은 지역 봉사활동은 물론 2000년부터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의료 및 문화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매년 필리핀 리가오 지역에서 사랑의 집짓기, 학교담장페인트칠, 마을 환경 정화 등 국제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필리핀 리가오시에서는 2008년 ‘동국대학교 거리’를 현지에 조성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등에서 열리는


동국대 참사람 봉사단

교육봉사 · 재능기부에 대한 학생들의 열기는 매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해 각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용 교재를 만드는 등 재능기부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공부방 봉사도 빼놓을 수 없다. 동국참사랑봉사단은 관내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풍과 야유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할 때면 그때그때 인원을 뽑아 파견하기도 한다.

이런 동국참사랑봉사단을 이끄는 손재현 동국참사람봉사단 부단장은 “고정인원이 없는 대신 때마다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대단하다”며 “봉사단 활동으로 스스로 배우는 점이 많다는 학생들의 소감을 들으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손 부단장은 “취업난으로 인해 자기개발에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나서는 학생들을 보면 고마움을 느낀다”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탐심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참사람봉사단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신체를 사후에 기증하는 생명나눔에도 대거 동참했다. 개교 108주년을 기념해 재학생 108명이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서포터즈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방학기간 마다 20~30명씩 지방 초등학교에서 봉사캠프를 떠납니다. 방학이 끝나고 돌아온 학생들이 훌쩍 성장해 있는 것을 바라볼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노덕현 기자**

瞋心 줄이기
진심
–더 낮추자

매일 다라니 1천독 수행으로 경계의 흔들림 다스려

10년 독송, 300만독 돌파
나의 잘못된 점 고치고
역지사지로 상대방 이해

“대비주 수행자로 살아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전의 나는 좋은 것만 반기고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비주가 되고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모두 다 내가 지고 가야할 것인 줄 알겠으며, 모든 일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나의 틀에서 벗어나 온 우주가 하나가 돼 나의 일상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일산 덕양선원 신도인 안선희(54 · 자광명) 씨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간 대비주 수행(다라니 독송)을 해왔다. 적게는 108독에서 많게는 8천 독 까지 독송한 그는 그 결과 300만 독을 돌파했다.

안선희 씨는 “나의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수 있었다. 수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안 씨는 대비주 수행을 하기 전 절 수행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법당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삼천배를 마쳤을 때의 희열감을 맛 본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 년 동안 꾸준히 천 배 수행을 해왔다. 중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안 씨는 “그런 날이 거듭 되면 될수록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삼독심이 불쑥 밀고 올라와 나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 무렵 안 씨는 일산 덕양선원에서 하는


안선희 씨 (덕양선원 신도)

대비주 수행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선원으로 향했고, 주지인 법상 스님으로부터 대비주 수행을 권유 받았다.

처음에는 천수경을 보면서 또박또박 대비주 독송을 했다. 눈으로는 글자를 보고 있고 입으로는 대비주를 읽고 마음으로는 대비주를 새기면서 독송을 했다. 차츰 대비주가 암기 되면서 입으로는 대비주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대비주를 하는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비주 수행에 온전히 매달리며 보내온 안 씨는 이제는 지난 시절의 아팠던 기억들도 거리낌 없는 추억으로 떠오를 정도로 경계에 흔들리지 않게 됐다.

안 씨는 “살다보면 상황적 경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경계에서 무심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수행을 통해 얻은 것 같다. 또 상대방과의 갈등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도 점차 녹일 수 있었다”며 “이런 큰 변화 외에도 비염과 자궁근종도 스스로 치유되고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가볍게 넘어가는 등 크고 작게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눈을 뜨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환희롭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면 텅 빈 충만감이 몰려온다는 안선희 씨. 그는 오늘도 대비주 독송 정진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하나에서 시작해 전체에 이르고, 전체에서 나누어져 하나에 이르는 이 과정의 매 순간이 온전한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밭이며 불보살님의 가피 그 자체이니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인들 거리낄 까닭이 있을까요.” **이나은 기자**

癡心 줄이기
치심
–더 비우자

“이기적인 삶을 버리면 어리석음 줄어들어”

“본능대로 살면 고통 따른다”
‘이만하면 되었다’ 오만 경계
늘 초심으로 하심 · 정진해야

서울 마포구 망원동 골목길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마다 북적인다. 무료급식이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자리가 꽉 들어차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곳의 이름은 ‘하심정(下心停)’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의 김원수 원장이 자신의 집을 기부해 만든 무료급식소다.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8년 은퇴한 김 원장은 본격적인 사회봉사활동의 방편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하여서라면, 각종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도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부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이기적인 삶일까? 김원수 원장은 자신의 충동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맞겨지는 대로 사는 삶이 모두 이기적인 삶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기적인 삶은 그 결과가 반드시 고통이요, 재앙이요 무지요 무능으로 연결됩니다. 무엇이 부처님과 함께 하는 삶일까요. 자기 충동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주장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모두 부처님께 바치는 삶인 것입니다.”

김원수 원장은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백성욱 박사를 만나며 불교공부로 금강경 독송을 시작했다. 김 원장이 백 박사에게서 금강경의 실천방법 중 하나로 인연있는 사람들에게 베


김원수 원장 (바른법연구원)

풀어 먹이는 마음을 내는 것을 배웠다.

김 원장은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그 마음가짐은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지녀야 한다”며 “보시행을 실천함으로서 탐욕의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도 자신의 집을 무료급식소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집안에서 강력히 반대했지요. 누구나 이기적인 공간인 자신의 집을 대중을 위한 공간인 무료급식소로 만드는 것은 반대할 겁니다. 저 역시 용이치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계속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원을 세우자 인연이 이어졌다. 무료급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자선사업단체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다. 조계사에서도 다달이 쌀과 국수를 일정량 공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이만하면 되었다’는 오만(傲慢)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오만한 마음은 부처님이나 선지식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만하면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정진의 서원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과 선지식에게 하심(下心)하는 마음, 정성껏 섬기는 마음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원장은 끝으로 “큰 지혜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진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봉사는 내 인생에서 새로 시작한 일이 아닌 수행차원에서는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관세음보살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에 대자대비의 그늘을 드리우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무시는 사바세계의 주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을 이루는 영험한 기도도량 – 현지사 서울분원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10만독으로 소원을 성취하다

2012년에는 아들딸이 좋은 배필 만나기를 발원하면서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10만독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 10만독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10만독을 다 마치고 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 귀가하다가 차가 터널 벽을 들이박아 두 바퀴를 돌아버린 대형 전복사고가 났는데 지금 용인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SM5 승용차는 종이짝처럼 구겨져 폐차했습니다만 아들은 기적처럼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원했던 바대로 아들 딸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는 배필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며느리가 될 새색시가 뜻밖에도 좋은 집을 마련해왔습니다. 딸도 인턴 수련의와 곧 결혼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 걱정을 놓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이야기 ①’ 중에서 – 경기도 안양시 최안나

관세음보살님 기도 및 공부법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3,5,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서울분원 관음재일 안내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안내 ; 음력 1일, 15일, 23일,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혜민병원 뒤) 02-453-5953

불자 여러분들에게 정법과 사법(邪法)의 여섯 가지 구별기준을 제시합니다!!

“삿된 외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고, 정법을 만나 수행하는 사람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다!”

「잡아함경」

정법교단은 ①청정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②부처님의 실존을 믿으며 ③지옥 · 극락 등의 사후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가르치고 ④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설하며 ⑤금강경 등 경전을 중시하고 칭명염불을 정통수행법으로 채택하며 ⑥부모 · 조상님에 대한 효행, 스승 공경과 나라 사랑, 이타의 보살행을 핵심 수행덕목으로 삼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국제선센터, 태교 데일리 템플스테이

6월 5 · 14일 개최…3주 과정으로 진행

임산부를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은 6월 5 · 14일 '제3차 임산부를 위한 태교 데일리 템플스테이' 를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태아는 산모에게서 영양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받아들인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산모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며 "태아에게 해주는 자애명상을 통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 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임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국제선센터 스님들과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3주 코스의 프로그램으로 △태아에게 해주는 자애명상 △산모가 하는 걷기명상 △남편과 함께 그리는 가족 인생그래프 △소금만다라 △태아에게 편지쓰기 △스님과의 차담 △한국불교문화의 이해 △부모은중경 △산모를 위한 사찰음식공양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마지막 3주차 프로그램에서는 남편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도법사 천조 스님(국제선센터 국제차장)은 "태아의 건강은 산모의 건강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임산부들이 태아와 산모를 위한 사찰음식을 먹으며 불교식 산모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02)2650-2200

이나은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후원의 밤 연다

6월 13일,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6월 13일 오후 6시 30분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후원의 밤을 연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가칭)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 및 교육관 불사 추진위원회' 를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증명을,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총재를 승낙한 상태다. 또한 자비의전화 초대회장 일면 스님(현 호계원장)과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고문으로,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미산 스님과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불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현 스님은 "1차 교육관 불사를 통해 2016년까지 5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연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2016년부터는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 '마음과학의 시대, 불교상담이 불교의 미래다' 라는 슬로건처럼, 한국 불교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불교상담의 발전을 기원하며 자비실천이 널리 회향되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날마다좋은날, 창업아카데미 7기 모집

6월 17일~9월 19일 14주 과정, 6월 16일까지 마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7기를 6월 17일 부터 9월 19일까지 14주에 걸쳐 운영한다. 강좌는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매주 화 ·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열린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창업과정은 5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은퇴 이후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내용은 시니어의 적성과 경험을 살린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마케팅, 자금조달, 프레젠테이션 스킬까지 단계별로 훈련받도록 구성되었으며, 특히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함께 하는 밀착 멘토링과 분반별 실습, 현장 인턴십을 통해 이론 중심 강의를 탈피하고 실전형 교육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과정에 85% 이상 출석하고 필수교육(워크숍, 현장방문 등)을 이수한 사람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수료증을 발급받아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별 1년간 2000만원~4000만원 사업비 지원, 창업 공간 및 무료 컨설팅 제공)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기간 내 코워킹 플레이스 '상상캔버스(용산구 동자동)' 무료 이용, 우수콘텐츠에 대한 창업지원금 지급(총 150만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02)732-7273

이나은 기자

"보시행으로 내면의 평화 얻어요"

천수천안자원봉사단 12년 자비행
5월 30일 무료급식소 개소



종파를 초월한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10여 년간 꾸준히 보시행을 사회에 실천하고 있는 천수천안불교자원봉사단은 5월 30일 경기 고양시에 무료급식소를 개소했다.

주순자(71 · 여) 씨는 2005년 5월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하루 7~8시간씩 병원, 노인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최근에는 저녁 9시부터 방범순찰을 돌고 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채운 봉사활동시간은 1만 4천 시간. 2010년 고양시자원봉사대회에서는 도지사 표창을, 지난해에는 안전행정부 표창을 받는 등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는 "절에만 다니는 것 보다 도반들과 함께 꾸준히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도우니 부처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며 "40대부터 관절, 허리 등 아픈 곳이 많았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는 몸이 건강해졌다. 또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해 내면의 평온함을 찾게 됐다. 이게 다 부처님의 가피"라고 말했다.

윤옥보(55 · 여) 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 노인복지관과 경찰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불교로 개종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불교의 참 뜻을 알게 됐다. 그는 "내가 행하는대로 결과를 짓는 인과의 법칙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이타심과 배려심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염불, 절, 참선 등 다양한 수행이 있지만 남을 위한 보시행이야 말로 수행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불가에서는 팔정도를 닦기 전에 보시를 통해 선업을 많이 지어놓지 않으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그만큼 보시행이란 중요한 수행방편이다.

총파 초월한 스님 · 신도 모임
봉사자 1300여명 고양시에 자비행
기독교 강한 곳에 좋은 이미지 심어

경기도 고양시에는 종파를 초월한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10여 년간 꾸준히 보시행을 사회에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 있다. 바로 사단법인 천수천안불교자원봉사단(이사장 대오, 이하 천수천안)이다.

지난 2002년 경기도 고양시 지역사찰 모임인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오)는 천수천안을 설립해 고양시 지역사회발전과 불교계 결속을 위해 활동해왔다.

'천 개의 손과 눈이 되어 보살핀다' 라는 뜻을 가진 천수천안은 고양시 지역사회와 소외이웃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봉사단체로 성장했다.

이사장 대오 스님은 "12년 동안 1500명 정도가 자원봉사 교육을 받았고 그중 현재 300~400명 정도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기독교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자비행을 펼친 결과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수천안 단원들의 자발적인 나눔행은 불자들의 조직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지역의 그늘진 곳을 따스하게 보듬어 불교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등 포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눔이 필요한 곳에는 불자들의 따스한 손길을, 먹을거리가 필요한 곳에는 밑반찬과 쌀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불자들에게는 장학금을 보시하는 천수천안은 불자들의 발원을 현실에 구현하는 원력공동체이다.

천수천안 스님들과 봉사단원들은 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일산노인복지관, 덕양노인복지관 고양 경찰서, 법원 등 관공서 등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사장 대오 스님을 비롯해 고양시 주지 스님들이 덕양구 삼송동 차상위 계층 30가구에 연탄 만장을 배달하고, 일일찻집을 운영해 모은 수익금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했다. 이밖에 지난 해에는 1000만원 상당의 쌀 400포대(10kg)를, 2009년 부처님오신 날에는 1200포(20kg), 2011년 연말에는 400포(10kg)를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정,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천수천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 주민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천수천안 자비나눔의 집(무료급식소)' 을 5월 30일 열었다. 경기 고양시 화정역 인근에 위치한 급식소는 고양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 주민에게 무료급식 제공 뿐 아니라 각종 복지 · 자비나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경순 천수천안 사무국장은 "천수천안은 급식제공 뿐 아니라 저소득계층을 위한 교육, 문화, 장학 및 심리상담 치유사업과 어르신 경로잔치 등 노인복지사업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오 스님은 "나눔과 봉사는 부처님의 대자비를 실천하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고 자신의 복덕을 닦는 일이며 필경에는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는 일"이라며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다함께 정진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수행이니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031)969-0108

이나은 기자

"템플스테이 · 한국문화 우리가 알린다"

불교문화사업단 · 대불청,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 국제회의장에서 '템플스테이 프로모션 서포터즈(T.P.S)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한국전통문화와 템플스테이를 알리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포르투갈, 스페인 등 20개국에서 온 청년들과 한국대학생들이 모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 국제회의장에서 '템플스테이 프로모션 서포터즈(T.P.S)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화 스님, 전준호 회장, 자우 스님(비로자나 국제선원)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온 청년 80여 명이 참석했다.

진화 단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템플스테이는 자연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템플스테이를 배우고,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달라"고 말했다.

전준호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서포터즈 활동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처음 마음 그대로 함께 해 세계인의 문화 템플스테이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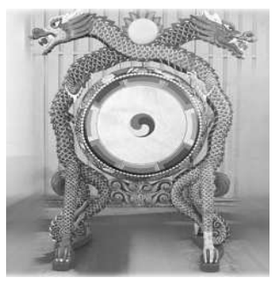
내외국인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대한불교청년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2개월 간 참여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1박 2일간의 산사 템플스테이가 2회 진행되며 명상, 예절 습의, 연등 만들기, 발우공양 등 한국 불교도 함께 체험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포터즈는 15개의 팀으로 구성돼 템플스테이 여행 로드맵 만들기, SNS 홍보 및 UCC 동영상 콘테스트, 템플프로그램 모니터링, 외국인이 만드는 템플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과제를 진행하면서 템플스테이에 직접 참가해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과 제안도 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강의

1 빙의환자는 천도재나 구병시식을 해도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퇴마 후 퇴마한 영가와 조상천도재를 해야 합니다.
2 이십여년간 연구하고 퇴마해 온 경험과 비법으로 오로지 제행스님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3 상담에서 퇴마까지 실제로 사용한 강의로 배우면 누구나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제행스님 직접강의 및 퇴마, 사주, 작명, 예약상담과 출장퇴마 합니다.
책 구입 : 농협 552-01-047918 비룡정사 (정가 13,000원)

● 개 강 : 6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4회 과정)
◇참가비 : 200만원 (정원 5명 선착순. 통화 후 접수)
특전(1) : 수강생 전원에게 1회씩 무료출장 퇴마해 줌으로 해서 배운 되로 하면 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겠습니다.
특전(2) :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퇴마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 지방 참가자를 위한 2일 단기집중 강의 과정 신설
◇개 강 : 6월 2일 월요일부터 2일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개인지도 수시모집 : 퇴마 심리상담. 사주(기문둔갑). 작명)

장 소 :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3-6번지 아크로타워 (주차가능)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전 화 : 011-772-4606 제행

앞치마 두른 할아버지들… 지지고 볶고

70평생 앞치마를 두를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요리교실에 참가할 일은 더더군다나 없을 줄 알았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상황.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레시피를 받아든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좀체 해석 불가다.

오늘의 요리는 제육볶음과 파겉절이, 그리고 깻잎장아찌. 돋보기를 꺼내 요리법을 찬찬히 훑어보는데 제육볶음에만 들어가는 재료가 17가지다. '무슨 재료가 이리 많이 들어가냐' 부터 '재료 외우다가 흰머리 더 나겠다, 레시피대로 하는 건 복잡하다, 순서 무시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맛있다' 는 '막가파 식' 훈수까지.





요리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간 좀 봐달라며 멋없게 파겉절이를 내미는가하면 뒤죽박죽 순서를 착각해 뒷수습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탄생한 제육볶음의 맛은 단연 최고였다.

남성홀몸어르신 요리교실
영양개선 · 반찬지원 · 친구맺기
3배효과로 인기 상승중

홀몸 어르신 영양개선프로젝트

5월 28일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들을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동국대 정각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 '7인 7색 무지개밥상교실' 은 시작부터 결과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7명의 할아버지들이 만들어내는 말많은 제육볶음은 절묘한 제목처럼 다채롭지 싶다.

"매실액 대신에 시중에 파는 매실주스 이용하셔도 되구요. 목삼겹 말고 기름없는 앞다리살 사세요. 그리고 사과 갈아넣으시구요. 없으면 양파라도 꼭 넣으세요."

양념대용부터 재료 세척과 조리법까지 요리선생님은 조근조근 레시피를 설명하며 요리 시연을 보였다.

썰린 당근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뒤에서 목을 빼며 쳐다보는 어르신이 있는가하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직접 확인하기도 한다.

무지개밥상은 남성 독거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총 8회기로 어르신들이 쉽게 혼자서 해드실 수 있도록 메뉴구성을 짰다.

요리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다 보니 기껏 만드는 것이 라면을 넘지 않았고 복지관 식당에서 먹는 한끼로 하루를 버티다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지신 분도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의 영양상태는 엉망이었다. 중림복지관이 모금재단 바보의 나눔측의 후원을 받아 영양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 이유다. 처음에는 신청자 모집부터 난관이었다. 늙어서 볼썽사납다는 반응은 물론 남자가 무슨 요리냐며 신청을 권유하던 직원은 되레 꾸지람까지 먹어야 했다. 실습한 요리를 가져가 밑반찬 삼으라고 끈질기에 권유한 덕에 7명이 모였다. 첫 번째는 장보기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했고 지난번에는 두부조림을 만들었다. 할아버지들은 이주에 한 번씩 모여 요리를 한다. 나중에는 후배 참여자들과 멘토 멘티 관계를 이뤄 요리 경연대회도 나가고 독거 노인들에게 직접 만든 요리를 배달하러 갈 예정이다.

김방현 어르신(71) 역시 홀로된 지 6년이 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곤혹스럽던 차였다. 사다먹는 것이 입맛에 맞지 않아 스스로 해먹어 보려 했지만 도무지 맛을 낼수가 없어 버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내의 빈자리가 실감났다. 반찬 투정하던게 참 어리석었지 싶었다. 세상에 남자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없다며 호기롭게 요리수업을 신청했지만 오기까지 무던히도 망설였다.

요리하며 배려심 키워

선생님의 요리 강습이 끝난 후 이윽고 세 그룹으로 나뉘어 시작된 실습시간. 각자 일을 분담해 깻잎을 씻고 사과를 갈고 고기를 재웠다. 도마 위로 떨어지는 칼소리는 뚝뚝 끊겼고 행여 사고라도 날까 집중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이 흘렀다. 두께도 모양도 제각각인 채소들. 심지어 요리순서도 제멋대로다. 김영진 어르신(68)은 한참 고기를 볶던 중에 아차 싶었다. 만들어 둔 양념장을 빼먹은 것. 양념장에 재워 숙성시켰어야 할 고기는 허옇게 불위에서 익어가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겸연쩍게 웃고는 어떻게 먹어도 양념 맛은 난다며 양념을 들이붓는다. 그리고 이내 맛을 보더니 맛있다며 손가락을 추켜세웠다.

반면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다며 요리하다 말고 레시피를 골똘히 들여다보는 어르신도 있다. 그리고 이내 파겉절이를 선생님께 손수 집어주며 간 좀 보라고 성화다. 결과는 합격.

오늘의 주요리인 제육볶음을 그릇에 소복이 담아내고 파채와 깨로 화룡정점을 그리던 남행욱 할아버지(80)는 술안주로 딱이라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그럴싸한 비주얼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요리에 60점만 매긴 할아버지. 음식을 맛본 주변에서는 너무 박하다며 80점이라고 외쳤다. 얼기설기 요리는 끝났고 수고했다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다.

닥치면 한다는 생각으로 요리교실문을 두드린 어르신들. 숨은 재능을 발견한 요리초보들은 자신의 손맛에 감탄하고 놀라워했다. 요리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지금껏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준 이들에 대한 배려도 배웠다.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겠다며 다음수업으로 예정된 감자잡채, 소고기조림을 기대하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남성 어르신 요리교실

장소	주제	과정
중림종합사회복지관	7인7색 무지개 밥상	8회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5070 남성요리교실	16회
진천군노인복지관	맛있는 밥상	6회
마포노인복지관	요리하는 젠틀맨	6회

탈북 청소년 낙동강 자전거 일주

안동-구미 140㎞ 완주, 삶에 밑거름 될 것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이 공동운영하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 그룹홈 오뚜기쉼터(대표 이지형)에서 '통일청소년 낙동강자전거 일주' 를 떠났다.

쉼터 입소생인 6명의 청소년들과 일반인 중학생 1명, 봉사자 8명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안동-구미 낙동강 자전거길 약 140km를 자전거로 일주 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는 안동댐 인증센터에서 출발해 하회마을과 예천 삼강문화마을, 상주자전거 박물관을 거쳐 구미까지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청소년들은 안동과 하회마을 일대를 자전거로 하이킹하며 한국 전통문화들을 접하고 삼강주막을 둘러보며 옛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려보기도 했다.

오뚜기쉼터측은 "1박 2일 동안 체력적으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청소년들은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참가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성주재단에서 후원하는 자전거 하이킹 사업은 상반기에는 안동-구미 구간, 하반기에는 부산-칠곡보까지 자전거 하이킹으로 낙동강 자전거길을 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자전거 하이킹에는 구미시 자전거연합회에서 나온 인솔 봉사자들이 동참한 덕에 참가자들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배현진 기자



탈북 청소년들은 140km를 자전거로 종주하며 삶에 대한 용기를 다잡았다.

보문복지관… 마지막 수요일 '무비데이'


어린이집에서 방문한 어린이들이 어르신들의 동화구연 공연을 관람하고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다. 보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종실)에서는 지난 5월 28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무비데이' 를 실시했다.

무비데이는 지역 보육기관, 교육기관, 관공서와 연계해 영화관람, 마술공연, 동화구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소통과 배려로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린다.

이번에는 공무원연금공단 퇴직 직원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공연을 펼쳤다. 이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배현진 기자

이천장애복지관, '행복 밥상' 마련


행복밥상에는 치자물로 지은 노란밥이 담겨 눈을 즐겁게 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감은사(주지 우관)와 함께 사찰음식 나눔 행사 '행복한 밥상' 을 진행했다.

'행복한 밥상' 은 이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내 단체들과 함께 매월 1회 진행하는 무료급식사업이다. 외식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메뉴는 치자밥, 근대유부국, 모듬버섯잡채, 고구마견과류볶음, 곤약브로콜리조림, 통배추제비김치였다.

우관 스님은 이날 자원봉사자 11명과 함께 식자재를 가져와 요리 · 배식까지 담당하며 '행복한 밥상' 을 지원했다. 마하연사찰음식문화원장인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을 통해 건강한 식문화를 알리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배현진 기자

송산 복지관, 6월 14일 지역노인 축제


지난해 진행된 '신노년 문화페스티벌'.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재혁)에서는 6월 14일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신노년 문화페스티벌' 을 마련한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저소득어르신 및 독거어르신 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복지관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며 신노년문화페스티벌, 가요제, 문화마당, 먹거리장터, 바자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풍물공연과 실버밴드, 초청가수의 특별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귀락마을난타공연과 초중고등학생들이 펼치는 공연도 마련된다.

이어 지역주민 및 복지관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노래자랑과 노인인식개선캠페인,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가훈만들기 등의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031)852-2595

배현진 기자

강릉복지관,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열어

강릉 단오제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복현)은 제18회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한다. 지역행사로는 제법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는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음악으로 하나되는 우리'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예선은 지난 5월 17일 열렸다.본선에 오른 12명의 참가자들은 6월 6일 단오장 수리공연장에서 열리는 결승 무대를 갖게된다.

영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요제의 시상은 대상(상장 및 50만원 상당의 부상), 금상(30만원), 은상(20만원), 동상(15만원), 인기상(10만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배현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불상, 당시 구성일뿐 절대 모습 아니다”

화쟁아카데미 · 시민행성

조성택 교수(고려대)

1강 ‘샤키야무니 붓다 등장의 역사적 배경’
2강 역사적 붓다의 재구성
3강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4강 근대 유럽이 바라본 ‘붓다’: 부처님은 ‘영국신사인’가 ‘맑시스트’인가?
5강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경쟁’중
6강 우리 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화쟁아카데미에서 기획한 불교인문강좌 두 번째 시간은 ‘역사적 붓다’에 관한 내용이었다. 조성택 교수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 가진 이미지란 지역과 시대별로 달리 조성된 당시의 기억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특정화된 절대적 관념에서 벗어나기를 주문했다. 동시에 출가, 성도, 전법, 열반으로 나뉘는 부처의 삶에 대한 강약을 해체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시도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붓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역사적 붓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실재에 입각해서 재구성하려는 접근입니다. 이를 이야기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바이오그라피, 전기에 해당하는 사료적 삶입니다. 반면 헤기오그라피(hagiography)는 위대한 분의 삶을 칭송하기 위해 신화나 전설적 요소를 가미해 종교적 의미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야기들은 헤기오그라피에 속합니다.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서 일곱걸음을 걸은 후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역사적 붓다를 구성하기 위해 기록을 들여다보지만 불교 기록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도는 불교가 등장하면서 역사적 기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을 정도로 역사적 기록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죠.

불교에 대한 기록은 대개 여시아문일시불재(如是我聞一時佛在)라고 시작합니다. 뒤이어 장소는 정확히 나오는데 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처님 성도하신지 3년째 되던 여름’ 정도만 되어있어도 불교 연대기를 쉽게 구성할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이 한때라고 통용됩니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35살에 성도하셨다면 40대와 70대에 설법하신 얘기가 다를 법도 한데 그런 시간의 변화를 불교경전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아마 윤회적 세계관 속에서 시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듯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삶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19세기까지 부처님이 실재했던 인물인지 아니면 신으로 존재했는지에 관해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다가 아쇼카왕의 비문이 해석되면서 부처님을 역사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정각 아닌 고행포기…부처님 위대한 이유

여러분이 부처님 삶을 기억하는 데는 몇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출가, 성도, 전법, 열반 등이 그것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구성해왔을까요. 이같은 분류는 부처님 열반 후 2,300년이 지나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생존 당시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유사상가 그룹을 사문이라 했는데 그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고행과 명상이었습니다. 부처님 역시 명상하기 시작하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가 없었죠. 명상에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순간을 위대한 순간이라고 꼽지만 제 생각에는 고행을 그만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고행을 그만뒀다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남은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나는 너다’라는 시에는 ‘길은, 가면 뒤에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막의 여행자처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길이라 이름붙일 수 없습니다. 길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살아온 길은 있지만 앞으로의 길은 없는 거죠.

부처님은 고락의 중도가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내가 딛고 있는 기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은, 고행의 극점까지 가봤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나 고민하는 것은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새로운 제 3의 길,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에 누군가 걸어간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삶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하지만 모범적 롤모델의 삶을 흉내내며 가는 것이 대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 길을 택했죠. 그리고 가장 위대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후 다섯 제자에게 사성제가 아닌 팔정도를 전합니다. 팔정도는 깨달음이란 목표하에 순차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8개의 중첩된 길입니다. 팔품(品)도라고도 하죠. 정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정삼매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거에요.

팔정도는 부처에 이르는 길이면서 부처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현재 부처로 살지 않으면 부처가 못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어 부처님은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전도를 선언합니다. 법을 설하는 유일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죠.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뤘을 때가 아니라 법을 전하러 떠나라고 말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각을 이룬 순간은 오로지 부처님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 뿐이기 때문이죠.

불교 이전의 종교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공자, 부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옳음을 대중과 공유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불교가 도인 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죠.

길에서 살다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앉아있던 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런면에서 서 있는 부처님을 상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죄다 앉아있는 부처님만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시대의 부처 모습은

부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인문학적 관점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art)로서의 기억과 활력으로서의 기억입니다. 먼저 기술로서의 기억은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기억입니다. 구구단을 정확히 기억해 끄집어내는 저장기억으로, 들어간 것과 나오는 것이 동일합니다. 반면 활력으로서의 기억은 시간이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회상시점에 따라 기억이 다 달라지는거죠. 대승불교는 저장기억으로가 아니라 활력기억으로 부처님을 기억합니다.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끄집어내기 위한 것으로 챈팅은 부처님을 생각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 부처님을 똑같이 기억하는게 아니라 내 마음 속 부처님을 달리 끄집어냅니다. 매번 새롭게 창출되는 부처죠. 대승불교는 수행적 측면에서 기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불상을 제작한 이유도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관하는 거죠.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며 새롭게 떠올리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부처님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고 치환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과거 부처님을 단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활성화된 부처님이 어떤 모습일지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특정화된 부처님을 유지하는 것은 교조적입니다. 과연 그 모습은 누구의 기억입니까. 아쇼카왕입니까. 라훌라입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사람들마다 전혀 달리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저장기억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특정화된 모습을 고집함으로써 마치 부처님 육성 테잎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불상은 당시 부처에 대한 기억 특정화된 붓다 모습을 부처 육성처럼 생각해선 곤란”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부처님 열반 후 50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전까지는 부처님상을 만들지 않아요. 대신 발을 묘사합니다. 여기가 부처님 있을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받고나서 부터입니다. 부처님이 그리스 청년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영향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륵불 역시 서양 귀족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에서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몇몇 나라에서는 고행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후덕한 모습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 가진 기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처님이란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성한 부처님일 뿐이죠. 불상을 본다는 것은 그 시대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부처님보다는 젊은 얼굴이죠. 부처님에 대한 인류의 기억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부처님을 전승하고 있는 걸까요.

동시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열반하신 실제 인물로서의 부처님, 진리로서의 부처님, 선사들이 강조한 깨달음으로서의 부처님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의 부처님은 지금의 문화를 담아내 새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철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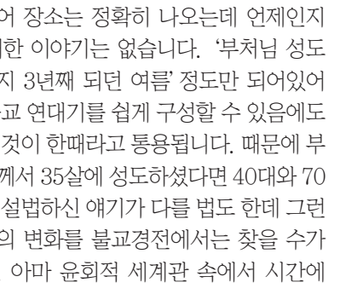
조성택 교수의 '불교인문학' 연재는 강좌 휴강과 편집 사정이 겹쳐 2주간 쉬고, 998호에 다시 개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혜량 바랍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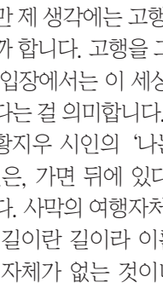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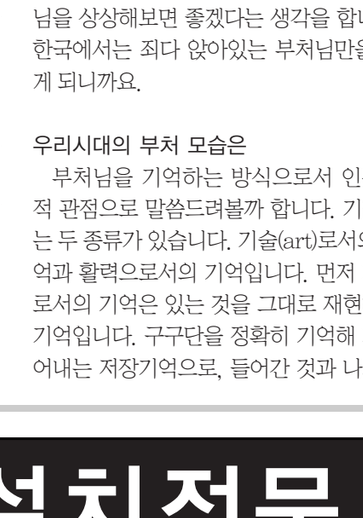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가격 : 2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문 의 02)3147-2020

지부교육원

제기동 02-966-0020 · 창 원 055-243-6333 · 호 남 063-288-5623 ·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 울 산 052-260-1037 · 충청북부 043-263-9966 ·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용성 사상’에서 시대 방향 찾는다

5월 29일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구한 말 한국불교의 근간을 세우고, 독립운동의 주역을 활동한 용성 스님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 죽림정사는 5월 29일 용성스님 탄생 1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와 김순석 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각각 대중불교에 앞장선 스님을 새롭게 조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29일열린 기념심포지엄에서 조성택 고려대 교소를 좌장으로 참석학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 포교에서 만해와 성철의 중간지점”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용성 스님이 근대 한국불교계에서 자아완성과 구세가 둘이 아니라는 사상을 펼친 선지식으로 설명했다.

허 교수는 ‘자아완성과 구세는 둘이 아니다: 용성의 대각사상’ 발제에서 “스님은 시대성격에 맞게 엘리트 출가자 양성과 대중 포교, 민족국가 생존 및 자유독립 수호에 나섰다”며 “특히 전통과 대중화의 중도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용성 스님이 활동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는 불교의 교세는 기독교의 활발한 선교 등으로 크게 위축돼있었다. 이는 용성 스님이 79세에 쓴 ‘중앙행정에 대한 희망’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 불교 현실은 청정 교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이도, 재원도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출가자들은 경시와 천대까지 받고 있었다.

허 교수는 “교정의 개신과 선과 율의 겸행, 자기노동, 재산 낭비 방지 등이 용성 스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1922년 이후 대각교 운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이런 용성 스님의 사상이 만해 스님과 성철 스님의 사상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용성 스님은 만해 스님과 함께 독립선언에 참가했지만 만해 스님보다는 전통적이었으며 성철 스님보다는 대중적이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용성 스님이 지계를 강조하고 사법을 비판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종교 정책과 대처를 허용했던 만해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끝으로 “기미독립선언의 주도가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며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운동 후원 방편으로 선농일치 펼쳐”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시대정신, 독립운동’ 발제를 통해 “용성 스님은 3 · 1운동 참여, 역경사업, 선학원 창설, 참선만일결사운동 전개, 대처식육금지 건백서 제출, 선농일치의 실천, 대각교 운동 전개 등으로 주요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비폭력 · 무저항주의에 입각한 운동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용성 스님이 비폭력 하에 독립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조선의 독립이 동아시아 평화에 필수적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가들을 물심양면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용성 스님이 선농일치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1926년부터 1927년 사이 간도 용정 명월촌과 영봉촌에 전지를 매입하고 선농당을 설립했으며 경남 함양 백운산 부근에도 산림과 황무지 수 만평을 매입해 과수와 야채 등을 재배했는데 이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은신처와 자금을 공급해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연구원은 “1945년 12월 12일 임정요인들이 대각사를 방문한 것 등이 이를 증명한다”며 “이런 내용은 구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난 사회상황과 용성 스님이 활동했던 사회상황은 흡사하다”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 문헌해석학과 과문 전통’ 조명

불교학연구회 5월 24일, 서울대서 춘계학술대회

경론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과문, 현재 한국 강원에서 실행되는 불교의 문헌 분석방법론 중 백미로 꼽히는 과문전통을 되짚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5월 24일 서울대 인문대학 신양학술정보관에서 ‘불교의 문헌해석학과 과문의 전통’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심원 스님은 ‘회본의 성립과 과문의 역할’ 발표를 통해 “두개 이상의 전적을 하나로 모은 회본 성립에 있어 과문은 시작과 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과문은 회본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이자 기본골조”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계에서 소초 등 장소가 대거 찬술된 것은 과문전통이 발달한 결과”라며 “과문전통은 저술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됐을 뿐아니라 회본 발달을 이끌어 종합주석서로서의 경전 간행과 소초 등의 발달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끝으로 “과문과 회본은 세분화되는 발전과정 속에 복잡해지는 폐단을 낳았지만 디지털 기법이 보급화 된 현재에는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과문에 적합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로 개발한다면 관련 전적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김주경 선임연구원은 ‘과문을 통해 본 경제석변천’을 통해 “전통과문을 디지털 시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문의 외형 특징인 경제석과 수문석 중 경제석을 연구했다”며 “과문 전통의 발달로 경제석이 경전의 단순한 해제 역할에서 벗어나 불교해석학의 핵심으로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속장경 내 많은 주석서들에서 논서의 형식을 종론(宗論)과 석론(釋論)으로 구분했는데 경제석은 종론, 수문석은 석론에 해당된다. 이는 경전 해석을 주석하며 두 측면을 함께 보는 중국적 주석전통”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종교의 정치참여 어떻게 보아야 하나”

‘불교와 정치’ 〈불교평론〉 여름호 특집 눈길

6 ·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한 기획 논단이 눈길을 끈다. 계간 〈불교평론〉은 2014년 여름호에서 ‘불교와 정치참여’ 특집을 펴냈다.

먼저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정치참여’ 논고를 통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종교계가 선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이상세계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 종교의 원래 목적이자 고유한 기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정치참여’ 논고를 통해 “정교분리의 참의미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와 종교 간 중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종교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회정치 분야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정치참여가 바람직한지를 따지기 전에 민주화, 인권, 환경 등 종교적 선과 관련되는 큰 정치적 흐름에 있어 종교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종 미디어붓다 대표도 ‘현대 한국불교의 정치참여와 평가’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될 수 없으며 다만 ‘구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교분리’나 ‘종교가 정치에 간여해선 안 된다’는 말이 여전히 회자되는 것은 숙고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며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불교계와 국가 사이에 이뤄진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호 이해를 위한 유착, 결탁, 거래는 야합이자 부도덕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윤세원 인천대 교수도 ‘불교는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 논고에서 “불교가 세속과 절연을 권장하는 종교이기에 본질적으로 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견해는 편견”이라며 “정치가 지배하는 삶의 현장에 대한 불교도의 무관심과 정치배척은 불교의 존립을 매우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인도 ·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정치(황순일) △동아시아의 불교와 정치(최연식) △불교의 정치사상과 한국불교(곽병찬) 등 총 6편의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초·중·고 윤리교과서의 불교 서술 분석

초 · 중 · 고 윤리교과서에 실리는 불교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6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초 · 중 · 고 윤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재와 내용’을 주제로 제20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불광연구원은 제18차 연찬회에서 역사교과서의 불교사 기술 오류 문제를 분석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불교의 윤리관이 교과서 내에 어떻게 표현되는 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연찬회에는 △이철수 중원초 교사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신희정 진영중 교사의 ‘중학교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이철훈 상현고 교사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 △박병기 교원대 교수의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의 문제와 개선방향’ 등 현직 교사들의 논문이 발표된다.

또 토론회 등에서 각 시기별 교과서의 불교서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다뤄 교과서 내의 불교 서술 오류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불광연구원은 “연찬회를 통해 윤리교과서의 불교 서술 흐름을 살피고 오류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당국에 문제제기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02)941-3537

노덕현 기자

불교학지원사업회, 소장학자 지원사업 공모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는 제11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불교관련 번역지원 등 2개 분야로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은 학위취득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학위 논문 수정, 보완 후 응모도 가능하다. 선정된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된다.

불교관련 번역지원은 불교학 관련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을 대상으로, 선정된 2명의 학자에게는 각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선정될 경우 지원사업회에서 출판지원비도 보조해 도서출판 씨아이알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23~28일로 결과는 9월 중 개별통지 된다. (010)9789-3083

노덕현 기자

근현대 불교학자들의 ‘삼국유사’ 인식 고찰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6월 7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대한시대 인문학자 불교학자의 삼국유사 인식’을 주제로 제7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운기 한양대 교수의 ‘퇴경 권상로의 삼국유사 인식과 번역’,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육당 최남선의 삼국유사 인식과 해제’, 김성주 동국대 대학원 초빙교수의 ‘무애 양주동의 삼국유사 향가 인식’,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우현 고유섭의 삼국유사 탑상 인식’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最古쌍탑,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 수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보물 제1338호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을 해체 · 수리한다. ‘옥천 용암사 동 · 서 삼층석탑’은 2012년 시행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석탑 하부 지반 암반층 불균형으로 인해 동탑은 동쪽으로 87㎜, 서탑은 동쪽으로 196㎜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동 · 서 삼층석탑 해체 후 지반을 보강해 바로잡고, 서탑의 변형된 2 · 3층 탑신석은 기존 석탑과 같은 재질의 화강암 석재로 교체할 계획이다.

‘옥천 용암사 동 · 서 삼층석탑’은 동탑의 높이는 약 4.3m, 서탑의 높이는 약 4.1m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으로 이뤄진 고려 시대 석탑이다.

2002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고려 시대 성행한 산천비보(山川裨補)사상에 의해 건립된 석탑 중 유일한 쌍탑이다.

노덕현 기자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6월 30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6월 9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뉴욕 젊은 음악가들, 월정사서 '치유연주'

6월 6일 우예주 바이올리니스트 비롯한 뉴욕친구들 협연

뉴욕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의기투합해 월정사에서 새로운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평창 월정사는 6월 6일 오후 6시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천년고찰 산사음악회 코리안 랩소디 in Woljeongsa'를 개최한다.

이날 산사음악회에 나서는 연주자들은 강원도 출신 음악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바이얼리니스트 우예주와 뉴욕친구들로 저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솔리스트로, 피아노, 비올라, 더블베이스, 바이올린, 첼로 등 10여명의 맴버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한국 등 국적도 다양한 이들은 뉴욕에서 만나 교류해온 절친한 음악친구들이다. 그 중심에는 열 여섯 살에 파가니니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24곡 전곡을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움에서 연주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26, 줄리어드 음대 석사과정)가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춘천에서 자라나 9살에 홀로 뉴욕으로 보내져 맨해튼 음대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알버트 마르코프(1933~)의 제자가 되었다. 알버

'뉴욕 인 춘천' 페스티벌 일환
악장 사이 백형민 승무도 선뵈

트 마르코프는 바이올린의 양대 산맥인 러시아 악파의 마지막 거장이다. 우예주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왔으며 2008년 4월에는 북한 초청으로 평양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했다. 우예주 씨는 해마다 뉴욕과 춘천을 오가는 '뉴욕인춘천' 앙상블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산사음악회에서는 마르코프의 코리안랩소디을 비롯한 보케리니의 현악 5중주, 슈베르트와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등을 연주하며 음악회 중간에는 국립무용단장을 역임한 백형민씨의 승무(僧舞) 공연도 펼쳐진다. 승무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독무(獨舞)로,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 · 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돼 민속무용 중 가장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월정사 산사음악회와 함께 '2014 뉴욕 인 춘천 페스티벌'이 6월 1~7일까지 연세대 원주캠퍼스,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 서면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도 잇따라 펼쳐진다. '2014뉴욕인춘천페스티벌'은 '뉴욕인춘천 특별기획공연', '찾아가는 재능기부 콘서트', '천년고찰 산사음악회', '스토리 콘서트'로 구성됐다.

월정사 측은 "풀벌레 소리 그윽한 초여름 밤,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월정사에서 우예주와 9명의 뉴욕친구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로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무거워진 마음을 치유해 보시기 바란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033)339-68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불교방송 신사옥서 새 전기 마련



광주불교방송이 지역포교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광주불교방송은 6월 26일 이민수 신임 사장(동양건설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새 사옥에 입주한다. 광주불교방송의 새 사옥은 광주 신도심 상무지구의 랜드마크 빌딩인 동양빌딩으로 21층 120평에 라디오 2개 방송실(주 · 보조 방송실)과 TV방송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방송출연자와 내방객들을 위한 미니카페도 마련한다.

사옥 이전과 함께 광주불교방송은 지역 유대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지역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인 '무명을 밝히고'의 새 진행자로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을 임명하고, 음악과 지역소식을 전하는 첨병역할을 한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사찰, 광주불교방송 법사단과 공동으로 사찰순회법회를 개최해 사찰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증진해갈 예정이다. 특히 매년 3~4차례에 걸쳐 큰스님 초청법회와 지역 불교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덕사 작은도서관 '틔움' 인문학 강좌

광주 선덕사(주지 응묵)에서 운영하는 대안도서관 '틔움'은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6월 4일부터 7월 2일 까지 총 5회에 걸쳐 "논어를 통해 본 인간 이해와 미래 사회 고찰"이라는 주제로 이남곡 선생(연찬문화연구서 이사장, 신인문운동가)를 초청해 강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강좌 △6월 4일 '물질과 정신의 조화' △6월 12일 '자기 중심성의 지양' △6월 18일 '생명력의 신장' △6월 25일 '인간의 진보' △7월 2일 '사회의 진보' 등으로 진행된다.

첫 강의를 진행하는 이남곡 선생은 전북 장수 좋은마을에서 된장을 만들면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으며, 인문학을 통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운동에 대한 담론을 널리 펼치는 신인문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아미타불 및 후불탱 봉안

삼장지장기도도량 고창 선운사 도솔암 수광전에 아미타불과 후불탱화가 봉안됐다. 선운사 도솔암(주지 법만)는 5월 25일 도솔암 수광전에서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을 증명법사로 재덕, 범여, 대우, 대원, 도완 스님 등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아미타부처님과 후불탱화, 일광보살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한편 같은 날 선운사 지장보궁에서는 1000일기도 중 100일기도 회향법회와 200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양 공덕 지을 수 있게해 줘 감사"

성불사, 5월 29일 지역 어르신 위한 자비나눔 '눈길'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과 성불사 신도들이 만발공양에 앞서 5월 29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구치소 교정교화 · 다출산 장려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자비나눔행을 펼쳐온 하남 성불사(주지 학명)가 창건 37주년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을 열었다. 성불사는 5월 29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법회 및 창건 37주년 기념법회'를 연데 이어 300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만발공양을 올렸다.

이날 학명 스님은 "성불사에는 단 하나의 손님도 없다"며 "모두가 주인으로 우리 사회를 맑게 하는데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세월호 참사로 어린 생명들이 무참한 일을 당한 것은 우리 모두의 과오"라며 "이들이 다음 생에는 금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법회에서는 바라춤 공연과 함께 희생자들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비는 기도가 이어졌다. 법회 후 성불사 경내에서는 만발공양이 이어졌다. 1976년 학명 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된 성불사는 지금까지 37년간 매년 5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을 열어오고 있다.

학명 스님은 "37년 전 천막 하나로 시작했을 때 지역 어르신의 도움에 나눔실천의 원을 세웠다"며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나르며 "오히려 공양 공덕을 쌓을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성불사 주지 벽담 학명 스님은 1976년 성불사를 창건한 이래 사찰 재정의 40%를 사회 공헌에 쓰고 있다. 스님은 벽담장학회 장학사업, 구치소 교정교화, 다출산 후원,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 홀몸노인 후원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지장경 이야기〉 등 쉽게 풀어쓴 경전 2만권을 군법당 등에 법보시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전북 파라미타, 청소년 모악축제 개최

백일장, 사생대회, 우리문화 바로알기 골든벨도 열려



5월 24일 열린 제 18회 금산사 모악축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웅전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녹음이 짙어가는 김제 금산사에서 청소년들의 잔치한마당인 '청소년 모악축제'가 5월 24일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스님)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열여덟번째 맞이하는 청소년 모악축제는 21세기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요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내 500여명의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참가한 청소년 모악축제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미륵전' '모악산' '부처님과 기도' '시냇물'이라는 시제에 따라 운문과 산문, 한국화, 서양화, 만화그리기의 분야에서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렸다. 한편, 해마다 진행됐던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취소됐다.

금산사 대적광전 앞에는 108배 체험, 다도체험, 단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수묵화 그리기, 목탁 배우기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성우 스님은 이날 "남들의 행복 위한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 이웃들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현장에서는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포교사들과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청소년들에게 금산사의 문화재를 해설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우리문화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이 열렸다. 한편, 해마다 진행됐던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취소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성흥사, 약사전 건립 기공식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가 5월 29일 약사전 기공식을 개최했다. 김승수 신도회장, 박순호 군산불교대학 학장, 김용화 전북 도의원등 불자100여명이 동참한 이날 기공식은 상단 권공에 이은 경과 설명, 축사, 법어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월 스님은 "새 가람에서 약사전 기공식을 갖게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법과 포교에 노력해 내실있는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 오성산에 자리잡고 있는 성흥사는 기존의 도량외에 성산면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나한전, 요사를 준공한데 이어 주법당인 약사전을 건립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교육원
학 인 모 집



◈ 염불경력 50년 대구팔공산 소리 최종보유자 동현스님!
◈ 사모곡,회심곡,백발가,참회곡,부모은중경(음반취입 632호)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교육대상 : 비구, 비구니스님, 또는 사찰에 항시 상주하시는 스님이 계시지 않아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드리겠습니다.
◈ 초 급 반 : 교육과정 –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초급(일반)수업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초급(속성)수업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초급일반 : 10개월 / 초급속성 : 5개월
◈ 중 급 반 : 교육과정 – 시련.대령관욕, 시왕불공, 시식편, 봉송편, 상가염불 불상점안, 전점안, 안택고사, 방생편
중급(일반)수업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중급(속성)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중급일반 : 15개월 중급속성 : 10개월
◈ 작법 (3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까지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오공양작법)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 팩스 053)851-2666 / H·P 010-2547-4200

원장 동현 합장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1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방무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불영사 국제명상원 '線·善·禪' 설립

2017년 완공예정…1200평 규모



불영사(주지 일운 · 사진)가 국제명상원 '線·善·禪'을 설립한다. 2017년 완공 예정인 국제명상원은 지상 3층에 1200평규모로 일반 명상실과 계단식 명상실, 실내 명상포행이 가능한 설계로 조성될 예정이다. 불영사는 지난 5월 18일 설립에 관한 1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구조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주지 일운 스님은 "자신을 바로 깨달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매 순간순간 깨어있음이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누구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참마음 찾기 운동으로 자기자신의 존엄성을 깨달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제명상원을 설립하게 되었다"며 설립취지를 설명한다.

참마음 찾는 운동 전개 목적
윤경식 건축가 설계 맡아

불영계곡 입구 동편에 들어설 예정인 불영사 국제명상원의 설계는 건축디자이너 윤경식 건축가가 맡았다.

세계적인 건축가로 주목받고 있는 윤경식 건축가는 지난 30년 동안 자연친화적인 설계와 전통미 그리고, 현대적인 세련미를 조화롭게 녹여내는 독창적인 건축기법으로 각광받아 왔다.

윤경식 건축가가 기획한 국제명상원의 전체적인 모습은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3차원설계기법이 적용된다. 또한 명상삼매에 든 부처님께서 눈을 감은 채 신구의의 변화를 관찰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054)782-9281



불영사가 2017년 경 국제명상원을 건립한다. 사진은 조감도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탈핵은 생명 존엄성 지키는 길

원전 위험성 알리는 행사 열기 '후끈'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핵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 방안을 알리고자 불교계가 나섰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5월 24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2014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원자핵 개발과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지안 스님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과거 가치를 현 사회 '원자핵'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됐으면 한다"며 개회사를 전했다.

제2부 학술발표에서는 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그 대안적 과제'란 주제로 발표했으다. 이어 동국대 교수 법현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본 원자력과 생명,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경전의 예를 들어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대 박병기 교수도 '한국사회의 에너지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 윤리적 대안'을, 부산대 윤종갑 교수는 '현대 과학기술과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조망'을 각각 발표했다. 이와함께 5월 26일에는 부산의 원전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알리고자 불교생명윤리협회(대표 흥선)와 탈핵에너지교수모임(공동대표 노진철)이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 원전안전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자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2014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동국대 김익중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불교생명윤리협회와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노후된 고리 1호기 연장가동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민족의 터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와 부산시의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취지를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일본불교도협회 부산시청 세월호 분향소 방문

추모와 희망 담긴 서신 전달… 염불로 왕생극락 발원



ASA스님들이 5월 27일 부산시청서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염불을 독송하고 있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와 활발한 청소년불교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불교도협회(Asia Buddhist Association, 이하 ABA · 이사장 우시오 미야하라)스님들이 5월 27일 부산시청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일본에서 온 스님들은 2박 3일 동안 문화탐방 차 방한했으나 세월호 희생자들을 안타깝게 여겨 이러한 일정을 마련했다.

지난 26일 여수의 진남관과 충민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적지 등을 앞서 둘러본 스님들은 지난 27일 합동분향소에서 국화꽃과 향을 올리고 일본 고유의 염불로 故 단원고 학생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또한, 애통한 마음과 국가적인 아픔을 하루속히 극복하기를 희망하는 서신을 부산광역시의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공식적인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번 방한일정을 기획한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은 "부산파라미타는 ABA스님들과 청소년 불교문화를 위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을 애틋하게 아껴주시고 ,이렇게 뜻 깊은 발걸음을 해주신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ABA 전무이사 후지이기에이 스님은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해오던 입장에서 희생자가 된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달한 서한에 대해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슬픔을 넘어서 유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ABA와 지난 2010년부터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청소년불교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화랑 세속오계의 현대적 해석

제 1회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학술세미나



원광화랑연구소 학술세미나 장면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소장 일진)는 5월 25일 오전 운문사 선열당에서 '화랑세속오계의 현대적 해석'이란 주제로 제1회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주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화랑연구소 소속 각 위원과 운문승가대학인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소장 일진 스님(운문사 주지)은 "화랑오계를 전한 원광국사가 중창한 이 도량에서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화랑세속오계가 새 청년정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은 "운문사는 신라 진흥왕 18년에 에 창건된 고찰로 화랑오계를 전한 원광국사가 중창한 도량이다. 그후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선사등 많은 고승대덕스님들이 주석한 바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원광법사의 정신을 되살리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세미나가 더욱 알찬 결실을 맺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학술세미나는 △김남경 경북대교수를 좌장으로 임승택(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초기불교에 비추어 본 세속오계의 배경과 근거' △김성규(영남대학교)교수는 '새천년 청년정신을 위한 화랑세속오계의 현대적 해석'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편,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는 2013년 9월 24일 현판식에 이어 그해 11월 16일 '원광법사와 화랑정신, 새천년 청년정신을 꿈꾼다'라는 개소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명대 '국외입양인 모국방문캠프' … 총 10개국 26명 참가

다도 · 한복입기 · 명상 등



동명대 선센터에서 다도체험 전 명상하고 있는 참가자들

부산 동명대학교(총장 설동근)와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회장 정애리)가 주최한 '국외입양인 모국방문캠프'가 5월 26일~28일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에서 열렸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총 10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동명대 학생 26명과 함께 세계선센터에서 다도 및 한복입기, 명상 등을 체험했다.

InKAS 정애리 회장은 "일행 대부분이 입양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이번 세계선센터에서의 경험이 한국에 대해 한층 더 밝은 인식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참가자들과 함께 다도체험에 나선 설동근 총장은 "각국의 젊은이들이 친목을 쌓고 교류하는 뜻 깊은 행사로 동명대 학생들이 지역봉사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선센터에서 한국 문화체험을 끝낸 참가자들은 1대1 결연을 맺은 동명대 학생과 함께 캠퍼스 투어 및 동아리방 방문 등 다양한 버디투어(buddy tour)에 참여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차로 삶에 향기 더하세요"

금어사 부산동래 제 20회 차밭골문화제

부산 동래 금어사(주지 월강)가 제20회 부산동래차밭골문화제를 5월 24일 금어사 및 금강공원 일대에서 봉행했다. 육법공양으로 막을 올린 이번 문화제에는 세월호 희생 영가들을 위한 묵념이 본식에 앞서 진행됐다.

주지 월강스님은 "동래차밭골문화제가 벌써 20회째를 맞았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 만 아니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장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통도사 부주지 재원 스님은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은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다인들이 금어사에서 재배한 차로 항상 밝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순선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에서는 본격적인 차 시연이 양은순 부산동래차밭골 다례원 원장의 지도로 진행됐으며 김영옥 부산여류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문화와 문학타임 시인들이 시를 낭송해 차의 풍미를 더 했다. 또한, 제3부에서는 차밭골문화제의 주요 행사인 백일장이 펼쳐졌다. 한편, 이날 차밭골문화제에는 천주교 원로 김계춘 신부 등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 20회 부산동래 차밭골문화제 장면

김나영 객원기자

※ 경전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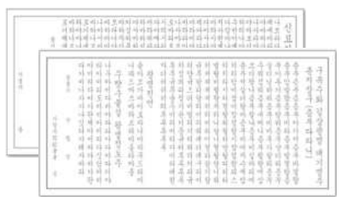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금지 관음도 액자 ※



문수보살 보현보살 양류보살 월광보살 유리보살 일광보살

금지 관음도 액자 6종
할인가 20,000원 (10점이상) 정 가 30,000원
• 포 장 : 골판지 • 크 기 : 38㎝×58㎝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영가옷 B형-남 정가 1,3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D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D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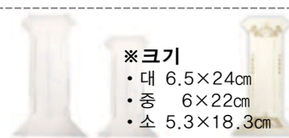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해수관음 굽어보는 '주인공' 밝히는 도량

제주의 사찰을 찾아서 - ③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해수관세음이 굽어보는 그 자리에 가부좌를 튼다. 저 멀리 하루 일을 마친 노을이 삶에 지친 우리를 다독이듯이 발그레 온 몸을 물들인다. 영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을풍경에 번뇌 망상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일까. 한마음선원을 창건한 대행 큰스님이 이곳에 해수관세음보살을 봉안한 뜻일 것이다. 괴로움에 빠진, 하루를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 다시금 '주인공'을 재발심 할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의 이 같은 원력은 언제부터였을까. 섬지역 특성상 무속과 불교가 습합된 제주불교. 아직도 법당 안에는 불상과 산신?칠성탱화가 공존하는 곳, 어느 지역보다 기복적인 불교가 뿌리내린 섬이 바로 제주도다. 이 척박한 불교 토양아래 신중탱화와 영단을 모시지 않고, 단지 석가모니불과 탱화로만 봉안한 법당에 '자성본래불(自性本來佛)'을 외치며 '주인공' 밝히는 도량이 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다. 이 사찰은 24개 한마음선원 국내외 지원 가운데 두 번째로 지난 1987년에 개원됐다.

제주지역 불자들의 지극 발원으로 한마음선원 창건주인 대행 큰 스님께 개원을 청했고, 초대 제주지원장에 혜동 스님이 부임했다. 이후 1989년 4월 현 영평동에 터를 옮긴 것이 지금의 시초가 됐다. 지난 1992년에는 현지원장 혜묘 스님이 부임해 20여년 이상 포교에 진력한 결과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은 제주지역 포교의 성지로 튼실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어 1995년에는 대행 큰스님을 모시고 4000여평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곳에서 성묘할 수 있도록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영탑도 조성했다.

이외에도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은 포교와 수행의 목적을 두고 어린이회, 학생회, 합창단, 보은회 등을 창립됐다. 특히 보은회는 불은에 보답하고자 지긋한 보살님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행단체다. 1999년 11월 첫 활동 이래 매년 손수 된장 등을 직접 담가 판매 수익금으로 도내 불교계 복지시설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물품과 중식 등을 제공하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행을 펼치고 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대웅전이다. 1997년 완공된 대웅전 건축양식은 국내에 흔치 않다. 제주지역의 기후를 감안해 지어졌는데, 기둥과 벽이 전부 돌로 돼 있고, 천장과 대들보, 공포는 나무로 돼 있으며, 지붕은 동기와로 된 독특한 양식을 띠고 있다. 대웅전 석벽도 한국불교사에 빛나는 16국사를 조각해 놓았다. 70평 넓이의 법당은 타 사찰의 법당과 사뭇 다르다. 신중탱화와 영단을 모시지 않았다. 단지 석가모니불과 탱화로만 봉안한 것은 부처님 한자리에서 일체가 벌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내가 존재하는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 부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우리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인공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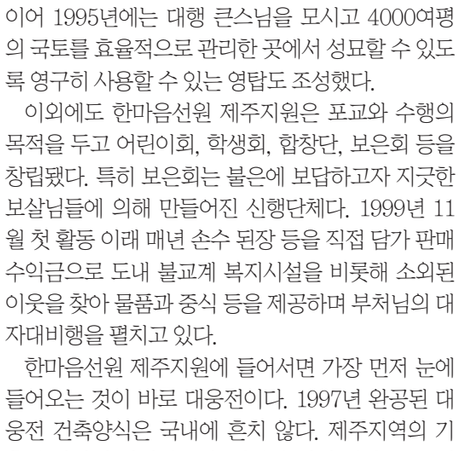
대웅전에 들어서면 후불탱화를 관조해 보자. 부처님 뒤에 나무로 조각돼 있는 탱화는 과거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것이 특징이다. 탱화는 크게 상세계, 부처님을 중심으로 우측의 중생계, 좌측의 지옥계를 상징한다. 탱화 속 나무는 큰 우주를 표현했으며, 쌍룡의 조각은 생명을 자아낸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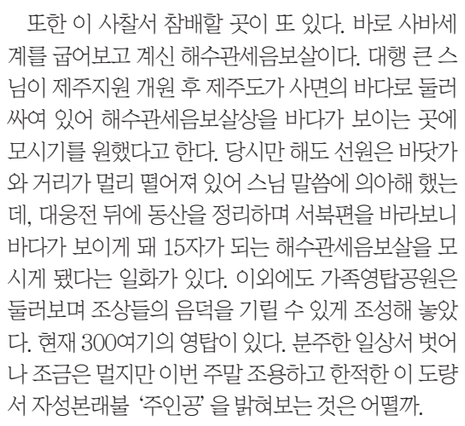
국내외 지원중 두 번째로 1987년에 개원
대웅전, 제주지역 기후에 맞춘 건축양식
해수관세음보살상, 영탑공원 등 조성

또한 이 사찰서 참배할 곳이 또 있다. 바로 사바세계를 굽어보고 계신 해수관세음보살이다. 대행 큰 스님이 제주지원 개원 후 제주도가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수관세음보살상을 바다가 보이는 곳에 모시기를 원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선원은 바닷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스님 말씀에 의아해 했는데, 대웅전 뒤에 동산을 정리하며 서북편을 바라보니 바다가 보이게 돼 15자가 되는 해수관세음보살을 모시게 됐다는 일화가 있다. 이외에도 가족영탑공원은 둘러보며 조상들의 음덕을 기릴 수 있게 조성해 놓았다. 현재 300여기의 영탑이 있다. 분주한 일상서 벗어나 조금은 멀지만 이번 주말 조용하고 한적한 이 도량서 자성본래불 '주인공'을 밝혀보는 것은 어떨까.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의 대표적 건축물인 대웅전은 1997년 완공됐으며, 제주지역의 기후 특성에 맞게 건축됐다.


사바세계를 굽어보는 해수관세음보살상.


300여기가 조성된 영탑 공원

"15개 신행단체 큰 원동력"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



"생활이 따로 있고 불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생활 속에 모든 재료가 들어 있고 내 마음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 '나'가 바로 나의 뿌리, 나의 근본으로 이끄는 근본, '참 나'입니다."

지난 1992년 부임 이래 20년 넘게 제주지원을 이끈 혜묘 스님은 '바로 우리들 생활이 법'이라고 강조한다. 매년 새해맞이 촛불재 정진법회에 각자 촛불을 켜고 자성본래불을 정근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신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의 힘은 무엇일까. 스님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열리는 정기법회가 가장 큰 힘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 법회 등 각 성격에 따른 15개의 신행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펼치는 신행활동도 제주지원이 발전하는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기자

여행수첩



▲절물자연휴양림(사진 위)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절물 자연휴양림은 제주섬 최고의 녹색 쉼터다. 전국의 자연휴양림 가운데 입장객 수가 가장 많고 휴양과 치유를 위한 제주 여행객은 반드시 찾는 명소다. 1997년 7월 개장한 절물휴양림은 300㏊(천연림 100㏊, 인공림 200㏊)의 국유림에 40~45년생 삼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울창한 삼나무 숲에서는 사계절 피톤치드가 쏟아진다. 휴양림 내에는 주종인 삼나무 이외에 소나무, 때죽나무, 산뽕나무 등과 더덕, 두릅 등의 나물 종류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2012년 11월 절물휴양림 주변에는 피톤치드가 더 강하게 뿜어 나온다는 편백나무 숲길이 새롭게 열렸다.

▲제주4 · 3평화공원

광주에 5 · 18공원이 있다면 제주에는 4 · 3평화공원이 있다. 화려한 자연경관 속에 숨겨진 제주의 민초들이 아픈 근현대사의 비극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지난 2008년 개관이래 4?3희생자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위무하는 추모공간과 4 · 3의 진실을 드러내는 기억의 공간으로 마련돼 있다. 4 · 3평화공원에서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제주인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의 경험장이 될 것이다.

▲먹을곳=절물휴양림 가는길에는 한정식집들이 많다. 그중 '명도암정식'은 값도 저렴하고 맛이 있기로 입소문이 나있다. 손순두부정식과 곤드레 정식, 도토리무침 등이 있다. (064)723-5254

▲찾아가는길=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서 동문로터리로 가서 공영버스 3번이나 택시를 이용한다. 자가용으로는 내비게이션에 주소, 제주시 영평동 1500번지를 찍으면 된다. (064)727-3100

이달의 독립운동가 6월의 인물 선정기념

백초월스님 순국 70주기 기념

추모재 및 학술대회 일시 _ 2014년 6월 10일 (화)

1부 독립운동가 백초월스님 순국 70주기 추모재(시간 11:00 ~ 12:00)
장소 : 진관사 대웅전 앞마당

2부 초월스님 순국 7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 '백초월 민족운동의 재조명'(시간 13:30 ~ 17:00)
장소 : 진관사 함월당

사회 : 김주용(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1주제 : 스토리스텔링으로 살펴 본 백초월 송명호(중부대 교수)
– 논평 :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

▶2주제 : 백초월의 민족운동과 혁신공보 이동언(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
– 논평 : 이정은(대한민국역사문화원 원장)

▶3주제 : 백초월 민족운동의 성격 및 위상 김광식(동국대 교수)
– 논평 : 홍사성(불교평론 편집위원)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광복회

후원 국가보훈처 은평구청

문의 진관사 종무소 02)359-8410

지구에서 최고로 행복한 나라
부탄으로 명상여행을 떠납니다.

자비명상 마가 스님을 모시고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부탄 순례 3가지

– 특 별 행 사 –
1 부탄스님 300분께 가사공양과 대중공양
2 부탄스님들과 자비명상 대법회
3 부탄 큰스님 친견 법회

일정 2014년 7월 17일 ~ 7월 23일 (6박 7일)
인원 선착순 50분 마감 6월 10일
가격 345만원(비자 · 팁 · 대중공양 포함)
계좌 농협 301-0123-5315-31(사단법인 자비명상)
문의 02)3666-0260 (사)자비명상

※ 부탄 스님들께 가사공양(한벌 $35)을 올리실 분 연락주십시요.

新 사찰 건축
9. 탄허기념박물관

탄허 스님 숨 쉬는 '허공의 방산굴' 백미

한국불교사에 이름을 남긴 선지식들은 셀 수 없이 많다. 한국 근현대불교사에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역경불사와 인재양성에 힘썼던 탄허(呑虛 · 1913~1983) 스님 역시 한국불교가 지금의 저변과 위상을 지니고 누리는 것에 크게 공헌한 선지식이 틀림없다. 스님이 적멸의 길로 자리를 옮긴 지도 30여 년이 흘렀다. 스님의 걸어온 길과 업적을 정리해 놓은 곳이 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대모산 기슭에 자리한 '탄허기념박물관' 이다.

스님의 유품을 모아놓은 전시장(일소대)을 비롯해 강당으로 쓰이는 보광명전과 법당인 방산굴 등으로 이뤄진 탄허기념박물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현대식 건축물로, 2010년 11월 26일 개원했다. 대지면적 1,984.28㎡, 건축면적 987.04㎡,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가 이성관(65 · 한울건축 대표)이 설계한 탄허기념박물관은 탄허 스님을 기리는 뜻과 함께 건축적인 가치를 조명 받은 건물이다. 격납고식 창문을 통한 개폐식 외벽, 공간 속에 떠있는 법당 등 새로운 시도를 도입한 기념관은 전통적인 사찰 공간을 현대건축 속에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설계자인 이성관 건축가는 탄허기념박물관으로 2010년 한국건축가협회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서울시건축상 최우수상, 제1회 김종성건축상을 수상했다.

한 권의 경전을 건축으로

탄허기념박물관 앞에 서면 '금강경' 부터 만난다. 유리로 되어 있는 외벽의 한 쪽 면을 금강경(한문) 전문으로 장엄했기 때문이다.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성전(聖殿)이며, 학림임을 상징한다. 모든 건축이 독특함을 가지고 있겠지만 탄허기념박물관이야말로 독특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건축이다. 그 중 하나가 금강경으로 장엄된 외벽이다. 유리벽면이 받아들이는 변화무쌍한 빛의 변화가 매 순간 변화무쌍한 금강경을 보여준다. 또한 금강경 한 글자 한 글자를 지나온 빛은 건물 안쪽에 또 다른 금강경을 새긴다. 설계를 담당했던 이 건축가는 철재와 콘크리트로 지은 이 집이 단순한 '돌집' 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건물의 가장 퍼블릭한 벽면을 건축적인 측면이 아닌 종교적인 '의미' 의 비쥬얼을 담당하게 하고 싶었다. 탄허불교재단 이사장이며, 탄허기념박물관 관장인 혜거 스님이 금강경을 추천했다. 이 건축가는 이 변화무쌍한 문자들로 '무상(無常)' 을 은유하고 싶었다고 했다. 탄허기념박물관은 한 권의 경전이기도 하다.


허공에 떠 있는 듯이 보이는 방산굴


강당으로 쓰이는 보광명전

전통에서 배운 현대적 동선

기념박물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08개의 녹슨 철주들을 지나게 된다. 108개의 철주는 108번뇌를 상징하는 것으로, 녹슨 철을 소재로 하여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번뇌 망상을 떨쳐버리는 수행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하나의 독특함이다. 이 건축가는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을 일주문에서 시작하여 대웅전에 이르는 우리나라 전통의 가람배치 형식에서 가져왔다. 외벽에서 시작되는 출입문을 통해 바로 내부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이 건축가는 일주문을 연상케 하는 캐노피(덮개 형태)와 108개의 철주를 지나는 긴 동선을 두어 내부로 들어서는 과정을 최대한 확장시켜놓았다. 제한된 공간을 분할함으로써 전통 가람에서 가질 수 있는 공간적 과정, 즉 입정의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전통에서 배운 현대적 동선인 것이다. 탄허 스님의 삶의 궤적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가람의 최종 공간인 법당은 건물의 가장 끝인 3층에 있다. 이 또한 과정적 공간을 두기 위함이다.

인재양성 정신 계승한 공간, 강당

신을 벗고 내부로 들어서면 사무공간과 우측으로 강당으로 쓰이는 보광명전이 있다. "강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설계를 맡았던 이성관 건축가는 탄허기념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설계를 맡은 이 건축가는 탄허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을 후학을 기른 '인재불사' 로 보았다. 탄허 스님은 평소 "법당 100채를 짓는 것 보다 스님 한 사람 공부시키는 것이 더 큰 불사다."며 인재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건축가가 강당을 크게 설계한 이유는 교육을 중요시 했던 스님의 정신을 표현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스님의 업적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서의 진정한 '탄허기념박물관' 을 실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탄허기념박물관은 스님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는 '공간' 이면서 스님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시간' 이 공존하는 건축인 것이다.

그리고 보광명전에는 이 건축가가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어렵게 완성한 '시도' 가 있다. 출입문이 아닌 벽면을 외부와의 소통의 과정으로 설정한 것이다. 벽면을 뚫어 만든 길이 7.5미터 짜리 접이식(격납고 개폐문 형태) 창문이다. 창문을 들어 올리면 건물 중앙에 만든 연못이 한 눈에 들어온다. 엣지가 없는 형태의 연못이 사라진 벽면을 채우면 안과 밖의 경계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탄허기념박물관의 백미 방산굴

탄허 스님은 역경불사를 통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억되는 것은 역시 〈신화엄경합론〉일 것이다. 〈신화엄경합론〉은 이통현의 〈화엄론〉과 징관의 〈화엄경〉주석서를 역해해 묶은 것으로 스님의 불사 중에서도 대작불사이다. 스님이 오랜 동안 주석했던 월정사 '방산굴' 은 이통현이 〈화엄론〉을 지은 장소인 중국 북경의 '방산토굴' 에서 온 것이다. 또한 방산굴은 스님이 속세에서의 인연을 끝내고 적멸에 든 의미 있는 공간이다.

탄허기념박물관에도 방산굴이 있다. 전시실과 함께 메인 층인 3층에 자리하고 있는 방산굴은 강당인 보광명전 안에 있는데 허공에 떠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스님의 법명인 '탄허(呑虛)' 의 허공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으로 탄허기념박물관이 가진 독특함의 백미이다.

보광명전을 나와 3층으로 오르면 방산굴이 보인다. 보광명전에서 올려다보이던 방산굴에 들면 이번엔 보광명전이 내려다보인다. 법당의 내부도 또한 새롭게 시도된 '독특함' 들이 있다. 전통적인 닫집의 형태는 아니지만 현대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닫집과 그 닫집을 통해 내려오는 조명의 형태다.

"전기가 없었던 과거의 법당은 마당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했죠. 닫집의 형태도 마당에서 올라오는 조명을 고려해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변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건축의 형태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람의 끝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면 탄허기념박물관의 끝은 탄허 스님이 계신 곳이다. 방산굴(법당)을 나서면 탄허 스님의 일대기와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상설전시장(일소대)이 있다. 스님께서 〈화엄경〉을 처음 번역하신 영은사 결사도량 '일소굴' 을 상징한다.

전통의 힌트 남겨놓은 현대건축

탄허기념박물관은 기념관과 박물관 그리고 법당(절)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공존하는 건축이다. 다시 외부로 나와 탄허기념박물관을 바라보면 건축가가 끝까지 고민한 마음을 볼 수 있다. 건물의 한 쪽 모서리를 파내고 그 안쪽에 전통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처마를 현대적인 형태로 들여놓았다. 처마는 오방색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전통적 형태에서 볼 수 있는 단청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그리고 유리로 지어진 현대적 건물 속에 건축가는 오랜 세월 우리 건축의 '전통' 이었던 처마와 단청을 남겨놓았다. 마치 후손을 위한 힌트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모국어처럼. 이렇듯 탄허기념박물관은 불교적 의미를 상징하는 은유, 그리고 탄허 스님의 정신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있는 건축이며, 전통의 힌트를 남겨 놓은 현대건축이며,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 현대적인 불교건축의 모델을 제시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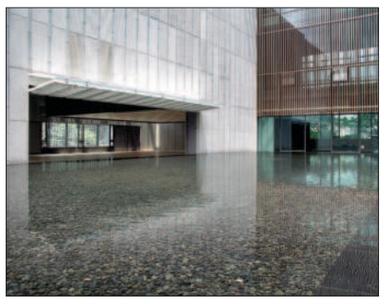


탄허기념박물관은 외벽(유리) 한 면을 금강경으로 장엄했다. 유리벽면이 받아들이는 변화무쌍한 빛의 변화가 매 순간 변화무쌍한 금강경을 보여준다.

2010년 11월 준공
외벽 금강경으로 장엄
전통에서 배운 현대적 동선

'교육' 계승위해 강당 크게 지어
격납고문 등 새로운 시도
처마 · 단청 현대적으로 재현


탄허 스님의 유품이 전시된 전시장


강당 벽면에 설치된 7.5m 격납고식 창

건축가 이성관은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림건축 등에서 실무를 익힌 후 도미. 컬럼비아건축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 HOK에서 수석디자이너로 다년간 근무. 1989년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주요작품으로 전쟁기념관, 데이콤강남사옥, 수입777, 반포577, 조만식기념관+웨스트민스터홀, EL Tower, 탄허기념박물관, 여초김응현서예관 등이 있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한국건축가협회상, 서울시건축상 금상, 김종성건축상 등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 기념대법회 회향 감사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녹음방초지절에 세계20억 불자여러분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지난 5월23일 오전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기념 대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한국불교계의 정신적 지주이신 50여 각 종단 종정스님과 주한 스리랑카 대사님을 비롯 정계, 학계, 언론계 등 5백여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셔서 축하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이 날로 발전하여 후대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 처럼 글로벌시대에 맞쳐 우리불교도 발전할수 있도록 세계20억 불자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동참하시여 세계적인 대작불사가 원만성취토록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불자 여러분들의 가내에 날마다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깃들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8(2014)년 5월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이사장 청운 박청운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일붕신문사 수석부회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 기념대법회가 끝난 후 단체 기념 촬영

불교TV(BTN) 녹화방송 일시
첫방 5월27일(화) 저녁10시, 재방 29일(목) 오전11시30분, 재방 31일(토) 저녁9시

법인사무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 29 (청운사)
서울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1 혜명빌딩6층 전관
전화 : (02)3401-9325, 010-6253-4936 전송 : (02)774-1487

“자유는 만유의 행복이라”… 민족 독립을 부르짖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⑩ 만해와 서대문 형무소 ㊦



서대문형무소의 옥사 내부.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만해 스님은 누구도 흉내 못 낼 장문의 선언문을 썼다.

문: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은 어떠한가.

답: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나라든지 제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략〉자존심이 있는 민족은 남의 압박만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복의 증진도 받지 않고자 하느니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라. 4천년이나 장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언제까지든지 남의 노예가 될 것은 아니다. 그 말을 다하자면 심히 장황하므로 이 곳에서 다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을 자세히 알려면 내가 지방법원 검사장의 부탁으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이라는 글을 감옥에서 지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갖다가 보면 다 알 듯하오.

1920년 9월 25일자 〈동아일보〉에서 전하는 ‘한용운의 공소 공판기’ 중 일부이다. 공판기에 나타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는 무엇일까.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는 만해 스님이 1919년 7월 10일 옥중에서 일인 검사 총장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옥중 독립선언문이다. 옥중에서 아무 참고서적 하나 없이 53장에 걸친 조선독립에 대한 선언을 남긴 것이다.

스님은 “조선민족이 이미 실력을 갖췄고, 군국주의를 내세운 독일의 1차 세계대전 패망과 민족자결주의를 앞세운 세계정세를 살펴보면 조선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갖췄다” 등의 내용을 갈파했다. 다시 말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는 만해 스님의 독립담론이 구체적으로 용해된 저술인 것이다.

이 선언문은 △개론 △조선독립 선언의 동기 ①조선 민족의 실력 ②세계 대세의 변천 ③민족 자결 조건 △조선독립 선언의 이유 ①민족 자존성 ②조국사상 ③자유주의 ④대세계의 의무 △조선 총독 정책에 대하여 △조선독립의 자신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깨알같이 써내려간 스님의 글을 모두 읽은 일본 검사장은 그만 고개를 떨구었고, 조선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당위성, 세계정세까지 꿰뚫어보는 스님의 안목과 논리 정연함에 말문을 잇지 못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인구에 회자된다. 이에 대한 기록은 현재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에도 실려있다.

“이 글월은 만해 스님이 기미년 3.1운동 사건으로 투옥돼 옥중에서 일인 검사의 심문에 말로는 다 대답할 수 없다고 옥중에서 글로 대답한 옥중답서(獄中答書)로서…. 〈중략〉 일인 검사는 스님의 답변서서를 보고 탁월한 인격과 고매한 사상에 감복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은 정당하나 일본 제국주의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밝힌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는 독립선언문보다 그 내용이 더욱 심각하고 일본 제국주주의 침략 근성을 정곡으로 찔러 주는 글월입니다.” 〈대한불교, ‘한용운 선사 옥중기, 조선독립의 서’ (1969년 3월 2일)〉

3.1독립 운동 주도 현장서 체포

일제 취조 중 ‘조선독립…’ 저술

일필휘지로 써내려 간 옥중 선언문

조선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 담겨

검사 “주장 정당하나 제국에 위배”

‘독립신문’ 제25호에 전문 개재

독립신문 개재… 임시 정부 기초다져

이후 선언문은 불교청년 김상호에게 전달돼 〈독립신문〉 제25호(1919. 11. 4) 3, 4면에 개재된다. 개재 당시 제목은 ‘조선독립 감상의 대요’ 였다.

서슬이 퍼런 제국 식민지 시절, 일제 체제를 비판하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갈파한 선언문이 어떻게 상해 임시 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실릴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대략적인 해답은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논문 ‘한용운의 조선독립의서 연구’ 에서 만날 수 있다.

김광식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가 독립신문에 전해진 과정을 1971년 발간된 〈나라사랑〉(만해 스님 특집호)와 만해 스님의 상좌 춘성 스님의 구술에서 찾는다.

먼저 〈나라사랑〉에서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스님은 옥중에서 기초한 이 선언문의 전문을 작은 글씨로 휴지에 적어 접어 종이 노끈을 만들어 형무소로부터 차출되는 의복 갈피에 삽입, 간수의 감시를 피해 유출시켰다. 이렇게 유출된 것이 원문 그대로 등사돼 만주 방면의 독립운동단체로 전해진 것이다. 이를 전한 것은 춘성 스님과 불교 청년 김상호다. 춘성 스님은 당시 상황을 이 같이 기술했다.

“그때 나는 주로 그분의 사식 따위가 아니라 바깥의 공기라든지 그분이 몰래 써준 글을 밖으로 가져오는 일이 중요했어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끈을 돌돌 말려서 내손으로 받아왔지.”

김광식 교수는 춘성 스님의 증언으로 스님이 원고를 받아낸 장본인이지만 이를 내외에 알린 것은 김상호라고 설명했다. 김상호는 항일단체의 성격을 가진 〈조선불교청년회〉의 발기인이자 회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상해임시정부와 국내 불교계를 연결하는 통신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고 통신을 통해 독립운동의 정보, 군자금 전달, 불교계 인사들의 임정 망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독립운동 루트였다.



〈독립신문〉에 실린 만해 스님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서대문형무소의 옥사 전경. 지금은 교육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와 독재 시절에는 항일 운동가와 민주화 인사들이 이곳에서 고초를 겪었다.

김광식 교수는 “춘성 스님이 만해 스님의 상좌이기 때문에 원고를 받아 김상호에게 전달하고 김상호는 자신이 관여한 임시정부를 루트를 이용해 내외로 전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만해 스님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가 내외로 전파된 것은 당시 임시 정부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힘이 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민족 독립의 기개를 밝힌 선언

일본인 검사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 장문의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만해 스님의 일생일대의 대선언은 가장 먼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주장으로 시작한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자유를 득하기 위하여 생명을 홍모시하고 평화를 보하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당하니 차는 인생의 권리인 동시에 또한 의무일지로다. 자유여 평화여 전 인류의 요구일지로다. 전 세계를 대표할 만한 군국주의는 서양에 독일이 유하고, 동양에 일본이 유하도다. 침략 또 침략 극악 또 참극의 군국주의는 독일로써 최종막을 연하지 아니하였는가. 정의 인도의 승리요, 군국주의의 실패니라.”

이에 대해 전보삼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한국박물관협회장)은 “만해 스님은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통해 ‘제국주의 침략주의는 인간의 참다운 생명을 희생시키는 불행을 초래했고 서양의 독일과 동양의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 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 ‘조선 민족이 독립을 하려고 함은 자기가 스스로 살려는 본능이며 누가 이것을 억제하거나 방해할 것이냐’ 고 반문하며 당위성을 되짚었다”고 설명했다.

‘조선독립 선언의 동기’ 에서는 △조선민족의 실력 △세계 대세의 변천 △민족자결의 조건을 들어 그 당위성을 논설하고 있다.

만해 스님은 조선이 자존성이 강하고 독립국가로서 역사와 전통이 있어 능히 현대문명을 받아들일 능력이 충분하며, 강대국들에게도 미래는 침략적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자존적 평화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조선독립 선언의 이유’ 를 통해서는 민족의 자립과 끈질긴 투쟁,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독립의 원리임을 분명히 밝히며, 민족 자결은 세계 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민족 자결주의가 성립되지 못하면 아무리 국제 연맹을 체결해서 평화를 보장할지라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며 “그러므로 조선 민족의 독립 자결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요, 또 동양에 대해서는 실로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정세를 정확히 분석해 갈파하고 있다.

이 같이 내용만을 살펴봐도 이 선언문이 당시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민족자결주의 담론을 정갈한 문장으로 기개있게 적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보삼 관장은 “만해 스님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 넘쳐나는 독립정신의 원천은 자유 평등 평화로 이어지는 대강령”이라며 “자유는 만유의 생명, 인간 생활의 참다운 목적으로 인식하고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한계로 삼는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한 3 1정신의 요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해 스님의 자유주의 정신은 조국독립으로, 동양 평화로, 세계 평화로 끝없이 지향해가는 만해 정신에서 민족 정신으로 승화됐다”고 덧붙였다.

김광식 교수도 “만해 스님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는 스님의 독립정신의 핵심이 오롯이 담겨 있다”면서 “이 선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민족운동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는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의 정수이자 최고봉”이라고 평가했다.

서대문 형무소의 차디찬 감옥에서 어느 누구 하나의 도움없이 자신의 주장을 갈파할 장문의 선언서를 쓸 수 있던 만해 스님의 기개와 지성은 우리 후학들이 되새겨야 할 덕목들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핸들 잡았다 하면 벌써 마음자리

새말귀(新話頭) ④

어째서 새말귀를 갖다가 만들었느냐? 말귀라 하는 건 선, 화두, 화두가 바로 말귀거든. 말 화자하고 머리 두자 하고 바로 말귀여.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말귀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 새말귀, 신화두라. 이런 뜻에서 했는데 이 말귀, 화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 제일 머리에 떠오른 것이 운전수들은 화두 가져서는 안 되거든. 이 화두법이 말이지 생긴 지가 한 천년 됐는가 이래요, 그 전에는 없었어. 어느 것 하나 말귀가 아닌 것이 없지만은 요새처럼 화두니 뭣이니 그 개념이 달라졌다 말이지. 이전과는 달라졌어. 부처님 당시와는 달라. 그만치 달라졌어. 개념이 달라졌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운전수는 안 된다 말이여. 그거 참 큰일났다 말이여. 그러면 법이 아니라 말이여. 그러면 불법 치워야 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직업에 따라서. 또 사람은 직업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 밥 먹을 때 밥 먹을 줄 알아야 이거 직업이라. 잘 때 잘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거 직업이라 비유해도 괜찮거든. 변소 갈 때 변소 갈 줄 알아야 된다 말이지. 그런데 운전수는 안 된다 말이여. 왜 그러느냐. 벌써 문제가 다르거든. 그러하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불법, 이거 화두법 없애버려야 된다 말이여.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물론 자기의 성의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본다 할 테면 이건 안 됐다 말이여. 운전수도 할 수 있는 말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화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새말귀를 만든 거여.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새말귀라 신화두라. 신화두라 해야 납득이 가. 새말귀라 하면 납득 안 가는 줄도 내 알아.

지금 이거 만든 지가 한 십년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납득 안 갈 거여. 화두, 이거 말마디, 여기 꽉 찌달려가 있거든. 화두라 해야 알아. 말귀라면 이상해. 그것도 내 알아.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말이여.

이거는 오십년이나 백 년 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만들어 놓은 거여. 불법을 믿는 불자라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야 된다 말이지. 말귀를 만들어냈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말이여. 있어. 없는 것이 아니거든.

이거 여러분들 단단히 알아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얘기가 좀 수월해. 우선 사람이 이걸 가지는데 사람 자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모르고 화두를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 그건 대오를 못하는 법이여. 인간이란 어떻다 육신이 어떻다 어째서 육신이 생겼다. 어디서 왔다. 어떠한 작용을 한다는 거. 안이비설신의, 이거 전부 하나의 기관이거든. 이런 기관을 둬서 일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 말이여.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이 불법이여. 다른 거 아무 것도 아니여.

그러면 우선 이 육신을 확실히 알라 할 테면 육신, 이거 자체성 없는 거 알아야 돼. 성품 없어. 이거, 성품 없는 것이거든.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이거를 거느리는 슬기가 있어. 지혜가 있어. 철과 슬기가 있어. 철과 슬기가 들어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쓰는 거여.

> **새말귀 운전에 비유해보면**
> **손이 핸들을 잡는 것은**
> **지혜가 하는 일**
> **손은 심부름에 지나지 않아**
> **'운전 잘 해야겠다'는 마음**
> **빛깔도 소리도 없는 마음자리**

가만히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그래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철과 슬기는 어떤 거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없어. 그런데 눈은 눈대로 활동을 하고 귀는 귀대로 활동을 하고 입은 입대로 활동을 해. 발은 발대로 활동을 해. 하는 것 전부 뭐냐 할 테면 이 자체의 슬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 자체는 몰라. 만약 불난 데로 뛰어든다 할 테면 이것도 뛰어들어. 자체 그것이 없으니까. 아이고 겁나서 안 된다 싶으면 이거 안 가거든. 순전히 하나의 사용기관에 지나지 못한 거여. 이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얼마라도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제일 첫째 운전하는 사람을 비유한다면, 핸들을 가져. 핸들을 가진다 할 테면 이 손이 가지거든. 손이 가진다 할지라도 손은 자체성이 없어. 심부름꾼이라. 핸들을 가져야 되겠다 해야 가지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건 누가 그리 하느냐? 지혜가 그리 아는 거여. 그래서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지혜가 아는 것이거든.

손은 공연히 심부름에 지나지 못해. 만약 그렇다면 지혜의 놀음놀이지 손의 놀음놀이가 아니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운전을 하고 간다 할 테면, 나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자리거든. 마음자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 놓으면 이거 잡아도 그만이라. 이건 자체성 없는 그 자리니까. 그리 하면 벌써 화두거든. 이거 말귀라.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손을 시켜서 손으로 하여금 운전을 한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도록 내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 늘 "나는, 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인데, 이 자체성이 없는 손으로 하여금 핸들을 돌리면서 사고 없이 가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핸들을 딱 잡으면 손이 잡는 거 아니거든. 그러나 손이 잡지 않은 것도 아니라. 벌써 핸들을 딱 잡았다 하면 벌써 마음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시켜서 이래 딱 잡는 것이거든.

또 밤에 잘 때는, 육신이 이 기관은 오늘 종일 이리 저리 다니다가 이 시간엔 일을 안 한다 마음자리에서 일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선을 한다. 얼마라도 선이 되거든. 나중에는 내가 시켰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켰어. 이거 마음 나툼이라. 그래서 이제 손을 썼어. 다리도 썼어. 모든 걸 다 써. 그런데 밤 되면 쓰지 않거든. 쓰지 않고 그대로 방하착 해버린다 말이지. 해서 편안하게 오늘 선을 해도 좋고 뭣을 해도 좋고 이런데 그러기 때문에 요 도리를 알아버리면 여러분들 참말로 견성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스러운 행동의 가능성이 '자유'

④ 참제업장(懺除業障)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佛(一拜)
彌陀身色如金山 相好光明照十方
唯有念佛蒙光攝 富知本願最爲强
四句三聚戒圓滿 六意五修爲成辨
遠離二邊滅諸罪 等 k一味遊方外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업장(業障)을, 자기가 한 짓을 참제(懺除)한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며 육시행원 예참문의 예참(禮懺)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짓에 얽매이고 장애(障碍)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가 많다. 업장을 참회하고 제거(除去)해 버리는 사람은 대장부(大丈夫)요, 용단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부처님의 몸은 금빛이다(彌陀身色如金山)' 하였는데 과연 아미타불은 왜 금빛으로 칠해져 있는 것일까? 아미타불 사십팔원(四十八願) 중에 동진금색원(同眞金色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들이 다 같이 참된 진금빛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얼굴이 부처님의 상호(相好)처럼 눈 · 코 · 귀 · 입 매무새가 모두 찬란한 금빛이라고 한다면 나쁜 짓이란 도저히 할래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진금(眞金)빛 얼굴은 시방세계에 광명을 놓는 사람의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상호, 이러한 광명의 자리의 끝내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그것은 오로지 염불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염불하는 사람, 즉 감사하고 보은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감사할 줄 알고 보은하는 사람은, 그는 이미 평등하고 불변한 진금빛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 진금색 이야기는 원효대사의 〈보살지범종요(菩薩持範宗要)〉에 있는 것을 인용하였다. 그리하여 '오로지 염불하는 이만, 아미타불의 비원(悲願)을 아는 이만 진금색 자리에 앉는다' (唯有念佛蒙光攝富知本願最爲强).

또 '사구(四句)와 삼취(三聚)가 무르익어 육의(六意)와 오수(五修)의 분별이 서고' (四句三聚戒圓滿 六意五修爲成辨.

사구는, 칠불통계(七佛通戒)의 사구라고 일컬어 옛날 칠불 때부터 오늘날까지 부처님 사이에 전해 내려 오는 사구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諸惡莫作 악한 일이란 아예 하지 말고
衆善奉行 착한 일을 모두 행하며
自淨其意 스스로 그 정신을 맑힌다.
是諸佛敎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악한 일이란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고 선행은 모두 다 해라, 그러니까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말씀이다. 삼취(三聚)는 유가(瑜伽)와 십지경(十地經)에 있는 말인데 삼정계(三淨戒)를 이름이다. 이는 섭율의계(攝律儀戒), 계율은 모두 맞추어 지켜야 한다. 섭선법계(攝善法戒), 모든 선행을 다 해야 한다. 섭중생계(攝衆生戒),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세가지는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의 요약된 구경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계(戒)실라(Silla)는 인간으로서 바랄 수 있는 원만한 최상의 윤리다.

> **이변 여의고 중도 얻은 뒤**
> **자재로운 해탈에 들어간다**
> **해탈이란 자유로운 행동이다.**
> **속박과 번뇌에서 벗어나**
> **죄 · 업장 뒤따르지 않으면**
> **자유라 부른다**

앞의 계율이 소극적인 금지 규정인데 비하여 육바라밀은 능동적인 행동의 규범이다.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의 육바라밀을 삼지오수(三祇五脩)한다고 말한다. 삼지(三祇)는 삼아승지(三阿僧祇), 아승지가 세번 거듭된 것, 시간적으로 무량 · 무수겁(無量 · 無數劫)을 세 번 지내야 된다. 오수(五脩)는 십신(十信) · 십주(十住) · 십회향(十廻向) · 십지(十地)의 다섯 가지 수행의 계단이다.

'두 극단을 멀리 여의어 죄업을 모두 없앤다' (遠離二邊滅諸罪).

우리는 참회하여 업장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더 나아가 이변(二邊)을 멀리 떠나 버려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원효대사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모든 계율을 지키는 목적도 이 이변이라는 두 극단을 여의어 중도(中道)를 얻는데에 있다고 한다. 이변을 여의고 중도(中道)를 얻은 다음에는 자재(自在)로운 해탈(解脫)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해탈이란 자유로운 행동이다. 속박과 번뇌에 벗어나 죄 · 업장(業障)이 뒤따르지 않는, 성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나는 비구(比丘)의 이백 오십계를 닦는다, 저 사람은 그것을 못하니 비구가 아니다, 불제자(佛弟子)가 아니다, 이런 말하고 있을 때 그는 계율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사회사업을 한다, 그런 선행한 것을 자기가 선전하거나, 이것으로서 남에게 도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필경 그 사람은 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자유자재하고 중도의 실상을 터득한 사람만이 죄악을 벗어난다.

원효대사는 말씀하시기를 계율은 방법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하셨다. 계율이 법률의 경우처럼 애초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계율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와 자재와 해탈을 얻게 하는 데에 있다. 만일 이러한 목적을 이탈하여 계율에만 얽매여 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수행자로서 그릇된 생각이므로 버려야 한다.

결국 문제는 등찬일미유방외(等 k一味遊方外) 즉, 일미를 먹고 자재(自在)로와진다는데 있다. 유방외(遊方外)는 자유와 해방과 자재로운 지경을 획득한다는 것, 우리가 속박을 받으라고 부처님이 계율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변처중(二邊處中) 하고 각행(覺行)이 궁만한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역시 부처다운 자유와 자재를 얻게 하려던 것이다.

무애자재라고 하면 이것은 벌써 모든 업장(業障)이 참제(懺除)된 때를 이른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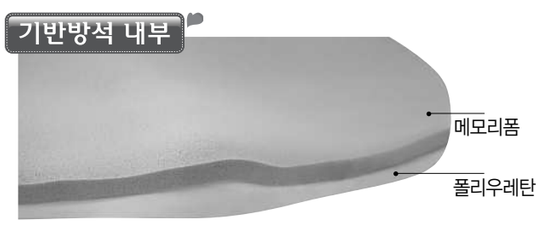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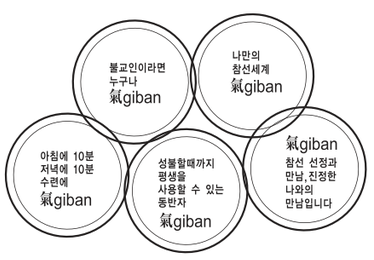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9〉

현답이 된 동문서답

망월선원 조실 용성스님께 보낸 답서

近日鄙留壁上에 畵二猿二猪러니 人皆稱名畵라 望月大衆은 一次來玩이 如何오.
漢 岩

요사이 제 방 벽에 원숭이 두 마리와 돼지 두 마리를 그려 놓았는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들 명화(名畵)라고 합니다. 그러니 망월선원의 대중들도 한 차례 와서 구경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한 암**

이 편지는 도봉산 망월선원(望月禪院) 조실로 있던 백용성(白龍城) 스님의 법거량 편지에 대하여 답한 것이다. 당시 백용성 스님은 도봉산 망월사 선원 조실로 있었는데, 전국 선원에 다음과 같은 법거량 편지를 보냈다.

"조주무자를 십종병(十種病)에 떨어지지 말고 한 구(句)를 일어 보시오(趙州無를 不落十種病하고 道將一句來하라)".

십종병이란 '무자화두 십종병(無字話頭十種病)'을 뜻한다. 즉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 병통이 되는 열 가지로, ①무자화두를 '있다 없다'는 식으로 헤아리지 말라(不得作有無會). ②무자를 진무(眞無)의 무(無)라고 헤아리지 말라(不得作眞無之無卜度). ③무자에 무슨 대단한 도리가 있는 것으로

백용성 스님 법거량의 답신
원숭이와 돼지 비유로 법문

생각하지 말라(不得作道理會), ⑤눈과 눈썹을 깜박이는 곳에서 뿌리박지 말라(不得向揚眉瞬目處楕根) 등 열 가지이다.

그런데 '조주의 무(無)'에 대하여 이 열 가지에 저촉되지 말고[不落十種病] 한마디 해보라고 한다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양미순목 같은 것으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으나, 이것도 십종병에 들어가 있으므로 곤란하다. 상대방이 답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차단하고 묻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코너로 몰아붙이는 방식이다. 즉 도망갈 여지를 없애고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한 한암선사의 답은 매우 해학적이다. 망월선원에서 보내 온 법거량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내 방 벽에 원숭이 두 마리와 돼지 두 마리를 그려 놓았는데, 다들 명화(名畵)라고들 하니 망월사 선원의 대중들도 한번 와서 감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鄙留壁上, 畵二猿二猪, 人皆稱名畵. 望月大衆, 一次來玩如何)"라고 하여 동문서답 식으로 답하고 있다.

원숭이 두 마리와 돼지 두 마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원숭이는 잔꾀, 사량 분별심, 알음알이를 뜻하고 돼지는 우치(愚癡), 무지(無知), 무명(無明)을 뜻한다. 즉 '한가하게 분별심을 내어서' 조주 무 '에 대하여 한마디 해 보라'는 등 부질없는 일일랑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우치(愚癡)와 무명(돼지)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구나 하시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

보월화상(寶月和尙)에게 보낸 답서

발징화상(發徵和尙)의 상서(祥瑞)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서 모두 합장한 채 귀의하거니와, 오늘 여기의 상서는 지혜 없는 이와는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만일 스님이 물어주지 않았던들 하마터면 묻힐 뻔했습니다.
상서(祥瑞), 상서여, 드물고, 드물고, 드문 일이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일념 중인 대중들이 오줌 눌 때에는 오줌 누고, 똥 눌 때에는 똥 누니라.
한 암

이 편지는 덕산 정혜사 보월화상(寶月和尙)에게 보낸 답서이다. 보월화상은 만공선사의 첫 제자인 보월성인(寶月性印, 1884-1924이다. 보월화상은 한암스님

'상서(祥瑞)'를 묻는 보월에게 답
"오줌 눌 때는 오줌 누고…"

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옛날 신라 때 발징화상은 건봉사 미타만일회(彌陀萬日會)를 개최하여, 아미타불을 염불한 결과 31인이 육신(肉身)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는데, 올 동안거엔 무슨 상서(祥瑞)가 있었습니까?(昔日 發徵和은 阿彌陀佛을 念하야 三十一人이 肉身騰空이어니와 今冬安居에 有何祥瑞오)"라고 물었다. 여기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상서(祥瑞)'라니 그 무슨 허튼 소리인고? 그저 대중들은 한 생각으로 오줌 눌 때에는 오줌을 누고, 똥을 눌 때에는 똥을 눈다"고 하여 평상심이 곧 도[平常心是道]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두 편지는 1921년 건봉사 만일선원(당시 조실 한암선사)에서 간행한 〈한암선사법어〉에 수록되어 있다. 그 후 〈한암일발록(漢岩一鉢錄)〉에도 수록함.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호스피스는 다음생 준비 위한 봉사 누구의 죽음도 소외되선 안되요"

능행 스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장)

"죽음과 삶은 두 다리와 같습니다. 한 쪽 다리를 내밀면 삶이고 다른 한 쪽을 내밀면 죽음이 되는 거죠. 둘은 서로 공존하며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하나만 바라보고 집착하며 죽음을 외면합니다. 결국 해탈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은 다시 재생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하죠. 즉 죽음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수행하며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완화의료시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하 자재요양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있는 능행 스님(자재요양병원장)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한다.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능행 스님의 20년 넘는 보살행은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무연 자비의 실천이 개인 · 사회 살린다

자재요양병원의 개원식이 6월 15일로 다가왔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자재요양병원은 연면적 2,887.52㎡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08병상을 갖추었다. 1층 호스피스 병동, 2층 재활병동, 3층 승가병동 등이 있으며,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 등을 진료한다. 스님들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1인실, 특실, 특수치료, 보약, 영양제 등의 비수가 부분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재병원은 치료를 통한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완화의료 병동 환자들을 위해서는 전인적이고 영적인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님은 2000년 충북 미원면에 호스피스 시설 정토마을을 건립해 말기암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불교계 호스피스 시설이 전무후무했기에 희망자는 많은데 수용인원은 15명뿐이었다. 몇 개월을 기다려 들어와야 하니 스님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다. 그래서 진료부터 임종까지 돌봐줄 수 있는 병원 건립을 발원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토마을 설립 당시인 1990년대 말만 해도 요양시설이 너무 부족했어요. 특히 불교계는 이런 시설이 드물었죠. 스님들은 부처님 곁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울 수밖에요. 이런 이유로 정토마을을 설립했지만 15명 밖에 수용할 수 없으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병원 건립을 원으로 세웠습니다."

정토마을 설립에서 자재요양병원 건립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스님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산을 넘으면 바다가 있고 바다를 건너면 또 다른 험한 숲이 있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스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원력을 갖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고통을 분담하면 가족이 살고 사회 전체가 밝아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저희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보살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병간호를 하던 거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사업도 망했죠. 당시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딸은 스물네살의 교사였는데 월급은 차압을 당해서 오갈 데가

'죽음' 화두… 호스피스 활동 시작
1988년 불교봉사단체 자비회 설립
1992년부터 말기암환자 돌보기 봉사
2000년 충북 미원면에 '정토마을' 세워

올 6월 15일 자재요양병원 개원 예정
완화의료 목적… 승가병동 등 총 108병상
1만5천 후원자 및 봉사자와 원력 불사
20년 돌봄 수행의 결실

없었어요. 보살님이 정토마을에 오면서 딸에게는 파산신청을 권유하며 교사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었어요. 군대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 했는데 이렇게 집안 문제가 해결되자 삶의 희망을 얻었다고 해요. 보살님은 6개월 후에 정토마을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결국 저희는 환자 한 분을 거뒀는데 가족이 희망을 찾은 셈이 됐죠."

상대가 누구이든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떠안아 주는 것이 복지의 할 일이라고 말하는 스님. 스님은 이를 무연자비의 실천이라고 표현한다. 병자 한 명을 구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에 안정을 얻게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도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한다.

한 손으로 목탁 치며 기도해준 도반

스님이 2003년부터 병원건립을 계획해 2005년 울산에 부지를 갖추고 완공까지 총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병원 건축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모연을 통해 병원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그래서 이 일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일이라고 전한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1만 5천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분들께 큰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정토마을에 10년 동안 함께 했던 도반 성오 스님이에요. 스님은 반신불수의 몸으로 기도를 하며 안을 지켰고 저는 탁발을 하러 다녔죠. 개원을 앞둔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성오 스님입니다."

성오 스님은 2001년, 동안거 중 쓰러져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 정토 마을로 들어왔다. 능행 스님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죽을 쑤어 스님의 코로 호스를 연결해 영양을 공급해 주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성오 스님이 어느날 눈을 떴고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스님은 오른쪽 전신과 언어기능이 마비되었고 문자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러니 그간 외웠던 경전도 다 잊어버린 상태. 성오 스님은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글씨를 익혀 나갔으며 반야심경과 천수경도 새롭게 외우기 시작했다. 능행 스님은 그 즈음 병원 건립을 발원하고 탁발을 하러 다녀 기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성오 스님은 자신이 기도를 하겠다며 자처했다. 그때부터 정토마을 5평 남짓한 법당에서 스님은 왼손으로 목탁을 치며 기도를 시작했다. 기어서 가거나 혹은 간호사의 등에 업혀서 법당까지 가야 했지만 성오 스님은 하루 세 번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천일의 기도가 이어졌다.

"자신의 육체기능(특히 심장기능)을 20% 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스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스님이 안을 지켜주셨기에 제가 밖을 돌며 탁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스님의 천일기도가 끝나자 울산의 자재요양병원 부지가 확보됐어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쓴 책이 많이 팔려서 인세를 받아 그곳에 교육시설 하나를 지을 수 있었죠. 스님께서는 병원이 절반 정도 완



치료를 통한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자재요양병원' 전경



한손으로 기도를 했던 故 성오 스님과 함께



2005년 정토마을 식구들과 기념촬영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공 될 즈음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며 이제는 저 혼자 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정토마을에 들어온지 꼭 10년만이었죠."

성오 스님의 바랑에는 정토마을 사람들과 풍경 사진이 유산으로 남아 있었다. 능행 스님이 사준 작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왼손으로 찍어낸 사진이었다. 능행 스님은 성오 스님 얘기를 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간 병원 짓기에 바빠서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는 능행 스님은 개원을 앞두고 성오 스님 생각이 너무 난다고 했다.

도망가려 했지만 언제나 그 자리

스님은 故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출가를 결심했다. 법정 스님과 같이 고요하고 청정한 삶을 발원했던 스님이 이렇게 호스피스 활동에 뛰어든 것은 죽음 앞에 너무나 처절해지는 인간의 고통을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1988년부터 불교봉사단체 자비회를 설립해 소외이웃을 돌봐오던 스님은 1992년 말기암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죽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철학적 의문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 처음에는 죽음이 궁금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돌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들짐승처럼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처님께서는 분명 '천상천하유아독존'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모두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왜 저렇게 죽어 갈까? 이렇게 발달된 문명 속에서 인간의 죽음이 이렇게 소외되고 비참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들을 잘 보내드리고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로 활동을 하면서 스님은 수행만 하다가 토굴에서 외롭게 병들어가는 수좌 스님들의 죽음, 이웃 종교 시설에서 생을 마무리 해야 하는 안타까움 등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면서 불교인들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떠나갔다. 여기에 온몸으로 자비를 실천하며 공익을 위한 삶을 살라는 은사 수환 스님(조치원 학림사 주지)의 간곡한 당부에 힘입어 정토마을 설립을 추진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 안하고 대만으로 갈 생각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겁나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기로 한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즈음 어느날 화성 자재정사 묘희 스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1억원이 든 바랑을 안겨 주셨죠. 이 일은 꼭 제가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 저를 차에 태워 정토마을 부지에 내려놓고 가셨어요."

스님은 그 돈으로 수도와 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두 평짜리 콘테이너 박스 한 동을 사서 기도 하면서 정토마을 불사를 시작해 2000년 정토마을을 설립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어요.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매일 죽어가는 이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죽음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여기에 시설을 운영하려면 한 달에 3천 만원 정도 필요했는데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의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죠.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3일 동안 집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식구들은 제가 탁발을 나갔다 생각했지 아무도 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말이죠.(웃음)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다시 서있는 곳이 정토마을이었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죠. 그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죠. 이제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기꺼이 이 생을 여기에 던지겠다고."

늘 법정 스님과 같이 청정히 수행하는 삶을 동경했던 능행 스님이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스님은 다시는 다른 삶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다. "그분의 삶을 동경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번도 법정 스님을 뵌 적은 없어요. 법정 스님 입적 이후에 삼제 때 길상사를 찾아간 것이 전부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지금 제 삶은 법정 스님의 맑은 삶을 또 다른 길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에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능행 스님은 … 1994년 조치원 학림사 수환 스님을 은사로 출가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으며 조계종 자원봉사단 충북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독립형 호스피스센터 정토마을 원장, 동국대 총동문회 이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한국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협회 교육이사, 마하보디임상전문교육원 원장, 조계종 포교원 산하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상임이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제3회 대원상 단체부문 대상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제24회 불이상 실천분야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임상전문서적 〈불교 임상기도집〉, 산문집 〈이 순간〉 등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스님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것보다 미리 죽음에 대처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불교방송TV '지금 이 순간' 의 진행자이기도 한 스님은 "죽음은 삶과 삶을 잇게 해주지만 우리는 죽음의 역할을 너무 모르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 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현대불교의 지면을 빌려 지금까지 함께 동참해준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일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건축에 문외한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불교인을 위한 병원을 지어 달라는 그 바람을 제가 함께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큰스님을 비롯해 불자님들에게 현대불교의 지면을 통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가장 가슴 벅찬 말 '아빠스님'

대둔사에도 봄이 찾아왔다. 봄은 숨찬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이 나른한 평화를 누리는 것도 잠깐 일어나라, 일어나기 싫다. 학교 가자, 학교 가기 싫다 하는 입씨름 소리가 내 귓가로 들려왔다.

"어여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 안 해!"

부스스 까치 같은 머리 꼴을 하고 마지못해 일어나는 세 명의 남자 아이들, 아침부터 한숨이 새어 나왔다. 남자 아이들 셋이 모여 있다 보니 두 곱절의 힘이 들었다. 특히 말썽꾸러기 두 녀석은 내 속을 무던히도 섞였다.

나는 한동안 진호, 진수, 오복이 이렇게 세 아이의 보호자인 '아빠 스님' 으로 통했다. 진호와 진수는 형제지간인데 두 녀석은 무던히도 내 속을 섞였다. 미운 일곱 살이라고 하던데 이 녀석들은 그보다 더 힘든 미운 사춘기를 나고 있었다.

"진수 아버지 되십니까?" 하루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여기는 진수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아버지께서 한 번 다녀가셔서 학부형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걸려 온 전화에 마음이 복잡했다. 처음으로 학부모 입장이 되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불려가는 날이었다. 나를 마주한 교장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렵게 말을 꺼내었다.

"스님, 애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수 녀석이 제법 큰 잘못을 저질렀다. 컴퓨터실에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가위로 컴퓨터 10대의 자판 선을 다 잘라 버린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교장 선생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간신히 여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또 옮겨 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 됩니다."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했다.

"가정 폭력으로 상처가 많은 아이예요. 엄마 혼자 키우기 어려워 제게 데리고 온 아이인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귀를 막아 버린 것처럼 대꾸도 없고 반응도 없었다. 나중에서야 진수가 엄마와 떨어져 분리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가 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 어쩌면 좋은 아빠가 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다. 처음 절에 아이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하면 아이들도 잘 따라 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 기준에서 잘하는 것과 아이들 기준에서 잘 하는 것은 달랐다. 이 차이를 인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속앓이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잔소리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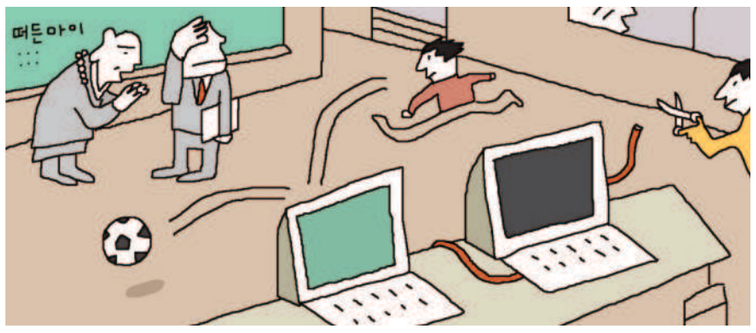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살이구나를 알게 되었다.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사는 일이 그 보살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인낀이다. 참을 인낀자를 가지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런 보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절에서 몇 차례 아이들을 맡아 키운 이후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받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스님 아빠' 보다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 한 부모 가정이라도 엄마의 품이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이 작은 실패를 통해 나는 아빠 되기의 어려움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에게 '아빠 스님' 이라고 불렸을 때의 환희를 알게 되었다. 좋은 아빠가 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아빠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내 곁을 떠나간 녀석들아, 언제가 스님에게 연락 한 번 다오. 보고 싶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흥국농산
유황오리,다슬기엑기스 강력추천!!
함양군 HAM YANG GUN



보리빕과 약재 부산물, 다슬기 껍질을 유황과
함께 배합하여 먹여 키운 유황오리
100ml*90팩 = 449,000원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80ml*60팩(1박스) = 109,000원

많이 구매해주셔서 이에 보답하고자
"파격판매 이벤트 연장"



지리산자락의 햇개줍기와 잎, 열매를 넣고
천연지하암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
100ml*60팩 = 89,000원

★결제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주)홍국농산
- 판매처: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http://www.7-star.net
(네이버,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

불교학연구소 마당에 웬 카지노장 설립?

캄보디아 불교학의 보루인 프놈펜 불교학연구소(Phnom Penh's Buddhist Institute)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85% 이상이 불교도인 캄보디아이지만 자본의 굴삭기 앞에서 주저앉고 있는 셈이다.

〈프놈펜포스트〉 지는5월 27일(현지시간) "홍콩의 중견 카지노 회사인 나가(Naga Corp)가 진행하고 있는 프놈펜 내 카지노 시설 공사로 불교학연구소의 존립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이 곳에 적을 둔 불교학자들조차 흩어질 처지"라고 보도했다.

또한 〈프놈펜포스트〉 지는 "최근 캄보디아 종교부 장관이 불교학연구소와 후 센(Hun Sen) 공원 사이의 벽을 철거하도록 허가를 했다"는 데 주목, "이번에 철거가 결정된 벽은 불교학연구소의 외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교학연구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나가 측의 카지노 개발 계획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불교학연구소 외벽 철거 공사에 앞서 프놈펜 시 당국은 불교학연구소의 부지 중 3,000평방미터를 변전소 설립을 위한 부지로 전환하고, "불교학연구소 부지는 향후 축소할 예정이며, 우선 외벽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변전소 설치는 카지노 회사 나가 측의 개발 계획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결정됐다.

이에 대해 "프놈펜 시 당국의 계획은 충분히 들었다"는 사르 소크니(Sar Sokny) 불교학연구소 이사는 "불교학연구소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가 측의 개발 공사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해 외벽 철거에는 동의했지만, 캄보디아 불교학의 성소인 불교학연구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나가 측의 개발 공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 당국과 각을 세웠다.



프놈펜 불교학연구소의 외벽이 허물어진 모습. 프놈펜 시는 최근 "불교학연구소 부지 일부를 변전소 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구소 맞은편에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면서 늘어나게 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캄보디아의 보루 프놈펜 불교학연구소, 존립위기

홍콩 카지노 회사 나가(Naga), 프놈펜 시에 3천억 투자

그러나 불교학연구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프놈펜포스트〉 지는 익명을 요구한 불교학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시 당국이 연구소 부지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대부분 카지노 회사 나가 측에 매매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카지노 회사 나가 측은 지난 2월 프놈펜 지역 카지노 사업 개발에 3억6,900만 달러(약 3천7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 개연성을 더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나가 측의 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변의 자연경관 대부분을 잃어버린 불교학연구소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최대 30%까지 급감했다"고 전한 불교학구소 측은 "시 당국은 물론 카지노 회사 나가 역시 연구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길 바라고 있는 듯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곳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며, 관련 학자들과 학생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불교학연구소는 1921년 시소왓(Sosovat) 당시 국왕이 '크메르도서관(Khemra Bannalai)' 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1925년 '왕립도서관(Preah Rai Bannalai)'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30년 ' 불교학연구소 '로 다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연구소는 캄보디아 문학과 언어, 역사, 불교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쁘레아 시하누크 랏 불교대학(Preah Sihanouk Rak Buddhist University)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 똑똑한 뇌 만들어준다

노르웨이 세인트 올라브스(St Olavs) 병원 연구 결과 발표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꾸준한 명상시간을 가져주면 뇌 세포가 활성화돼 마음이 안정되고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트론헤임 세인트 올라브스(St Olavs) 병원 공동 연구진은 일정한 명상시간이 뇌 활성화에 기여해 기억력, 사고력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명상은 각종 잡념을 거두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몰입시켜 내면 자아를 확립시켜주는 정신집중 방법의 하나로 보통 종교수행 과정에서 많이 사용된다. 명상법은 크게 '집중적 명상', '비지시적 자발적 명상' 으로 나뉘는데 두 방법의 차이점은 '강제성' 이다. 집중적 명상은 호흡 하나하나부터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것이고 자발적 명상은 그 누구도 지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몰입해야 하는데 연구진이 주목한 방법은 두 번째인 '비지시적 자발적 명상' 이다.

연구진은 일정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비지시적 자발적 명상' 을 수행하도록 유도했고 그 동안 참가자들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스캔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했다. 이후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명상이 수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의 뇌 세포가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일부분에서 기억력과 사고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까지 했다. 특히 감각정보를 분석하고 사고력,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 대뇌 쪽 신경세포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최근 노르웨이의 병원 공동연구진은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이 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먼저 명상이 마음을 비우고 뇌를 쉬게 한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뇌를 바삐 움직이게 한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보다는 명상을 해주는 것이 뇌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오슬로 대학 스벤 다벤저(Svend Davanger) 교수는 "우리가 쉴 때 사고력, 기억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대뇌 영역이 활성화 된다"며 "그런데 그냥 쉬는 것보다는 일정한 명상이 더 도움이 되고 그 중에서 집중적 명상보다는 '비지시적 자발적 명상' 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 해당 실험이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상은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행위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뇌와 정신에 작용하는지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최근 발표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얀마 로힝야족 국제지원 청신호

아라칸 불교도, 'UN INGO 감시단' 결성

"로힝야족 '구호품', 바르게 전달하자"

미얀마에서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를 지원하고 있는 UN INGO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무슬림 소수민족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미얀마 아라칸 주의 17개 마을의 불교도들이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을 위해 'UN INGO 감시단' 을 결성했기 때문이다.

〈IRRAWADDY〉 지에 따르면, 아라칸 주의 불교도 20명이 'UN INGO 감시단' 을 결성하고, 국제 사회에서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에게 건넨 구호물품이 잘 전달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할 예정이다.

니오 아이에(Nyo Aye) 감시단 간사는 "우리는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의 '바람' 을 정확히 전달하고, UN 산하 NGO들이 그것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통로 구실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아라칸 주의 민족주의 그룹은 영양실조 등에 시달리고 있는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지원을 반대해 왔다.

따라서 이번 불교도들의 'UN INGO 감시단' 은 아라칸 주의 민족주의 그룹에 제동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엔 사무소 피에르 페론(Pierre Peron) 대변인은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의 지원하는 데 지역 사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 활동 역량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며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결성된 '감시단' 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라칸 주에 마련된 로힝야족의 캠프에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로힝야족 아이들.

한편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최근 "무슬림 로힝야 족을 받아들일 국가가 있다면, 어떤 나라든 모두 내보내 주겠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천명했다. 이에 대해 로힝야 족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미얀마 정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이 제안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미얀마에 살고 있는 로힝야 족의 수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법당 마룻바닥에 새겨진 '발자국'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그러면 오래된 목조 법당에서 20년 동안 오체투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매트로〉 지에 따르면, 그 결과는 '자국〈사진〉' 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후아 히(Hua Chi · 70) 스님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칭하이성(Qinghai) 장족 자치주인 퉁런(Tongren)에 있는 사원에서 매일 오체투지를 했는데, 그 자리에 3㎝ 깊이의 발자국과 함께 팔꿈치에 눌려 페인 2개의 홈을 남겼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에는 하루 3000번의 오체투지를 했는데, 지금은 1000번 정도에 불과하고 겨울이면 500번 정도 한다"는 후아 히 스님은 "오체투지는 자신을 비우는 수행"이라며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을 가득해진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 수 내 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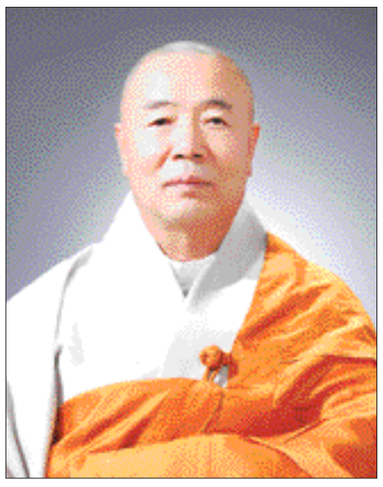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한 큰 발걸음,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원효보살의 평등과 무애의 화쟁 사상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추 종단으로 성장해 온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불기 2558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 4월 27일 종단임원 및 종도 사부대중 7백여 명이 동참하여 '제13대 종정 정광 대종사님의 추대법회와 원효보살 1328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종단화합을 우선과제로 삼아 그 동안의 혼란스러움을 정돈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총무원장 우석

원효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대덕 큰스님들께 감사의 큰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하고도 어려운 종단분규를 겪어 오면서도 항상 힘을 모아 주신 종도 여러분께도 두손 모아 인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조이신 원효보살님의 뜻을 받들어 화합하고 또 화합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단 화합의 큰 틀에서 원효종 종도라면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한다면 누구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기다리되 굴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집행부로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만나고 소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 종정예하 추대식



4월 27일 봉행된 추모대재 기념촬영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제13대 종정 정광 대종사님의 추대법회와 원효보살 1328주기 추모대재'

불기 2558(2014)년 4월 27일 경주 콩코드호텔 대연회장



우석 총무원장님의 추모대재 봉행사

1부 : 제13대 종정 설재 정광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원효종 제 13대 종정 정광 대종사 추대법회' 는 총무원장 우석스님의 추대장 전달과 종회의장 태일스님의 불자 전달, 규정원장 심상스님의 주장자 전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 13대 종정스님으로 추대된 정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큰 발전을 위한 장애는 항상 있으나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 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효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나아갑시다. 종단 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우석 총무원장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작은 아상들은 과감히 놓아 버리고 종단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자.' 고 당부했다.

2부 : 원효보살 1328주기 추모대재

종정 추대법회에 이어 진행된 '원효보살 추모대재' 는 종단의 종조로서 평등과 무애의 정신으로 민중 속에서 대승불교의 참 진리를 전파하시고 희망과 구원으로 자유의 길로 인도해주신 원효보살의 사상과 핵심을 되돌아보고 수행자의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는 큰 계기가 되었다.

봉행사 (우석 총무원장)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원근각지에서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과 종단임원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종조이신 원효보살의 참 뜻인 화쟁사상을 되돌아 보고 그 근원인 일심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일심은 모든 법, 즉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거이며 일심이 구현한 세계가 바로 정토라는 것입니다. 일심은 평등하고 무차별하며 진여와 생멸이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마음의 근본을 회복한다는 것은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우치며, 차별없이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곧 마음을 다스리는 중생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원효보살님의 뜻을 염원으로 담아 마음에 새기고 다함께 지극 정진 합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극락왕생과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 다함께 기도합시다.

추모사 (창해 원로원장)

원효보살께서는 화쟁의 교법에 의해 자리를 구하시고 대중교화를 통하여 이타를 행함으로써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일관하셨고 인간의 청정한 마음이 현실에 훈습되어 불각심이 일어난 무명업상을 미오한 현실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수행함에 의하여 완성된 인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중생들을 인도하는데 전생을 바치셨습니다. 원효보살의 법호가 '역사의 첫 새벽' 을 뜻하는 원효가 아닙니까? 그 진리의 서광을 혼탁한 이 무명의 시대에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그 법력으로 모두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라옵니다.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과 원효보살의 자비하신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추모사 (보원 총무부원장)

원효보살님의 기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추모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지만 종조님께서 생전에 주창하신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마음을 다지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침의 핵심인 화쟁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화쟁이란 나의 주장만 옳다고 하지 말고 나와 상반되는 주장까지도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으로는 첫째,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둘째, 시대의 변화를 비롯한 나와 맞지 않는 변화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모든 일이 끝이 아름답게 결말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진정한 화쟁사상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원효보살 행장 (자언 재산심의위원장)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별이자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인 원효보살은 617년 현재의 경북 경산군 자인면 지역에 해당하는 압량군 불지촌 북쪽 밤골 사라율이라는 밤나무 아래에서 탄생하셨다. 삼국간에 전쟁이 극에 달하던 때에 태어나시어 유년시절 한 때 화랑이 되어 기상을 떨치시고 열 다섯 살이 되던 해인 632년 불문에 귀의하셨다. 원효는 법명이다. 속성은 설(薛)이고 아명은 서당(誓幢) · 신당(新幢)으로, 이두를 집대성한 설총(薛聰)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출가 후 황룡사에서 수도를 하였다. 661년(문무왕 1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던 원효는 해골에 담긴 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는 신라로 다시 돌아와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정토교(淨土敎)의 선구자로 불리며 불교사상의 융합과 그 실천에 힘썼다. 〈금강삼매경론소(金剛三昧經論疏)〉,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화엄경소(華嚴經疏)〉 같은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기셨다. 686년 세수 70세를 일기로 입적하신 보살의 삶은 오늘날까지 우리들 가슴속에 깊게 남아있다.

발원문 (원해 복지부장)

인간 본연의 청정심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법계의 무량중생들의 참된 화쟁의 정신적 지표가 되어 미망에서 해탈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밝힐 수 있도록 크게 참회하고 발원하오니 저희들의 간곡한 발원에 굽어 감응하옵소서! 나무대성원효보살 마하살



부산교구원장 석불스님 감사패 수여

종단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한 주요임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패 증정 및 위촉장 수여

- 감사패 (3명)
  총무부원장 보원스님
  재산심의위원장 자언스님
  부산교구원장 석불스님
- 위촉장 (3명)
  협력업체 위촉 :
  (주)유일토건 대표 정진수
  (주)킴스에프엔씨 대표 김윤식
  고문변호사 위촉 :
  (주)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전영빈

▶ 재판 진행사항 ◀

(원효종 종도에 한해 문의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항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 2013년 카합 2239
  직무집행정지가처분(김대관외 18명)
  2014년 4월 4일 각하 결정
- 2013 카합 2532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김대관외 18명)
  2014년 4월 4일 각하 결정
- 2013 비합 219 임시총무원장
  선임신청 (이청일)
  2014년 1월 28일 신청 취하
- 2014 카합 10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김순석 외 2명)
  2014년 3월 25일 기각
- 2014 카합 399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청일)
  2014년 5월 28일 기각

고등법원
- 2014 라 46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김순석외 2명)
  2014년 4월 4일 즉시항고

대법원
- 2011 다 101155 종회무효소송
  (김순석외 2명)
  2014년 2월 24일 대한불교원효종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변경)
- 2013 마 2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병근 외 1명)
  2014년 5월 19일 총무원장 선출 참고
  서면 제출

대구지방법원
- 2014 카합 2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청일)
  2014년 3월 12일 신청취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탑동 344-2)
연락처 : ☎ 054)743-0700
팩스 054)741-9002
총무원장 직통 010-4008-5601

추모대재 감사말씀

금번 원효보살 열반 1328주기 추모대재를 본 종단의 대덕 큰스님, 그리고 각 사암의 불자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여 주신 덕분에 본 행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 종단을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종도 여러분과 불자님들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단합과 열정을 모아 대한불교원효종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함께하는 종단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오늘 다시한번 원효보살의 화쟁사상을 되돌아 보며, 우리 종단의 임원스님들을 대표하여 원효보살 추모대재를 잘 치루게 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임 원 명 단

종 정 **설재 정광**
원로원장 **창해** 원 로 위 원 **진덕. 수진. 수경. 도철**
종회의장 **태일**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총무원장 **우석** 총무부원장 **보원**
규정원장 **심상** 재산심의위원장 **자언** 법규위원장 **무상**
고시위원장 **자광** 종 학 원 장 **옥천** 포 교 원 장 **선운**

부산교구원장 **석불** 경북교구원장 **법진** 대구교구원장 **서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제주교구원장 **법원** 경기교구원장 **해인**
전남교구원장 **마명** 제주교구종회의장 **성호**

사회부장 **능관** 재무부장 **천수** 교육부장 **유상** 문화부장 **대호**
복지부장 **원해** 포교부장 **성우** 사무국장 **수천** 조사국장 **최석주**

제 적 공 고

금번 대한불교원효종에서는 아래 스님들을 제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스님들의 제적사유는 본 종단의 승려증 갱신등록기간이 (2014년 2월 1일 – 3월 15일, 추가등록 4월 1일 – 4월 15일)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않아 본 종단에서는 2014년 4월 16일 부로 제적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김순석(용일 스님). 이순서(원각 스님). 이동수(성원스님).
이청일(인담 스님). 손동주(도봉 스님) 이상 5명

앞으로 대한불교원효종에서는 무단으로 대한불교원효종을 사용하는 단체는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BBS 방송캐릭터 '보리' 선보여

창사 25주년 앞두고 방송포교 강화 다짐

BBS 불교방송(이하 BBS)이 2015년 창사 25주년을 앞두고 방송포교강화를 다짐하며 방송캐릭터를 제작 발표했다. BBS의 방송 캐릭터 '보리'는 천진동자를 단순화한 형태에 불교기의 색깔(청, 황, 적, 백, 주황)을 기본으로 하여 '합장한 보리', '카메라 감독 보리', '연꽃부처님 보리', 'I♥BBS 보리', '목탁을 안은 보리'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캐릭터 이름인 '보리'는 4월말부터 불교방송 전직원의 공모를 통해 후보를 정하고 5월 중순 일주일간의 이메일 투표를 통해 전체 25%의 지지를 받아 결정됐다. 캐릭터 이름을 공모하자 불교방송 본사 및 전국의 지방사에서 직원들이 80개가 넘는 이름을 응모하고 자신이 응모한 이름을 홍보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BBS의 방송 캐릭터 '보리'

보리는 BBS의 대표 캐릭터 이름으로 잘 어울리며 불자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릭터 디자인은 부다일러스트 회향의 운영자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심연용정운 작가가 맡아 6개월간 작업했다.

BBS는 앞으로 방송캐릭터 '보리'를 방송과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기존 불자들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에게까지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꽃신 DIMF 창작지원 뮤지컬로 선정

7월 4일~6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소재로 다룬 뮤지컬 '꽃신'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DIMF) 창작지원작(DIMF—Musical Seed)으로 선정돼 공연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주)뮤지컬 꽃신이 주최하고 나눔의 집이 함께하는 이 공연은 강효성 서범석 윤복희 김동현이 배우로 선정되었으며 7월 4일~6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공연된다.



'꽃신'프리뷰 공연 장면

5월 26일 씨네코드 선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DIMF는 "Musical Seed에 선정된 네 개의 프로그램에는 공연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고 그 중 우수 공연으로 선정된 공연에는 5천만원 이상을 지원 다음 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도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배우들과 스텝들이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뮤지컬 '꽃신'은 결혼을 앞둔 17살 순옥과 그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 뮤지컬 '꽃신'은 별도 공익법인을 만들어, '나눔의 집'과 함께 전국 공연을 시작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우리춤의 아버지 '한성준' 140돌 기념공연

일제강점기에 전국을 유랑하며 체득한 100여 종의 전통춤을 집대성했던 '우리춤의 아버지' 한성준(1874~1941)을 조명하는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이 열린다.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회장 성기숙)는 6월 12~15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그의 탄생 140돌을 기념하는 제1회 전통무용제전 '위대한 유산, 한성준의 춤'을 연다.

이 시대의 대표적 무용수들이 출연하는 개막공연에는 이애주의 '태평무', 김매자의 '살풀이춤', 조흥동의 '한량무', 국수호·이정윤의 '용호상박' 등의 무대가 마련된다. 또한 정승희 김숙자 채상묵 김정녀 박재희 이은주 김은이 백현순 윤미라 박은영 김정학 배상복 김선미 김평호 김용철 등 원로부터 중견 무용수들이 한성준의 춤세계를 되살린다.

한성준은 1930년대 후반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해 후진을 기르고 전통춤을 무대양식화한 '근대 전통무악의 거장'이기도하다. 오늘날 전통춤을 대표하는 승무·태평무·살풀이춤·학춤·한량무·훈령무 등을 창안한 전통예인이자 창작춤꾼이었다.

정혜숙 기자

찬란했던 차문화 역사 한자리에

경기박물관 '한국 차문화 대전'

초의 스님의 진영과 추사 김정희 초상화 등 우리 차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경기도박물관(관장 이원복)이 8월 24일까지 특별 전시 '한국 차문화 대전-차향에 스민 치유의 미학'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경기도박물관은 우리 차문화와 관련된 그림, 전적, 도자 등 다양한 유물을 전시한다.

경기박물관은 "경기도박물관의 소장유물뿐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전국 주요 박물관에서 출품한 차문화 관련 유물 200여점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한다.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쫓는 효능이 있어 글공부와 깊은 사색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합했기에 문인과 스님들이 주로 차를 마셨다. 조선 후기에 차를 두고 문인과 스님들이 펼쳤던 토론과 사색은 유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이와 관련한 초의 스님의 〈동다송〉, 황윤석의 〈이재난고〉, 박영보의 〈남다병서〉, '정약용이 쓴 편지' 등이 전시된다.

또한 차를 통해 교유한 다산 정약용(1762~1836)과 추사 김정희(1786~1856), 초의 스님(1786~1866)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조선 전기 이후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차문화를 회복시키려고 힘썼던 다인(茶人)으로 유명하다. 초의 스님이 그렸다고 전하는 '정약용 초상', 허련의 '추사 김정희 초상', '초의 선사 진영'이 기간을 나누어 차례로 교체 전시된다.

모임과 잔치, 종교와 산수화병풍 속에 드러난 차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차는 즐거운 모임이나 잔치 때 마시는 귀한 음료로, 흥겨운 잔치를 그린 그림에는 꼭 다양한 종류의 찻그릇이 그려져 있다. 또한 도교에서 차는 신과 만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불교에서는 수행을 위한 약으로 여겨졌다. 보물 제1367호로 지정된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송광사 응진당 십육나한도 중 제7·9존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92호인 '요지연도', 이인문의 '산정일장' 등이 소개된다.

이밖에도 우리 차문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백제시대의 유물에서부터 통일신라의 찻사발, 고려의 청자 찻그릇, 조선의 백자와 분청사기 찻그릇이 함께 소개된다. 대표 전시품으로는 백제의 돌절구, 계수호, 경주 안압지 출토 '차(茶)글씨가 쓰인 토기 사발', 청자 찻주전자, 청자 국화무늬 찻잔과 받침, 백자 찻주전자, 바위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그린 백자청화 찻잔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6월 20일에는 우리나라 차문화 전반에 관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된다. 방병선(고려대 교수),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이원복(경기도박물관 관장), 김성환(경기도박물관 학예팀장) 등이 발표에 나선다. (031)288-5384


초의선사 진영(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1865년 이후)


추사 김정희 초상


송광사 응진당 십육나한도 중 7,9존자

초의 진영, 추사·다산 초상화
송광사 응진당 십육나한도 등
茶 문화와 역사 한자리에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예술의 총체' 영산재… 6월 6일 봉원사서 시연

세월호 희생자 위한 특별제단과 축혼 의식 마련

불교계의 대표적 종합 공연예술인 영산재(靈山齋) 시연회가 현충일인 6월 6일 태고종 서울 신촌 봉원사서 봉행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서 여러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펼친 〈법화경〉 설파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지난 2009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불교 음악인 범음범패(梵音梵唄)에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 무용적인 요소,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그린 괘불, 감로탱화 등 미술적인 요소가 더해져 불교예술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영산재 총본산인 봉원사는 매년 단오절마다 영산재 시연회를 해오다 2007년부터는 호국영령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 날짜를 현충일로 바꿨다. 특히 제 26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왕생극락을 위한 특별 제단과 축혼 의식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영혼을 모셔오는 의식, 영혼이 불법을 듣기 전에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 등에 이어 괘불을 영산재 장소에 옮겨 모시는 괘불이운(掛佛移運) 의식 등이 펼쳐진다.

이후 영산재에 참석한 대중이 공양물을 나눠 먹으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는 의식, 부처를 공양하고 법문을 듣는 의식, 영혼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의식 등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2014 영산대재 추진위원회 대회장인 영산재보존회 회장 마일운 스님(봉원사 주지)은 "영산재 의식은 나라안의 크고 작은 근심스런 일이나 경사스런 일이 있을때마다 원만성취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법하고 장엄하게 봉행돼 왔다"며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순국선열 및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재보존회는 그동안 영산재의 예술성과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0여년동안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영산재를 시연했다.


영산재(靈山齋) 시연회가 현충일인 6월 6일 태고종 서울 신촌 봉원사서 봉행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6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문화

형식적 종교화 탈피 소통의 불교미술 '발원'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

"핑크붓다가 결성된 지 햇수로 3년이 됐네요. 우리 멤버들은 나이도 전공도 모두 다르지만 불자 아티스트들이 모여 한국불교를 새롭게 해석한 그룹전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이름도 전혀 어울릴 거 같지 않은 핑크와 붓다의 결합으로 지었죠. 가시적 성과보다는 멤버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또 끊임없이 그룹의 존재 이유를 정의해 내려가면서 불교 미술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 의 조수연 대표는 지난 3년간의 핑크붓다 활동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명아, 이정은, 전경희, 조수연, 정윤영, 허효진 등 6명으로 구성된 핑크붓다는 회화, 패션, 불교학, 디자인경영, 사운드아트 등 각각 전공이 다른 멤버들이 모여 대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동시에 불교를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결성됐다.

2013년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 전을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서울대 환우와 가족들과 함께한 2013년 '핑크붓다—꿈을 붓다' 전 · 2014년 '핑크붓다—꿈을 쌓다' 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다. 첫 번째 전시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 는 허물을 벗고 과감히 자기 변신을 시도하는 뱀처럼 불교미술 역시 종교화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을 담고자 하는 핑크붓다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한 2014년 '핑크붓다—꿈을 쌓다' 전은 탑 쌓기를 주제로 환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했다. 전시를 기획한 정윤영 작가는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잊고 지냈던 '꿈' 이라는 키워드를 되짚고자 했다고 전한다.



핑크붓다는 나이도 전공도 다른 불자 아티스트들의 모임으로 불교미술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수연, 전경희, 허효진, 정윤영 작가. 사진=박재완 기자

환우들과 함께하는 탑쌓기 등 꿈과 희망 전하는 전시 기획 프랑스 등 해외전시 계획도

"불교에서 탑은 부처님에 대한 칭송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번 전시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소원지를 받아 아크릴 판에 붙여 탑을 쌓았어요. 이 전시의 목적은 탑의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염원을 함께 담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탑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언제 탑이 완성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꾸준히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형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탑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핑크붓다는 기획에서 전시까지 모든 프로젝트의 과정을 멤버들이 함께 의논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허효진 작가는 말한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해요. 또한 팸플릿의 텍스트 구성과 디자인, 로고 제작, 전시장 작업 등 멤버들 각자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방식은 협업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작가들 개개인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붓다의 활동은 그룹의 성장과 함께 개인도 성장하는 진행형의 작업이라고 전경희 작가는 강조한다. "작가들은 대부분 혼자서 작업을 하다보니 혼자만의 생각에 멈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멤버들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작가 개인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같이 모여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 핑크붓다는 하반기 '맥' 을 주제로 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멤버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전시라고 조수연 대표는 말한다. "한국에서 '맥' 은 인맥 수맥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물도 우주도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맥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인간의 삶도 이 범주에 포함되죠. 이런 의미를 작가 개개인의 작품 속에 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작업들이 일본, 이태리, 프랑스 등 해외 전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미술의 기존형식의 탈피를 기원한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 의 전시 전경



'핑크 붓다—꿈을 붓다' 전에서 완성된 '등'

모래 같은 세상을 누가 헤아리겠는가?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㉓ 논산 관촉사 (下)



관촉사를 대표하는 '은진미륵' 즉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말의 목은 이색이 시로 읊은 이후 조선의 선비들에게도 시의 테마가 되곤 했다.

같은 불상 다른 느낌, 무상 속의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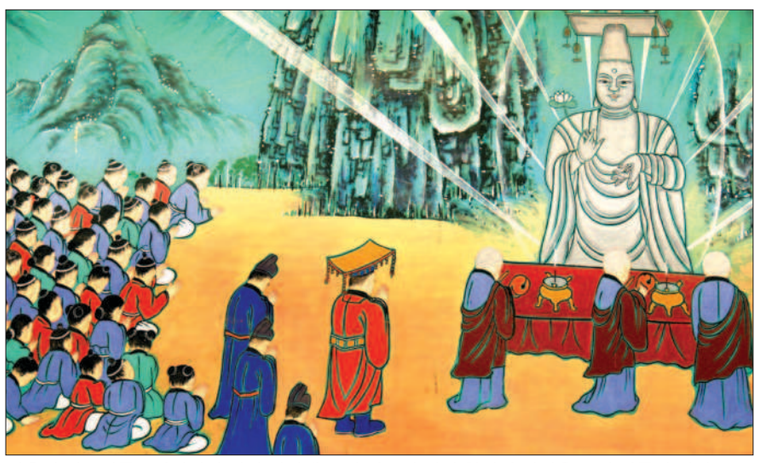
조선 중기의 선비 성현(成俔 1439~1504)의 문집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 제2권에 수록된 '관촉사' 라는 제목의 시를 보자.

노방유고찰(路傍有古刹)
초초과웅강(超超跨雄岡)
정중장륙신(庭中丈六身)
외아용원창(嵬峨聳圓蒼)
석유호사자(昔有好事者)
구차백척장(此百尺長)
항하억만계(恒河億萬界)
변화수능량(變化誰能量)
관이시혜로(灌以施慧露)
촉이명호광(燭以明毫光)
사제사황홀(沙梯ø彷惚)
후인안족상(後人安足詳)
당시루전성(當時樓全盛)
금벽다휘황(金碧多輝煌)
지금취매몰(至今就埋沒)
유유담경당(惟有談經堂)
(후 4행 생략)

길가에 오래 된 절이 있어
웅장한 언덕을 넘어가니
뜰 가운데 장육신이
높이 하늘로 솟아 있네.
옛날에 호사가들이
이를 백 척이나 된다고 과장했었구나.
모래와 같은 많은 세계의
변화를 누가 헤아릴 수 있으리
물을 대어 혜로(慧露)를 베풀고
촛불로 부처님의 눈썹 사이를 밝히네.
사제촌의 일은 황홀했다는데
후인 어찌 자세히 알리오.
당시의 누각은 전성기로
금벽에 휘황찬란했었지만
지금 매몰되어
오직 경을 배우는 당만이 있네.

성현의 시도 긴 편이다. 그러나 경쾌하게 읽힌다. 관촉사의 풍경을 묘사하며 미륵보살입상의 조성 설화와 영험을 즐겁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촌의 일은 황홀했다는데' 라는 구절은 혜명 스님이 석불을 세우는 묘안을 알게 된 기이한 설화를 끌어 들인 것이다. 그 아름다운 설화는 이야기와 기록으로 전해지지만, 설화 속의 깊은 신앙적 감동을 누가 다 알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이미 시대가 달라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지금 매몰되어 오직 경을 배우는 당만이 있네' 라고 묘사하고 있으니 성현이 살고 있는 시대의 관촉사는 고려 때의 '전성기' 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시대의 시인과 후대의 시인이 하나의 불상을 보고 시를 쓰지만 그 느낌이나 해석의 방향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상인 것이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낙성 법회에 고려 광종이 직접 참석한 장면을 그린 미륵전 벽화.

선비의 눈에 비친 불교의 모습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은 벼슬을 버리고 전국의 명승을 유람하며 많은 글을 남겼다. 하늘의 뜻인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뼈에 사무친 선비의 방랑. 그의 발길이 관촉사를 지나쳤을 리 없다. 그의 문집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 제1권에 '관촉미륵'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광종굴만승(光宗屈萬乘)
하배상문자(下拜桑門子)
상교동동화(象敎動東華)
이불조어차(爾佛肇於此)
기담해궁위(奇談駭宮ᄋᆡ)
궤론경여리(詭論驚閭里)
유원필기도(有願必祈禱)
장소루만지(狀疏累萬紙)
(4행 중략)
노승강영아(老僧强迎我)
좌아화도리(坐我ø圖裏)
오애이청정(吾愛爾淸靜)
언방부족희(言 ᄇᆞ不足喜)
억석유도시(憶昔有道時)
성왕경소지(聖王敬所止)
강장만목거(綱張萬目擧)
독공천하리(篤恭天下理)
왈자왕기이(曰自王紀弛)
민쟁사괴이(民爭事怪異)
가련오복권(可憐五福權)
이여석대사(移汝石大士)

광종이 천자 권위를 굽히고서
불문의 제자에게 내려서 절했지.
불교가 우리 동방 진동시킬 때
미륵불 여기 처음 세워졌네.
기이한 얘기 궁중을 놀라게 하고
괴이한 의논 민간을 경동시켜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니
소지 올린 종이 수만 장이 되네.
늙은 승려 억지로 나를 맞이하여
불화 그려진 속에다 나를 앉히네.
내 그대의 청정함은 사랑하지만
말이 클 뿐 기뻐할 것은 못 되네.
생각건대 옛날 도가 있던 시대
성왕은 모든 일에 경건했으니
벼리를 펼치면 그물이 들리듯이
독공하여 천하가 잘 다스려졌지.
왕도의 기강이 해이해진 때부터
백성은 다투어 괴이함 일삼으니
가련하다 오복을 내리는 권한이
그대 돌부처에게 옮겨간 것이여.

남효온의 시도 길다. 그런데 도입부터 비판적이다. 유학에 뿌리를 내린 선비의 마음에 불교의 교리가 통할 리 없지만, '관촉미륵' 의 조성 배경을 소박한 민간 신앙으로 이해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기이한 이야기' '괴이한 의논' 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목은 이색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를 열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 눈앞의 풍경과 스님을 사뭇 부정하지는 않지만, 유학의 도가 실현되는 세상은 오지 않고 불교의 습속이 전해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하연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대만 불광사 공승법회 5일 8월 16일 출발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6월 28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8월 11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8월 20일. 9월 16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7월 10일 출발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3일, 7월 17일, 8월 27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동방의 정원 양곤/바간/달라 5일 7월 16일, 8월 6일, 8월 19일 출발
불탑과 호수 양곤/바간/헤호 6일 7월 9일, 7월 21일, 7월 30일 출발
황 금 불 탑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7월 19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14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1 ~ 5/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불광출판사
5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조계종출판사
6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7	쫄라박가 (율장소품)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8	자기에게 돌아오라존식 스님 불이 법문)	심성일	침국의향기
9	그대에게 가는 길-아함의 말씀	무원	맑은소리맑은나라
10	한영불교대사전	A.Charles Muller, 전옥배	운주사



명상은 비움으로 얻어지는 행복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

글 · 그림=정여 스님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5천원



"명상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 명상은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명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합니다. / 삶은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 내고 자신이 일으킨 생각에 지쳐서 / 살아갑니다." 책은 '명상'을 알기 쉬운 일상 언어로 소개한다.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힘들다.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보다는 물질적이고 산술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내면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진정한 '삶'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인지 모른 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힘들고 바쁜 삶의 누적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병들어 가고 있다. 문제는 마음이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될 일이지만, 마음에 병이 생기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책은 고장 난 마음을 고치기 위한,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소개한다. 명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방법은 따로 있는지, 적당한 장소는 어디인지, 눈을 감아야 하는지 떠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앉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그려야 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명상이 맞는지.

저자인 정여 스님은 "명상은 복잡한 현대사회의 반려자와 같은 것이다"고 말한다. 폭풍 같은 불안감도 잠재우고, 부질없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며, 앉은 자리 선 자리가 모두 여여한 '바로 그 자리'이게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명상은 채워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비워서 얻어지는 행복이다."며 명상의 정의를 내린다. 이를 전제로 '비워냄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책장을 넘기면 '명상의 필요성', '명상의 기초', '명상의 종류', '명상의 일상', '명상의 힘' 등 5개의 주제 속에 여든 다섯 가지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이어진다.

책은 명상 수행이 흔들림 없는 정진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고 말한다. 목표를 세우자면 그 필요성을 먼저 수지해야 하는데, 책은 명상 수행의 역할을 통해 '왜 명상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명상이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행복이



명상은 고장난 마음 고치는 일
명상수행 방법 자세하게 설명

내재된 마음 안으로 되돌리는 여정이며, 힘든 삶에 무너지지 않게 하며, 괴로움의 근원을 직관할 수 있으며, 적개심이나 갈등 혹은 두려움이 해소되고 진여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기능이 '명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어 책은 명상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일러준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형태인 좌선수행의 결가부좌, 반가부좌를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장점, 요령까지 곁들였으며, 호흡 명상에 대해서는 방법은 물론 호흡명상의 중요성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좌선시 손의 모양, 눈은 떠야하는지 감아야 하는지, 입 모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초심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수행이 있고 도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저 걷기만 했을 뿐인데 그곳에 불이(不二)의 이치가 있고, 누워있어도 경직된 삶에 여유를 주는 이완의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음악을 듣는 것도, 차를 한 잔 마시는 일도, 심지어 눈을 떠서 하루를 마칠 때까지 모든 행위와 모든 곳에 깨달음이 있고, 그것들이 곧 다름 아닌 '명상' 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을 '여행'이라고 했다. 어떤 것에도 걸림 없는 여행일 것이라 확신하며 소망했다. 저자는 장(章)마다 한 편의 시와 같은 문장을 통해 소곤거리듯 나긋한 어조로 명상 초심자들과 함께 '명상'이라는 여정에 함께 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옛 선비 일과 통해 본 현대인의 삶

외로워야한다

김성동 지음 | 내앞에서다 펴냄 | 1만4천원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숨 가쁜 시절에 저자는 농본주의 시절의 〈일용지결(日用指訣)〉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이고 책은 그의 자전적 에세이인 동시에 겨레의 의식과 영혼이 들어있는 짧은 회고록이다.

1880년 조선시대에 선비 윤최식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을 적은 〈일용지결〉이라는 책을 썼다. 이것은 하루를 12시각으로 나누어 때마다 지켜야 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정리하여 적은 선비의 길라잡이 책이다. 저자는 이것에 빗대어 옛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하루를 12시각으로 나누어 현대인의 일상을 성찰한다. 이 책 속에서 작가는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자신의 할아버지 목소리를 통해 성현의 말씀과 조상의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일과의 매 시각과 어울리는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의 얼개도 풀이한다.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둔 고백적 소설, 근현대사와 구도를 주제로 하는 소설을 집필했던 작가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성장 배경을 지니고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그의 할아버지는 작가가 다섯 살이 되자 한문과 붓 잡는 법을 가르치며 당신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작가에게 쏟아 내었다. 이것으로 백오십 년 안팎의 시간 동안 갈고 닦인 지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작가에게 전달됐다. 책은 그러한 그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또한 작가의 8대조 김서행 선비의 평생 독서 기록인 〈죽서독서록〉을 소개하고,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던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이 책에 고스란히 옮겨 놓음으로써 독자가 성현의 말씀과 조상의 풍습,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책은 불필요하게 쓰이는 외래어와 왜식 한자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토박이말과 우리식 한자어를 살려 독서의 새로운 재미를 더했다.

〈일용지결〉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바른 길을 위해 선비들은 하루를, 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끊임없이 관리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 하루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를 초월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인간이 되고자 했던 선비의 노력을 볼 수 있으며, 그런 선비의 모습에서 독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궁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꽃살문에서 찾아낸 동화

꽃살문

글 · 그림=김지연 | 느림보 펴냄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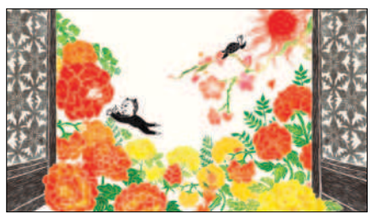


그림책이다. 사찰과 고궁에서 볼 수 있는 '꽃살문'의 문살 문양에서 신화적 이야기를 떠올려 그려낸 이야기다. 신화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대소동을 그렸다.

아이가 십장생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한다. 찰랑찰랑 물, 푸릇푸릇 소나무, 방글방글 불로초, 울퉁불퉁 바위, 폴짝폴짝 사슴, 긴부리 학, 몽실몽실 구름, 쑤욱쑤욱 대나무, 반짝반짝 해님, 엉금엉금 거북이까지. 모두들 재빠르게 숨었지만 거북이는 미처 숨지 못한다. 아이는 거북이와 함께 다른 친구들을 찾으러 간다. 조그만 집에 들어가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집 지키는 문신들이 막아선다. 아이는 친구들을 얼른 찾아 나오겠다고 설득한다. 그러자 문신은 "회색문은 절대 안 된다"며 경고한다. 과연 아이는 무사히 친구들을 찾아 나올 수 있을까?

〈꽃살문〉은 가상의 세계다. 아이가 열게 되는 네 개의 문은 사계절을 의미한다. 아이는 사계절을 넘나들며 곳곳에 숨어 있는 친구들을 찾아낸다.

붉은 문을 열자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따뜻한 봄이 펼쳐진다. 푸른 문으로 들어가면 계곡물에서 놀기 좋은 여름, 갈색 문으로 들어가면 책 읽기 좋은 가을이다. 문신이 열지 말라고 경고한 회색 문은 겨울이다. 아이는 회색 문을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긴부리 학과 소나무가 보이지 않자 조바심이 나 회색 문을 살짝 열어본다. 그런데 회색 문을 여는 순간, 아이와 친구



들은 추운 겨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곳에서 겨울을 지키는 동장군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문신이 경고한 것과는 달리 세차게 불어오는 호랑이 바람은 해로운 존재가 아니다. 작가는 호랑이 바람을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 하는 천진한 캐릭터로 표현해 새로운 재미를 선보인다. 또한 동장군과 함께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추운 겨울에도 추운 줄 모르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 **박재완 기자**

우리 모두는 누워서 피는 꽃이다

누워서 피는 꽃

도정 지음 | 도반 펴냄 | 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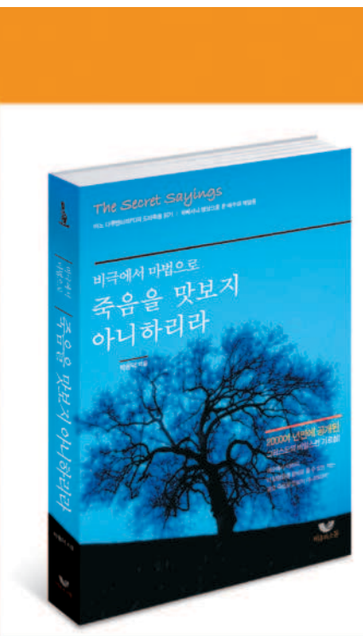
도정 스님의 두 번째 시집이다. 도정 스님의 시는 매우 감성적이고 애절한 느낌이 들지만 서정시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깨달음을 노래한 선시도 아닌 듯하다. 하루하루 늘 만나고 있는 대상 속에서 천진한 마음이 울고 웃고 노는 그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꽃으로 피는 그런 시이다. '수행시' 정도가 좋을 듯하다.

"누워서 피는 꽃이 있었다지요 / 전지쳐 버려진 배나무 가지에 / 밤 새 봄비가 촉촉이 내려 / 이화(梨花)가 피었다지요 // 그 꽃 / 품고 누워 / 울다 울다 / 하 세월 기다리던 / 그대인 줄 또 몰랐습니다"

봄날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을 보다가 시인은 문득 가지치기로 잘려나간 가지에 핀 배꽃에 시선이 간다. 시인은 삶인지 죽음인지 알 수 없는 꽃을 통해 우리 모두가 누워서 피는 꽃이라는 생각을 한다. 시인은 그 '누워서 피는 꽃'을 통해 우리 모두 찰나에 생멸하는 존재양상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책에 실린 시들은 그 깨달음의 기록이다.

우리 모두는 누워서 피는 꽃이다. 누구든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밤새 촉촉이 내려 준 봄비의 인연으로 그렇게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박재완 기자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신성神性이자 불성佛性이다

"나는 만유 위에 있는 빛이라. 내가 곧 만유라.
만유가 나로부터 나왔고 또 만유가 나에게 이르노라.
통나무를 쪼개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찾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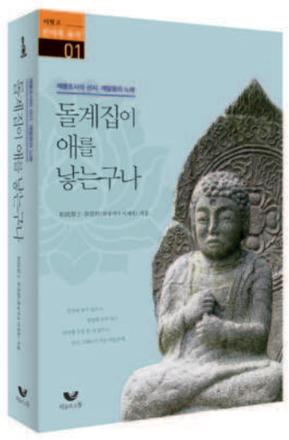
비극에서 마법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박동덕 지음|신국판|487쪽|19,500원

예수의 깨달음과 비전을 담은 비밀 성경 '도마복음'
그의 명상禪적인 가르침을 2,000여 년만에 해석하다

KBS, EBS 등에서 유명 교양/다큐프로그램을 연출한 저자 박동덕 씨(방송프로덕션 '비에마로' 대표)는 2001년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를 배우면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왔다. 2010년 여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종일 쓰러져 있다가 의식을 회복한 임사(臨死)체험 후 '왜 돌아왔을까?'를 고민하다가 '도마복음'을 통해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無量光無量壽)이 바로 신성인 동시에 불성임을 확신하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도마복음을 본격적으로 해설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 말씀들을 올바로 풀 수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설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 · 전법게 · 열반송 · 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묵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게, 제2부 고승 · 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묵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 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종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종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 · 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보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진면목



붓다순례
글 자현
사진 하지권
불광 펴냄
1만8천원

불교관련 서적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것이다. 불교개론서들에도 붓다의 생애가 들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처님의 전기는 더 많다.

하지만 이전까지 나온 '붓다' 관련 책들은 대개 2,600년 전 불교를 만든 교조인 붓다를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불교도들의 신심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다소 불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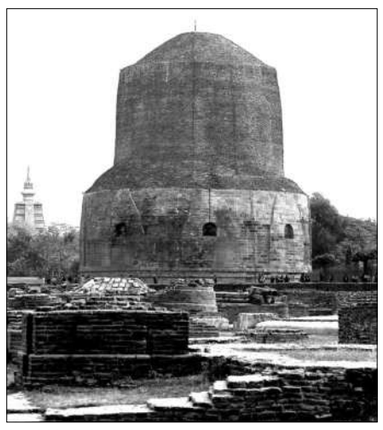
이 책은 부처님 생애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붓다와 그 주변 인물을 인문학적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건축, 선불교, 율장 등으로 박사학위를 세 개나 갖고 있는 저자 자현스님이 철학, 역사, 문화 등의 영역을 종횡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명쾌하고 현대적으로 그려냈다.

예를 들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붓다의 아들은 '라후라' 인데, 이 라후라라는 이름의 뜻이 일반적으로 '장애(障碍)' 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붓다의 극적인 출가 양상을 묘사하기 위해, 붓다의 고매한 인격을 고려하지 않은 왜곡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고대 인도에서는 일식(日蝕)과 월식(月蝕)이 일어나는 것이 거대한 아수라왕이 해와 달을 삼키기 때문이라는 전승이 있다. 그런데 그 아수라왕의 이름이 바로 라후, 혹은 라후라이다. 이로 인해 후일 라후라라는 명칭에는 해와 달을 가로막는다는 의미의 장애물이라는 뜻이 첨가된다. 전승에 의하면, 라후라가 태어나는 날에 일식 혹은 월식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변은 고대에는 매우 특별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를 기념해서 라후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설명한다.

사리불도 아난 및 마하가섭과 함께 붓다의 제자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반야심경〉을 통한 '사리자' 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자는 사리불이라는 말이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 이라는 뜻의 별명 같은 것이며, 진짜 이름은 우파틋사(Upatiya), 음사하면 우바저사 혹은 우바제사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리불의 인도식 발음은 사리푸트라(Sriputra)로 사리불은 이를 음사한 것이다. 즉 푸트라(Putra)를 '아닐 불(弗)' 로 음사한 것인데, 이는 붓다(Buddha)를 '부처 불(佛)' 로 음사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양자는 음역 글자를 달리하여 차이를 부여하고 있다. 푸트라는 번역하면 '~의 아들'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현장법사는 신역에서 이를 '아들 자(子)' 로 번역했다. 즉 신역의 사리자는 음역과 의역의 결합 양태인 것이다. 그런데 푸트라, 즉 불(弗)이 '~의 아들' 이라는 뜻이라면, 사리자란 '사리의 아들' 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는 이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별명과 같은 칭호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안성댁 아들' 이나 '천안댁 자식' 과 같은 칭호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녹야원터의 다메크스투파

부처님 생애, 현대적으로 해석
아들 라후라 '장애' 의미 아니다
바사닉왕 위해 다이어트 경전 설해

사위성서 기타 태자와 최고의 재벌인 급고독 장자가 붓다에게 귀의한 후, 교만했던 바사닉왕조차도 붓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다. 이후 바사닉왕은 개인적인 고민까지 붓다에게 털어놓았고, 그중에는 고도비만에 대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 붓다는 세계 최초의 다이어트에 경전을 설하기도 했다고 저자는 전한다.

저자는 또한 "당시 바사닉왕은 고도 비만으로 인하여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하고,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이로 인한 창피스러움과 고통을 호소하자, 붓다는 살을 빼는 방법에 관한 세계 최초의 다이어트 경전을 설하게 된다. 이 경전은 현재 〈잡아함경〉 권42의 〈1150 천식경(喘息經)〉으로 수록돼 있다. 왕은 이 가르침을 새겨듣고, 식사 시간마다 시종에게 외우게 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해 체중 조절에 성공한다. 이 경전은 붓다가 비단 깨달음의 명인을 넘어서, 세속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매우 현명한 분이었다는 것을 유감없이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부처님 이야기도 이 책에서 흥밋거리중 하나다. △기원정사는 현재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인 버즈 알 아랍에 비견할 만한 사위성 최고의 랜드마크였다. △ '자등명 법등명' 은 붓다 최후의 유언이 아니며, 원래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 닮고 부처님처럼 살려면 언제 어느곳에서나 자비행 펼쳐야"

내 손안에 부처의 손이 있네

틱낫한 지음 | 김순미 옮김 | 예담 펴냄
1만 4800원



〈법화경〉의 산스크리트 원본 제목은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로 '연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 이란 의미다. 기원후 2세기경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2세기 말엽에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법화경〉은 당시 불교의 모든 종파와 사조를 통합하고 수용했기에 '경전의 왕' 으로도 불리게 됐다. 특정 계층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고, 모든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법화경〉이 주는 연꽃과 같은 올바른 가르침이다. 국경을 초월한 영적 지도자 틱낫한 스님은 각계각층의 이기심으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이 시대에 〈법화경〉을 통해 화해와 조화, 평화와 평등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틱낫한 스님은 〈법화경〉이 전문 수행자를 위한 경전이 아니라 누구나 실제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실용서임을 강조하며, 법화경 28품을 1부 역사적 차원, 2부 궁극적 차원, 3부 실천적 차원, 4부 비폭력적 행동, 열린 마음으로 나누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설했다.

〈법화경〉의 전반부는 역사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 석가모니 생애를 다루고 있어 역사적 실존 인물인 부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인물 탄생과 성장 과정, 영적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출가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는 과정, 팔십 평생 동안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법을 설파하다 열반에 든 모습 등을 통해 우리는 부처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 틱낫한 스님은 1부 역사적 차원에 대해 '부처를 기억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변화와 엄청난 공덕을 가져다주며, 마찬가지로 법을 기억하는 행위 역시 변화와 공덕을 가져다준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법화경〉은 부처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화경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 가르치는 것은 곧 부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법화경〉의 후반부는 시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초월한 궁극적 차원(생과사, 오고 감, 너와 나와 같은 모든 이원론을 넘어선 진정한 실재, 열반, 법계가 바로 궁극적 차원)에서 부처의 존재를 설명한다. 또한 부처가 전하는 영원한 진리와 시공간을 초월한 법의 본질도 보여준다. 법화경이 이렇게 역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 차원에서 부처를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누구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성불할 수 있다는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은 〈법화경〉의 핵심 메시지이며, 대승불교의 위대한 통찰이다.

그렇다면 〈법화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부는 바로 실천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실천적 차원은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법화경〉의 실천적 차원에 등장하는 위대한 보살들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수행을 통해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팔과 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틱낫한 스님은 우리 중에도 손이 여럿인 보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준다. 가족을 돌보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자신이 자라온 물질주의 문화를 떠나 소외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 하고 기아로 고통 받는 오지의 아이들과 함께하

연꽃같은 가르침, 법화경 강설
실제수행에 적용가능한 실용서

는 사람, 이들이 바로 다양한 모습의 화신으로 현현해 어느 곳에서나 자비를 베푸는 이 시대의 보살들이다. 틱낫한 스님은 부처의 팔과 손이 되고 싶다면 내 안과 내 주변 어디에나 있는 지옥의 고통을 알아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법화경〉이 '경전의 왕' 이라 불리는 또다른 이유는 불교의 모든 종파를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부에서는 비폭력적 행동, 열린 마음에서는 법화경이 가르쳐주는 포용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틱낫한 스님은 갈등에 봉착한 사회나 국가가 진정 평화롭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면, 먼저 포용력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음이 좁으면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마음이 넓게 열려 있으면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는다. 소금 한 줌을 한 대접의 물에 넣고 휘저으면 물이 너무 짜서 마시기가 힘들어지지만, 똑같이 소금 한 줌을 강물 속에 넣으면 강물은 전혀 짜지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을 마실 수 있다. 한마디로 내가 한 대접의 물밖에 안 되면 고통을 겪지만 강물이 되면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앙코르 와트는 인간의 피와 땀이 서린 결과물

앙코르와트

이형종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이 책은 앙코르 제국의 가장 위대했던 자야바르만 7세의 족적을 따라가며 그 해답을 찾아본 전기소설이자 역사소설이다. '앙코르' 는 도시이고 '와트' 는 사원을 뜻한다. 따라서 '앙코르 와트' 란 '도시의 사원' 인 것이다.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했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보게 한다.

이 글에 나오는 서력의 연대와 미터법은 역사를 다루고 유적의 규모를 소개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다. 앙코르 시대에 서력과 미터법이 있을리 만무하다. 하지만 서력 연대는 역사적 시기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고, 미터법에 의한 표기는 독자에게 실물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건축물들이 설계당시 앙코르의 도량척도에 의해 의미있는 숫자 단위로 설계되었을 때 그러한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단점은 있다. 많은 유적지나 지방의 오늘날 이름은 앙코르 제국 당시의 불리던 명칭과 다르다. 예컨대 오늘날 부르는 따 프롬은 옛날에는 라자바하라였고, 지금의 쁘레아 칸은 나가라 자야스리였다. 앙코르 와트가 오늘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도 16세기에 이르러서이다. 편의상 오늘날 이름을 주로하고 옛날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하였다. 또한 이 글의 에피소드에 등장한 인물들은 가공인물들이다. 하지만 앙코르 역사 속의 유사한 인물을 끌어들여 사용하였다. 김주일 기자

몸 속 독소 제거하는 70여개 사찰 밥상 레시피

좋은날 제철음식

송수미 지음 | 넥서스 펴냄 | 1만 4500원



우리 몸은 백색 탄수화물,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등 오염된 먹거리에 노출되어 있다. 오염된 먹거리는 체내에 그대로 쌓여 몸의 균형을 파괴하여, 과거보다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바른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과연 바른 먹거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제철 재료로 만든 채식 밥상에 있다. 채식 요리는 제철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려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다. 이 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책임져 줄 제철 재료로 만든 70여 개의 채식 레시피를 수록했다.

이 책의 저자는 해독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사찰 약선 음식은 신체에 자극적인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 고기, 어패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맵고, 쓰고, 달고, 시고, 짜고 싱거운 육미(六味)를 내는 사찰요리로 해독 요법의 핵심을 담고 있다. 제대로 된 해독 요법을 하려면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 고르는 방법, 재료 보관법, 손질하는 법과 함께 재료의 효능, 계절별 4주 해독 식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채식이 맛없다는 편견을 가졌다면 이 책에서 소개한 특제 소스를 사용해 보자. 잣 소스, 깨 소스, 배 더덕 소스, 유자 간장 소스, 양파 소스, 매실 간장 소스 등 특별한 소스 덕분에 채식이 맛있어진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최소한의 양념으로 맛과 건강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다.

일류 레스토랑 못지않은 상차림을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링 팁도 담았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팁만 익히면 상차림이 살아나고 음식도 더욱 맛있어 보인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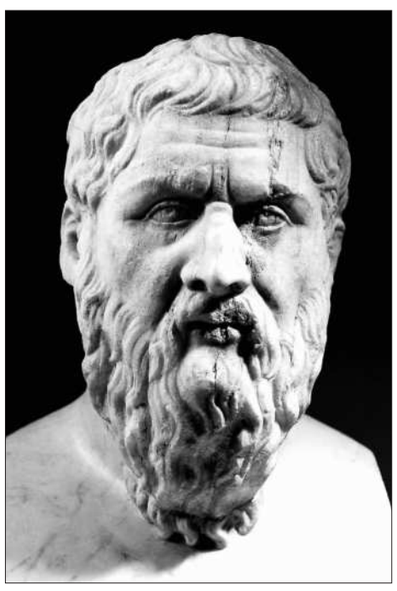
정치, '哲人'의 지혜 필요… 붓다 교설과 흡사

불교로 읽는 古典

플라톤의 〈국가〉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플라톤의 흉상〈사진 왼쪽〉과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사진 오른쪽〉 그림 가운데에서 이데아를 설명하듯 하늘을 가르키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다.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수년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정치철학 저서가 우리 서점을 강타했다. 20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세계적인 정치철학 붐 때문일 것이다. 정의(justice)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다룬 중심 주제다.

1950대부터 스트라우스(Leo Strauss)는 철학이 선험적으로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온 현대정치학을 비판하고 고전 정치철학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롤즈(John Rawls)는 1971년 현대적 방법론으로 〈국가〉의 주제였던 정의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지식의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참지식과 지혜를 알려주는 철학이 중요해졌다.

〈국가〉는 그리스 원어로 폴리테이아이고 영어로는 공화국(the Republic)인데 플라톤의 30여 대화편 중 중년에 쓴 작품이다. 소크라테스와 다른 인물들과의 대화 형식이지만 초기 대화편들과 달리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작품으로 보고 있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는 2천년의 서양철학을 플라톤 철학의 각주(footnote)라고 말했다. 그 정도로 플라톤이 서양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막중하다. 그런 플라톤의 대표적 저작이 〈국가〉이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학과 철학의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플라톤의 비판자들조차 그가 만들어 놓은 서양철학의 거대한 프레임(frame,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프레임 없는 프레임을 만들어 중생의 귀의처가 된 붓다의 가르침과 비교해보자.

국가와 개인의 정의(正義)

〈국가〉는 이상적 국가와 현실의 정체를 다루면서 정의를 개인의 영혼에서는 물론 국가와 같은 조직에서도 최고의 덕이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통속적인 정의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국가의 정의를 논한다. 국가는 개인을 확대한 것과 같아 큰 것에서 논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는 개개인이 자족적일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며 협동을 통해 완성된다. 모든 국가에는 장인(匠人), 농부, 무역업자 등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자 계급, 국가를 방어하는 수호자 계급(guardian),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치자 계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각각의 계급은 그에 합당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거기에 맞는 특별한 덕(virtue)이 요구된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상층 계급인 통치자 계급은 전체로서의 국가를 어떻게 규율할지를 아는 지혜(wisdom)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 계급인 수호자 계급은 국가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courage)의 덕이 있어야 한다. 하층 계급인 생산자 계급은 자신들의 욕망(desire)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제(temperance)의 덕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국가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란 사회 안에서 자신의 계급에 따라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즉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머리의 이성, 가슴의 기개, 그리고 배의 욕망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것처럼 정의로운 이상국가는 통치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계급, 즉 철학자 계급이 통치하여 계급들 간의 적절한 분업과 덕의 분업, 즉 지혜, 용기, 절제 간의 분업과 조화가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플라톤은 철학자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보았다. 통치자 계급과 수호자 계급에게 어릴 때부터 독서, 작문, 암송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교과목은 음악(music)과 체육(gymnastics)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음악은 오늘날 문화(culture)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체육은 육체적 훈련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은 침착(gravity), 예의바름(decorum) 그리고 용기(courage)를 배양한다.

플라톤은 시(詩)와 음악에 대해 검열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가 진리가 아닌 의견(doxa, 억견)만을 제시하는 일을 방지하고 음악이 용기와 조화로운 생활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학은 논리적 생각과 계산능력, 및 개념적 지식을 위해, 군사훈련은 국가수호를 위해 필수 과목이다.

다음으로 통치자의 가능성이 있는 소수에게는 직접적으로 진리의 학문인 변증법을 배우게 하고 최고 단계로서 전체를 통합한 우주 질서로서의 최고의 좋음(Good)을 학습한다.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국가〉의 正義
플라톤, '동굴의 비유' 통해 哲人정치 주장
음악·체육 등 전인 교육… 지혜 체득 중시

좋음의 세계와 동굴의 비유

좋음(good)의 이데아인 최고의 좋음은 형상(form) 중의 형상, 이데아 중 이데아로 경험적 세계와 독립된 순수한 세계이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최고의 좋음은 신에 해당한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현실을 그림자의 세계로, 최고의 좋음을 태양으로 비유한 이야기다.

여기 동굴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죄수들이 있어 앞면에 비춰지고 있는 그람자만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의 뒤에는 사람과 동물과 여러 물건의 인형들이 움직이는데 그들 뒤에 불꽃이 앞 벽에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묶인 사람들은 그림자를 세계의 참 모습인 줄 안다.

그런데 동굴 속의 어떤 죄수가 쇠사슬을 풀고 뒤돌아서 불꽃과 그림자를 비추게 한 사물을 직접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복제물일 뿐이며 아직 실재(reality)는 아니다. 쇠사슬에서 풀린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와 태양이 비치는 세계를 볼 때 복제물 대신 진정한 사물을 보게 된다. 그는 태양이 모든 것의 원인이자 근원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동굴 속의 사물들은 최종적 실재의 복제물임을 이해하게 된다. 쇠사슬에 묶였을 때 본 그림자는 복제물의 복제물(simulacre)이다.

여기서 동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상계이며 동굴 밖의 세계는 실재(이데아)의 세계이다. 또한 태양은 좋음의 궁극적 형상이며 지상의 모든 사물의 형상과 그들 간의 질서와 조화의 원인이다. 늘 변화하는 현상의 세계에서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부정확한 의견만이 있을 뿐이며 동굴 밖의 변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의 세계만이 지식의 대상이 된다.

정의는 지혜, 용기, 절제 또는 그 이외 다른 덕과 마찬가지로 형상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지식은 현상의 세계에서는 구할 수 없고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현상계의 의견들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다. 거짓된 현상계, 의견의 세계에 붙잡혀 있는 젊은이들을 동굴에서부터 끌고 나와 진리를 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앞에서 소개한 플라톤의 교육 이론이다.

개인의 영혼과 국가의 정체(政體)

정의로운 국가에서 지혜, 용기, 절제가 분업과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정의로운 인간의 영혼에서도 세 부분이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 여기서 플라톤은 통치자의 영혼이 타락할 때 국가의 정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정체인 군주정(君主政 monarchy)과 귀족정(貴族政 aristocracy)에서는 통치자의 영혼도 이성이 기개와 욕망을 지배하는 이상적인 것이다.

통치계급에서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명예정(名譽政 timocracy)이 된다. 새 통치계급의 덕은 이제 지혜가 아니라 용기가 되며 국민을 노예화하는 병영국가가 된다.

명예정에서 부를 갖게 된 통치 계급의 자손들이 부와 재산을 자체 목적으로 추구하여 나타나는 정체가 과두정(寡頭政 oligarchy)이다. 그들은 오로지 수전노 같은 절제의 덕만을 갖게 된다.

과두정의 자손들이 돈에 익숙해져 절제를 잃고 명예도 지혜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중우정치(衆愚政治) 또는 폭민정치(暴民政治)로 타락한 민주정(民主政 democracy)이 나타난다.

참주정(僭主政 tyranny)은 민주정체에서 빈자계급이 자신들에 대한 부유층의 억압을 구실로 민주정체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난다. 그들이 뽑은 지도자는 처음에는 부자들을 억압하고 다음으로 국민을 억압하면서 결국 전체가 절대 독재자의 노예가 된다.

플라톤의 국가와 붓다의 가르침

〈국가〉에는 붓다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내용이 적지 않다. 화엄경의 세계를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듯이 불국토에서도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몫을 다하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 통치자의 덕으로 지혜를 중시한 점도 붓다의 교설과 유사하고 동굴의 비유도 진리를 깨닫고 돌아와 중생을 구원한다는 보살의 이미지와 비슷하다.

플라톤의 교육론은 중생의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한 붓다의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일반 교양인의 교육에 크게 공헌하였다. 러셀(Bertrand Russell)은 플라톤 교육론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신사가 그리스 아테네의 교양인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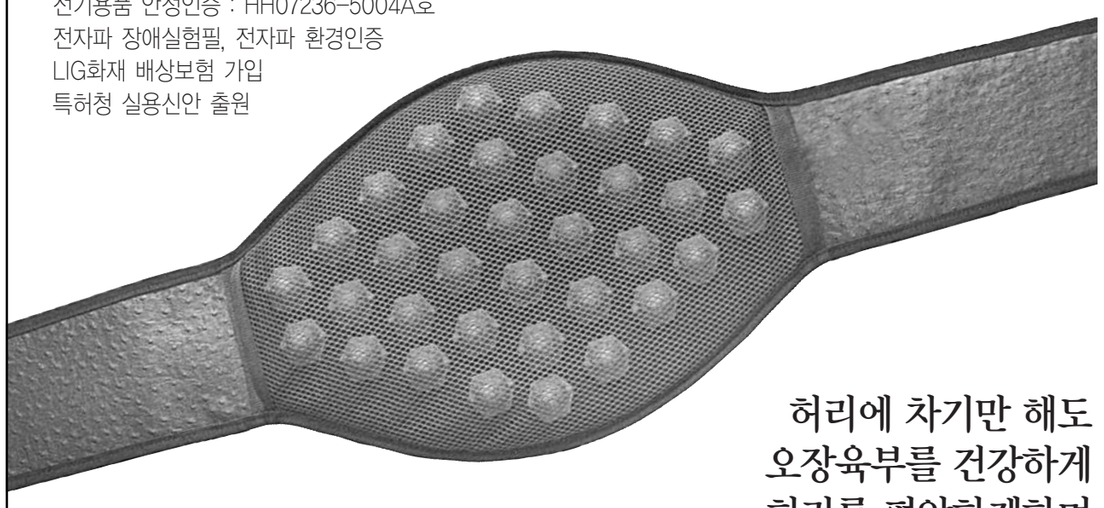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플라톤이 현상의 세계를 그림자로 보고 최고 좋음의 세계를 실체라 본 것은 붓다가 설한 고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와 비슷한 점이 있고 인간 영혼의 타락과 정체의 변화를 연계시킨 이론은 일체가 마음의 작용이라는 붓다의 교설을 적용한 것 같아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플라톤의 정체 변화론은 오늘에 적용해도 설명력이 있다.

그러나 붓다의 교설과 〈국가〉에 나타난 플라톤의 정치철학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플라톤이 계급에 따라 역할과 덕을 배정한 것은 인도의 4성(四姓) 계급설과 유사하며 붓다의 평등 교법에 위배된다. 포퍼(Karl Popper)는 개인의 자유가 집단에 매몰된 플라톤의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와 유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둘째, 플라톤은 현상의 배후에 변화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보았고 현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이분법으로 구별했다. 그러나 붓다는 영원한 실체는 없다고 설하고 무아와 연기를 가르쳤다. 붓다는 진(眞)과 속(俗)이 둘이 아님(不二)을 설하고 그들 간의 원융 무애한 소통의 이치를 밝혔다.

셋째, 플라톤은 현상보다 이데아를 실체로 보고 진리를 중시하고 의견을 억견이라고 무시했다. 붓다는 그런 차별적 견해를 비우라고 가르쳤다. 사실 정치의 세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서는 의견이 중요하다. 탈근대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인간의 생활에서 복제물의 북제물인 시뮬라크르가 진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근대 이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시작으로 서양 정치철학은 정치에서 윤리를 분리시키고 이성으로부터 감성을 해방시키는 등 플라톤 영향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전체주의와 핵무기의 출현은 막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필자는 그러한 변화가 실체론과 이분법적 사고라는 플라톤 철학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가 강조했던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부터만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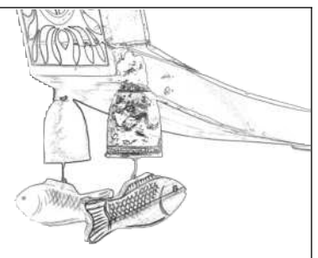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기 자신의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이외에 누가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게 되면
만나기 어려운 스승을 만난 것과 같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냉, 난방에어컨, 세탁기, 냄새차단, 의자, 주방후드 청소 수도, 난방배관교체 공사없이 녹물해결

하늘 엔지니어링
www.skyno1.co.kr
T.1566-8616
010-4126-4242
무점포, 소자본창업자 모집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31)585-4626

몸이 자주 부으시는 분, 치유해 드립니다

(배우실 분)
010-4411-6636

아름다운 인연

소승은 70세 된 시각장애자
심안으로 달마상과
황금용주도를 남은여생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무소유, 머무를 곳을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10-9003-7783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비구입니다 화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710-7294
010-7102-2550

천도재,49재 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스님 모십니다

(대전, 60세 이상도 가능)
010-4220-0566

제주도 사찰

청정도량 적멸보궁에서
몸과 마음을 가꾸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스님 한분, 사무장, 상주인원
두사람, 보시금 전화상담
주지스님 010-3696-8500

명리학(사주철학) 지도

(1)명리학+성명학
(2)완전기초부터 자격증
합격까지 완벽한 지도
(3)주1-2회, 3-4개월 완성
(4)경력34년, 병제철학원장
(5)사주,작명,개명,택일,모든상담
010-3695-1626
서울 9호선 가양역 10번 3분거리

달마도 40×60㎝, 한점 5천원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선물이나 불사용으로
청암 달마도를 그려서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3544-9777

기도의 달인 대주스님

-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는 날짜와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인연 찾습니다

조건 최상으로 학교와
종단 곰, 등록 인수하실 분
미국령 GUAM사이버대학교
미국령 종단
2007년 등록 현재 라이센스
전 화 010-8774-2040
인터넷 070-8884-20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기도처 찾음

기도(포교)하며 말년을 보낼
토굴이나 작은 암자를
찾습니다. 연락주십시오
(60대 납자로 승합차보유)
011-894-2958 대원 합장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아미타불 넉자 관음, 지장
각각 석자반, 금리흙탱화
가로 2m 22㎝ 세로 1m 34㎝
금리신중탱화 가로 1m 14㎝
세로 1m 34㎝ 관음소, 18 관음,
396관음인등 1개 불기,
촛대, 칠판, 방석20개, 연등, 80개
대형에어콘 1개, 엠프 1개
보시금 5백만원
010-6836-4500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부모, 자녀, 부부, 관계개선 치유명상
* 가족세우기(지도자과정, 특별세션, 개인세션)
2 하나로 깨어나기 명상
* 성장과 성공을 위한 깨달음

네이버카페 - 원네스 가족세우기(참조)
신청문의 : 혜산스님 010-4114-66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디자인 결혼정보

초혼, 재혼
처음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결혼,사랑행복,사랑미래
결혼은 인생의 디자인입니다
010-5230-3671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982번지
- 답 320평 건축허가 되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고 앞쪽 시원한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사찰 전원주택 팬션 적합
- 정남향 좌청룡 우 백호가 잘 어우러져 있음
- 가액 : 7,500만원

010-3544-977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 편백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웰빙의 조계종 사찰에서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한분을 모십니다.
- 보시는 월 130만원 - 개인방사
- 2박3일 휴가, 기타사항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상담전화 055)645-5324 (24시간상담)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출간
천문, 지리통달의 신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태을신수정해
-진본기문둔갑석해(2권)
구입문의 011-583-8602
부산 및 인근지역 편저자
직접출강 가능(중국기문포함)

최 면 퇴 마

-전생체험, 심리치료 7회완성
-입문반 3회완성 40만
-실전반 4회완성 60만
-수강료 특별할인,
최면의 대중화
(부산) 010-9342-979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일운사
- 법 명 : 일 운
- 주 소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 2리 1279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寺名 변경 공고

적멸보궁 지장도량 천국사(주지 혜정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는 사중 불사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부처님 도량으로서 거듭나고자 2014년 5월 2일 부로 '고당사'로 寺名을 변경하여 이를 제방에 공고합니다. 아울러 寺印과 대표자 직인도 변경되어 함께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4일

고 당 사 주지 혜정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전화 043)742-5965-6

풍수계 최초 밝혀낸 명당의 실체와 신통발복력!

태극혈맥풍수

반드시 발복흥성 유지되는 혈맥음양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덕숭산승 지천공
010-4600-7399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3-7 절 로 암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화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화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대성인이시고 법왕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의 귀의처이므로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 뵙 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네."

- 대루탄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자급자족 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 :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법당 50평, 요사채, 산신각, 다실, 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용인시 토굴 양도
- 임시법당 15㎡, 요사채 79㎡
- 토지 900㎡ 양지IC 부근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양도금액 : 3억 5천원 조정 가능함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0-3426-9393(사찰경매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주차 40대가능
- 가액: 4억 5천만원
-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조절가능)

010-9889-31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대전 시내
- 부지 : 7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차량진입
- 양도가 : 3억
- 위치 : 경남 암자
- 부지 : 12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20억 8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 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7천만원

010-3645-1361

전원주택 및 토굴
- 위치: 인제 원통에서 15분거리
- 사용가능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 잘 가꾸어진 밭 900평, 2중 흙벽돌 심야보일러
- 잘가꾸어진 마당, 멀리큰강이 흐름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337-97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010-2772-7210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도 가평읍 북면 화악산 줄기 청정 수월 도량
- 명산지대이며 산세 수려하고 좌청룡 우백호 도량 자리
- 청정 자연물 큰 내가 24시간 흐름
- 평수 총 2,530평 하천부지 2천평 사용 가능
- 요사채 1개, 방 5개, 법당 1개, 정각 2개
- 가액: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 불사하실분 환영하고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바랍니다

010-5009-177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010-5234-55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437-0088

시골집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건평 24평, 창고 8평, 건물만 양도
- 가액 : 1천 6백만원
- 사정상 급안내

※ 인수시 살림도구 모두 드림

010-8460-637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 5동
- 평수 4층건물에 3층 50평, 방2, 주방, 샤워실 시설 후불탱화 불상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영가단, 집기류 오시는길 광명사거리역 4번출구 10분거리 주변, 아파트 단지 및 새마을 시장
- 가액: 전세 6천 5백 또는 월세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0만원

010-3221-047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청 약 20분거리 시내버스 운행
- 대지334㎡, 국유지 50㎡
- 법당(약 20평), 친견실, 공양간
- 주차가능, 텃밭 약간
- 가액 : 1억 6천만

(주)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5346-4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절 터 안 내
- 부산 기장 최상의 위치입니다
- 해운대 기장 동부산관광단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 현재 2층 주택이 있습니다
- 토지면적 1064㎡(322평), 2층주택 148㎡(45평)
- 가액 : 6억 7천만원 융자 4억 5천만원 가능합니다

(주)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8676-227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해수욕장부근 (6차선 대로에서 30m)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각탱화
- 남향기와집, 큰방, 종무실, 입식주방, 화장실 넓음
- 텃밭, 대지 114평(건물 34평)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몸만오시면 됨, 조용한 마을에 위치

010-9354-700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 부근
- 4층 건물 3층 52평
- 법당, 친견실, 후원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6335-5995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진구 부전동
- 법당1, 방2, 거실1, 주방1, 다용도실 넓음
- 보증금 : 1천만원, 월 30만원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6631-6426

사찰안내(작은암자)
- 위치: 울산 남구 터미널 5분거리
- 총평수 : 약70평, 임법당, 약40평, 창고 4평, 주방외 방2칸,
- 시설일체
- 가액 :1억 3천만원

010-8582-6055
기도시간 10시~12시 전화못받습니다

사찰 부지 (급)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122-1
- 평수 : 1638㎡(495평)
- 자연녹지, 제2종 거주지역, 수일초 중고 접, 8m도로 접
- 가액: 9억 5천만원

011-9037-52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148 신라길 401
- 신라 약수암 대지 200평, 요사채 24평, 목조신축법당 15평, 사찰전밭 2천 8백평,
- 약수터 기도터도 있음
- 가액 : 1억7천 전세 4천

010-9004-721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 초목이 가득한 암자
- 유실수, 정원수 가득, 넓은 공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년 350만원

010-8826-837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1, 주방1, 화장실1, 약 30평
-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 월77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1-309-3535
(답사후 절충가능)

전 원 주 택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좋은환경 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 황토방, 정자
- 가액: 2억 8천 5백만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 건평 60평, 법당 18평
- 건강상 부득이 안내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사찰 근교에 바다가 있음
- 개인사정상 급매
- 가액 : 3억 7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010-4747-3164

사찰(터)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부근
- 정남향, 총 8,960평, 대지 124평, 전1,323평 임야 7,513평
- 사찰 총 본산지로 훌륭합니다
- 가액 : 4억 5천

010-5232-2879
043)743-41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6천 9백만원

054)43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 온천 및 화왕산 국립공원대로변, 교통요지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 30평
- 종교부지 600여평, 요사채(60평), 화장실2개, 석탑, 주차장, 창고(산신각,칠성각), 산밑에위치,
- 도로인접, 심야보일라, CCTV설치, 컨1동, 텃밭경작
- 가액: 융자3천안고, 3억3천만원(평당70만원시세)

010-8664-8259
(답사하실분만 전화주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2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삼면 면소재지 부근
- 100가옥 사는 동네 맨 뒷집(산자락)
- 면적 1,164평방미터에 법당 34평, 주차시설 및 조경 좋음 (법당까지 승용차 진입가능)
-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010-6621-9400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도로인접)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내 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10-3193-36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산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절충가능)

010-9395-6675

사 찰 전 세
- 위치 : 경북 점촌시 동로면 생달리
- 목조법당 25평 요사, 큰크리트 50평
- 심야 보일러 산세 수려함
- 텃밭 다소
- 사찰 전세가 : 6,000만원

011-9731-141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덕천동 지하철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건물에 3층 45평
- 시설완벽 A급
- 삼존불, 신중당, 칠성당, 영가단
- 전세 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5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 양도

010-4142-690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장보살, 삼신당, 호신불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 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 월 66만 3천 월 55만 / 4천 월 44만 선택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4590-6777
010-3869-6799

암자 전세(동해)
- 위치 : 강원 동해시내(바다 조망)
- 임야 3,349(대지 500평) 포함 건물 5동, 약 120평(1동 80평 신축건물)
- 특징 : 유명한 약수물 있음, 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 차량 진입
- 창건: 약 70년된 암자, 소쿠리터
- 가액 : 보증금 6천만원(전세)

010-7325-3838

여기! 도심속 참좋은 도량 포교원 임대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인제대)부근
- 2층 법당 45평, 1층 공양간 및 다용도실 30평
- 창고 주차장 시설은 완벽하며 즉시법회 가능한 참 행복이 샘솟는 도량입니다. 비구스님 인연 요망
- 가액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5천만원(약간절충)
- 2층만 계약가능 1천만원 월 50만원

주지직 010-4288-3776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시골집안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사천리
- 대지 : 100평과 밭 50평
- 태양열 온수기
- ㄱ자주택, 창고 2동 새로지은 편리한집
- 2차선도로에서 20m 주차 무한
- 복지원 불사로 급 안내
- 가액 : 6,000만원

010-9720-9901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동면(상동IC에서 5분거리)
- 사찰창건 25년 종교용지외 930평, 임야 2,870평, 합계 : 약 3,800평 대웅전 : 목조 22평(단청완벽)
- 요사채 2동, 종각, 산신각, 용왕각 등
- 약 100평 노인요양복지, 연수원, 선원 등 기타 개발 최적지
- 가액 : 12억

010-3847-4705

마음 길들이기

달라이 라마 (티베트 승려)

〈4〉 나에 대한 착각 없애기

'나'는 몸-마음의 결합체인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명상하기

기쁨과 고통을 겪는 것도, 문제를 만드는 것도, 업을 쌓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분석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나'에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한 것을 내가 좋아하고 경험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게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여섯 가지 요소, 즉 흙[몸의 단단한 물질들], 물[액체], 불[열], 바람[에너지, 움직임], 허공[몸의 비어 있는 부분들], 의식의 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이들 각각의 요소 또한 다시 자신의 부분들에 의존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알고 나면 똑같은 추론 과정을 통해 모든 내적, 외적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 '나'라는 현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면 다른 모든 현상들의 본질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자 노력해야 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기

불교에서 '자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의미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자아의 한 가지 의미는 '사람' 혹은 '살아 있는 존재'다. 이는 사랑하고 미워하며,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선업과 악업을 쌓으며, 그러한 행동의 과보를 받으며, 윤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며, 정신적인 길을 닦아 나가는 존재다. 자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아라는 단어에 들어 있다. 이는 '자성(自性)'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왜곡되고 과장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 부풀려진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릇된 태도의 근원이며 파멸의 근원이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 '나'라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잘못 부풀려 생각한다. 정신적, 육체적 요소들 그 어디에도 그런 부풀려진 존재는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나'의 실제 상태는 무엇일까? 자동차나 바퀴나 축 등과 같은 여러 부분들에 의존해서 존재하듯이 '나'는 관습적으로 마음과 몸에 의존해 형성된다. 몸과 마음과는 별개로 존재하거나, 혹은 몸과 마음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없다.

깨달음을 향한 네 단계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깨닫는 데에는 네 단계가 있다. 먼저 이 단계들을 간단히 설명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무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나'는 내 마음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것은 마치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나'가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분석을 통해 나를 찾지 못하면 '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몸과 마음 안에서 나 자신을 찾거나, 혹은 몸과 마음과는 별개로 나 자신을 찾는 분석을 했을 때 '나'를 찾지 못하면 '나'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독자적인 '나', 즉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일 뿐이다. 자칫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아에서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만일 '나'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존재한다면 그것이 몸과 마음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몸과 마음과 별개로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나', 그리고 몸과 마음의 결합체가 하나의 고정불변한 실체인지 아니면 별개의 고정불변한 실체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분석을 하게 된다.

명상을 해 보면 '나'를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나'는 없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깨닫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나의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목표를 알아내기

모든 존재와 현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이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혹은 무슨 물건이든 그것의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마치 그것의 최종적이고 내면적이고 실제의 상태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을 때 특히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내가 하지도 않은 어떤 일에 대해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망쳐놓았어"라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갑자기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것이다.

그럴 때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내가 높게 평가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나는 그 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왜 '나'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지 느낌이 올 것이다.

어떤 일을 망치고 나서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는가? 그런 순간에는 '나'라는 것이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 자신만의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혹은 내가 훌륭한 일을 했거나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서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때를 기억해 보라. 그럴 때의 '나'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며 큰 자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 '나'라는 생각이 특히 더 분명하다.

일단 그렇게 분명한 '나'의 모습을 붙잡게 되면 그 강한 '나'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라. 그 다음 그것의 생생한 모습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존재하는지를 슬쩍 조사해 보면 된다. 17세기의 제5대 달라이 라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다. "때때로 '나'는 몸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때때로 '나'는 마음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때때로 '나'는 느낌이나 인식 혹은 다른 요소들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알고 나면 그때는 스스로 존재하고, 본래 존재하고, 처음부터 스스로 생겨났고, 그 자체가 물과 우유처럼 섞여 있어 몸과 마음과 구별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즉 무아의 관점에서 무엇을 부정하고자 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 "
> **'나'가 독자적으로 생멸한다면**
> **윤회의 연속성 이루어질 수 없고**
> **우리가 하는 행위 결과는 헛된 것**
>
> **고정된 실체 없음 깨닫는 것은**
> **모든 현상의 본질 알게 되는 길**
>
> "

이러한 확고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설명하는 나머지 세 단계는 '나'라는 것이 사실은 상상의 산물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후의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스스로 성립된 '나'가 있다는 이처럼 강력한 느낌을 인정하고 그 느낌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일하다는 것을 분석하기

만일 '나'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듯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또한 몸-마음과 동일한 것이라면 '나'와 몸-마음은 결코 다를 수 없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

보이는 모습과 실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된 것이다. 진실된 것이라면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진실인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보여야 하며, 그것이 보이는 모습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만일 '나'가 몸-마음과 동일하다면 '나'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 나가르주나는 〈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몸과 마음의 결합체 외에 '나'가 없다면 몸과 마음의 결합체 자체가 '나'가 된다. 그렇다면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나'와 몸-마음 결합체가 똑같다면 '나의 몸'이나 '나의 머리' 혹은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나의 몸이 튼튼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또한 '나'와 몸-마음이 하나라면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몸과 마음은 복수이기 때문에 '나'도 복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찬드라키르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몸과 마음이 '나'라면 몸과 마음은 복수이기 때문에 '나'도 복수가 된다." 아니면 '나'가 하나이므로 몸과 마음도 하나라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세 번째 문제는 몸과 마음이 형성되고 허물어지는 것처럼 '나'도 본질적으로 형성되고 본질적으로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불자들이 '나'는 형성되고 허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면 연속된 여러 순간들이 나중 순간이 먼저의 순간에 의존하는 연속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형성되고 허물어진다면 우리 삶의 현재 순간들이 이전의 순간들에 의지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각각의 순간들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 생이 이전의 생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생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생이란 것이 있을 수 없게 된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의 부처님과 그 전생의 존재가 같은 사람이며 따라서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말씀할 때 현생의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개인이 전생의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존재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전생에서 행위[업]을 한 주체와 지금 그 행위의 과보를 받는 주체는 모두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 이동하는 고정된 실체를 갖지 않은 나, 혹은 '단지 나'의 연속체에 포함된다. 만일 '나'가 독자적으로 생겨나고 허물어진다면 그런 연속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생, 즉 행위를 한 사람과 그 과보를 받는 사람이 서로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선한 행위의 좋은 결과와 불선한 행위의 나쁜 결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행위의 결과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터무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분명히 행위의 결과를 받고 있으니 그렇다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의 결과를 받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달라이 라마의 〈마음 길들이기〉(이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995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3(直)
FAX 02) 737-0696
(원고접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찰안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 1동)
- 가액 : 융자 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부근
- 부지 527평,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
-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요사채 40평 (방3, 거실1, 실내 다용도실2)
- 기타 : 10평(차고, 창고, 야회화장실, CCTV)
- 가액 : 2억 3천만원
- 스님 건강상 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054)338-4848

농 가 주 택
- 위치 : 경북 영양읍 상원리 402-1
- 건물 1동, 대지136평, 마을뒤
- 남향, 소형차 진입, 상수도
- 군불방 수리한 건물
- 가액 : 저렴한 3,600만원

010-8899-8899
010-7621-7621
(주인직)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50년된사찰)
- 대지 300평, 미륵불상4.5M
- 지장,신중,산신,칠성 탱화
- 삼존불, 텃밭, 집기일체
- 가액 : 전세 3,500만원. 양도도 가능

010-6311-4920
010-7128-50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계성마을
- 평수: 730평, 법당 : 30평
- 삼존불, 산신각(신중탱화, 나한탱화), 칠성탱화, 연못, 정각, 두줄기 흐르는 냇가가 있음
- 주지실:방2칸, 공양간2칸,방3칸 화장실2칸
- 가액: 3억2천만원(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55)931-7971
010-4844-7098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각암면 화리 산 43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 임야 8,250평 • 가액 : 7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 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계성마을
- 평수 : 730평, 법당 : 30평
- 삼존불, 산신각(신중탱화, 나한탱화), 칠성탱화, 연못, 정각, 두줄기 흐르는 냇가가 있음
- 주지실 : 방2칸, 공양간2칸,방3칸 화장실2칸
- 가액: 3억2천만원(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55)931-7971
010-4844-709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회화면
- 평수: 3만6천평
- 평당 : 만오천원
- 최적의 절터

010-8616-573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시내중심지
- 평수: 60평
- 바다와 인접한 완벽한 시설 완비, 시장과 인접함
- 시설비 3,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1-895-225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500만 조정가능

010-3589-811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산 와촌
- 대지 : 약 500평
- 2층 벽돌집, 정남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9778-77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인법당 27평
- 삼존불,지장보살, 소불100여불,삼성각
- 큰방2,친견실1,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1억7천5백만원

010-6808-5546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 2층건물2층, 삼존불,법당 35평
- 시설물일체, 10관 종
- 방2, 화장실2, 공양간, 출입구 옥상 별도사용, 법회즉시 가능
- 시설비:2천5백만원
- 보증금: 300만원, 월 33만원

010-8528-9093

갤러리 색즉시공



열린선원 신행표지판=조각가 김영수

윤회금지(NO SAMSARA)

그래야지
암
그렇고 말고
한 번 마음먹고
윤회의 집 뛰쳐나와
수행자의 길로 들었으면
이 예 저 예 눈 두지 말고
앞으로만
앞으로만 걸어가야지
되돌아
물러서지 말게!
도(道)의 마음은
반드시 과(果)에 이름을 믿고
열반(nibbana)에 이를 때까지
가야사
윤회(輪廻)를 끝내지 않겠는가?

글=무상법현(열린선원 주지)

교리는 눈(眼), 수행은 발(足)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탄탄한 이론 뒷받침 될 때
실천도 제대로 할 수 있어
암진단… 수행의 힘으로 극복
쓴 건 쓴 대로, 단건 단 대로
좋은 마음 내면 좋은 기운 와

역경계에서 배운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로 이를 헹구고 나서 자그마한 찻잔에다 물을 따라 부처님 전에 올린다. 나름대로 고뇌가 있을 때에는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 다기물을 올린다.

"저는 불보살과 함께 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행운이 옵니다."

나는 그것을 "공덕잔"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잔을 올리면서 그때그때 염원하는 것을 기도했다.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면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도록 권하고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했다. 아이들은 염불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신심을 더해갔다.

큰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다. 엄마들이 한 평생 아이들 입시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듯, 나도 그때 기도를 정성껏 많이 했고, 스님들의 조언도 받았다.

지방에 있는 교육대학을 보내야 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으나 아들의 성정으로 보아 교육자가 어울릴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지방 교육대학을 택한 것인데, 처음에는 불만을 드러내던 아들도 커서는 "엄마의 권유가 정말 현명하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해주어서 기뻤다. 작은 아들이 의대를 갈 때도 몇몇 스님들과 지인 몇 분에게 조언을 구하며 고심을 했는데, 이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은 역시 기도였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기도해주고 전심전력해서 헌신했으나 그 이후 그들의 인생에 대해선 의논해오는 것 말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냈다. 아들들은 각자 전공에 맞게 인생을 개척하며 잘 살아왔고 좋은 아들,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제 길을 찾아가는 동안 나도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아가는 한편, 이론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등록을 했다.

"교리는 눈이며 수행은 발"이라는 말이 있듯이,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되어질 때 실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해서 불교이론을 공부했고, 서울 불교전문강원에도 들어가 경전을 공부했다.

월암 스님이 벽송사 선원장으로 있으면서 선회(禪會)를 열었을 때도 절에 머물면서 법문을 들었고, 강진 백련사에서 재가불자들에게 무문관(無門關)을 처음 개방했을 때도 입방해서 열심히 정진했다.

동국대에 다닐 때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한문이 나왔다. 옆자리에 있는 거사님에게 "이게 무슨 자죠?" 하고 물었더니 "적당히 쓰고 나오세요." 해서 무안을 당했다. 집에 돌아와 무안한 심정을 담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가르쳐주고 가야지!" 하면서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남편은 물론 아이들도 엄마가 대학에 다닌 것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적극 후원해주었다.

그렇게 가정법회를 운영하고, 한편으로 불교공부에 한창일 때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하늘이 명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오십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비교적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수행의 힘 덕분이었던 것 같다. 일하는 남편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파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봉양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었다.

가정 법회를 해오는 동안 이사를 세 번 하고 큰 수술을 했어도 회원들은 물론 법사 스님도 모르게 조용히 치렀다. 수술을 해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그날만큼은 반드시 참석했고, 항암주사를 맞는 날과 겹쳐도 병원에서 나와 참석했다.

나중에 스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찌 보살이 웬만한 스님들보다 낫다"고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큰 수술을 받으면서 하늘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웃 종교에서는 역경계를 쓴 은혜로, 순경계를 단 은혜로 표현했는데, 쓴 것은 쓴 것대로 단 것은 단 것대로 우리들을 성장하게 하니, 달게 받아들이는 것으로써 고통이 소멸된다. 나는 어쩌면 인생의 최대 위기일지 모르는 암 진단 앞에서 "주세요!" 하고 달게 받았다.

큰 아들의 군입대를 앞두고 암진단을 받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작은 아이가 고3이었다.

"너희들이 엄마 복이 있으면 내가 살아날 것이고 복이 없으면 죽을 것이다."

간단히 그렇게 생각했다.

큰아들이 군입대를 하는 날까지 가족 누구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큰 아들 입대 후 수술날짜가 잡혀져서 남편에게 "잘하고 올께요. 다행이 초기라서 큰 문제를 없을 것 같다고 하는군요." 하고 병원으로 갔다.

큰아들이 군대에 가는 날, 군대를 보내놓고 느닷없이 난소암이라고 입원을 했으니, 남편으로선 청천벽력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들으니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주차장에 가니까 차에 암에 대한 안내 책자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둘러봐도 다른 차에는 안내책자가 없는데 남편의 차에만 있어서, 순간 "부처님이 도우시나보다" 하고 믿을 만한 대기업 식품회사고 해서 즉시 주문하여 나에게 가져왔다.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정성껏 먹어봐요."

남편은 지금도 그 일이 신기하게 느껴지고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종종 말한다. 공부방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수술한 사실을 알고는 모두들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서 정장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아니 수술하러 오시는 분이 이렇게 차려입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길래, 속으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어야 아름답게 산 것이고 충실하게 산 것이지요.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몰라서 예쁘게 꾸미고 왔답니다."고 답했다.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기운이 온다. 이렇게 좋은 보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수술실을 오가며 떠올린 선종의 초조 달마 스님의 가르침 한 마디가 있다.

"어떤 일에도 원망함이 없이 참고 견디며
순리대로 인연에 따르며
아무 것도 구하지 않으며(남에게 덕을 구하는 것이 없으며)
진리에 맞게 살면서 도를 실천한다."

역경계를 선연으로 여기며 인욕과 보시바라밀로 나를 단련시켰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시시각각 고통과 역경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 큰 원력을 세우고 그에 맞춰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면 그것이 힘이 되어 인연이 닿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스스로 원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원력이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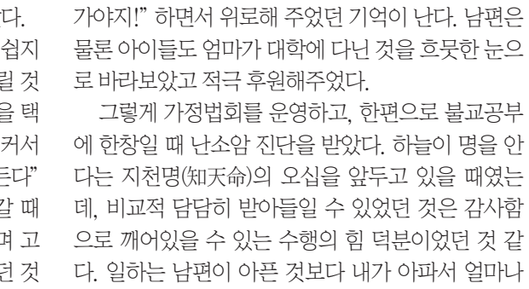
〈여여원 원장〉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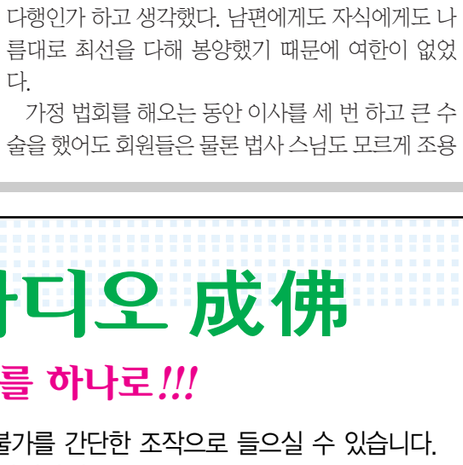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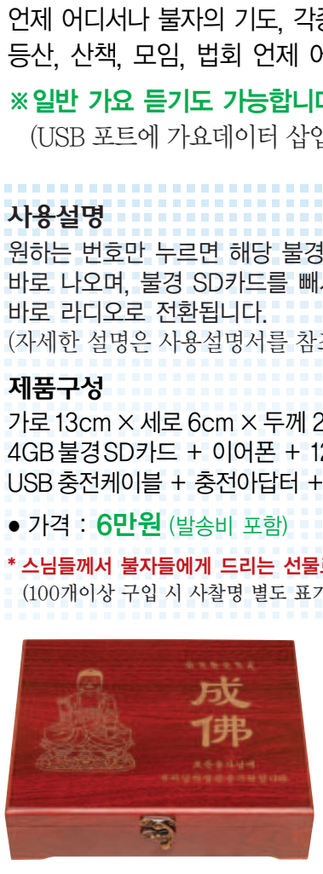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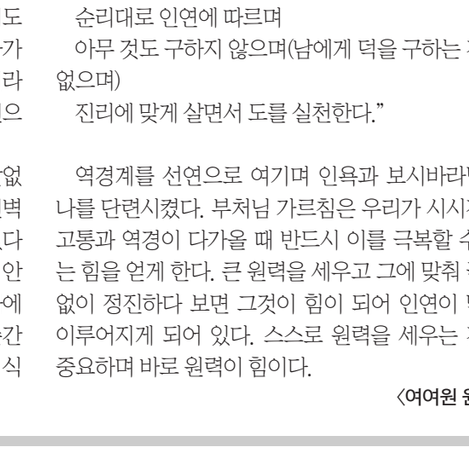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둔다는 일념으로 진실하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저희들 생활에서 신행의 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큰스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인공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안으로 녹이고 들어가면 그걸로써 모든 것이 다 끝이지,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은 다 군더더기고 사족인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업식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저희들의 녹이지 못한 그 인연으로 그냥 모르게 누가 되고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혼상제 같은 중요한 예법 중에서도 제례, 제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 말씀대로 그냥 우주떡 하나 놓고 물 한 그릇 놓고 꽃 한 송이 놓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도, 그 뒤에 구체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걸 또 몰라서 막상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양을 할 때에 선원에서는 합장하고 공양을 잘하면서 나가서는, 기독교인들은 참 잘하는데 우리는 잘 안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합장을 먼저 하는 기독교인들 보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주인공 생각이 뒤늦게 나거든요. 그렇지만 행이 바로 이렇게 잘 나와지질 않아서 그렇게 마음은 뻔하면서도 제때 제때 발휘가 안됩니다.

또 우리들이 선원에 들어올 때부터 법당에 앉을 때까지의 여러 가지 예법들, 하다못해 절하는 자세도 참 각양 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법도 하나의 행의 규범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믿음을 더욱 더 공고하게 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요식이랄까요, 절차랄까요. 그러한 행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스님께서 문서로 하시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큰스님: 웬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하하…. 그런데요, 세상살인 말이 많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 습관되고 찌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거기다가 놔야 되는데, 놓다가 못 놓다가 놓다가 못 놓다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게 조금 미흡하구나.' 할 때는 거기서 체험을 좀 하게끔 합니다. 자기 그 근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끌어 주는 마음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하고서 그 줄을 잡고, '아, 이럭하면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곤 그 줄을 잡고, 하나를 잡고 갑니다. 가다 보면 엉뚱하게 또 딴 걸로 돼 가지고 딴 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건 왜 그러냐. 세상만사가 그 용도가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한 용도의 한 굴림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용도가 오든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려서 자기네가 지혜를 낳아서 이게 작용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네 스승을 네가 스스로 찾아라 이겁니다. 네 스승을 네 스스로 찾는다면 그 안에서 다 길잡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서 굴리는 도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먹지 않던 것도 자기가 먹어 봐야 그 맛을 알듯이 본인이 먹어 보지도 않은 맛을 어떻게 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용도대로, 닥치는 대로 굴려라.' 하는데, 그것이 용도에 따라 굴리라는 거죠. 아픈 것도 그냥 주인공에다가 굴려서 하면 그게 약사가 되고, 굴림이 이렇게 자꾸 바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하나인데, 아픈 거는 아픈 것대로 통신이 돼서 약사가 돼 주고,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주인공에서 입자가 나와서 조절해서 관세음이 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자라는 말을 안 하고 보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즉, 이름이 보살이요, 바로 그것이 법신(法身)이요, 그것이 화신(化身)이요, 부처님의 마음 자체가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제각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 주인공은 하나인데, 그 주인공 속에서 천차만별의 이름이 나오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런 말입니다. '주인공' 하면 일체제불의 마음 전체가,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한데 합쳐지는 연고입니다. 그렇게 합쳐지는 그 마음속에서 바로 '내가 아픕니다.' 하니까 거기서 그 마음이 통신이 돼서, 즉 말하자면 약사보살이 탁 응신(應身)으로서 응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서 병명이 나와야 그 밑의 간호사들이 다 움죽거리죠? 통신이 돼야 보살들이 움죽거리죠, 응신으로서. 그러니까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공부가.

그래서 조심할 건 바깥으로만 끄달리지 말라 이거죠. 부처님도 그러셨지만 내 생각으로는, 옛날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지어서 지금 그냥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각자 자신을 믿어야지, 너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건 마구니의 짓이니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각자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나를 믿어야지' 요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전부 마구니의 짓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 모두 예수님 하나로 그냥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껍데기를 찾아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자기의 마음이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도 둘이 아니게 통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똑바로 '각자 너희들의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허깨비 같은 일이고, 모두가 꿈과 같고 바람과 같고 도깨비 같으니라.' 이러셨거든. 그럼, 두 번째 끝났습니까?

질문자1(남):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고난과 액난을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믿고 놓고 관(觀)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고가고 돌아돌아 어떠한 고난이나 액난이 그냥 사라져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고,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회향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막상 고난과 액난이 닥쳤을 때에는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해서 온 거는 아니지마는 어찌됐든, 어차피 겪어야 될 고난이나 액난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공부의 재료고 스승이다. 스승님이 나를 가르쳐 주러 오셨다.' 하는 생각을 내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 경계가 하나의 회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고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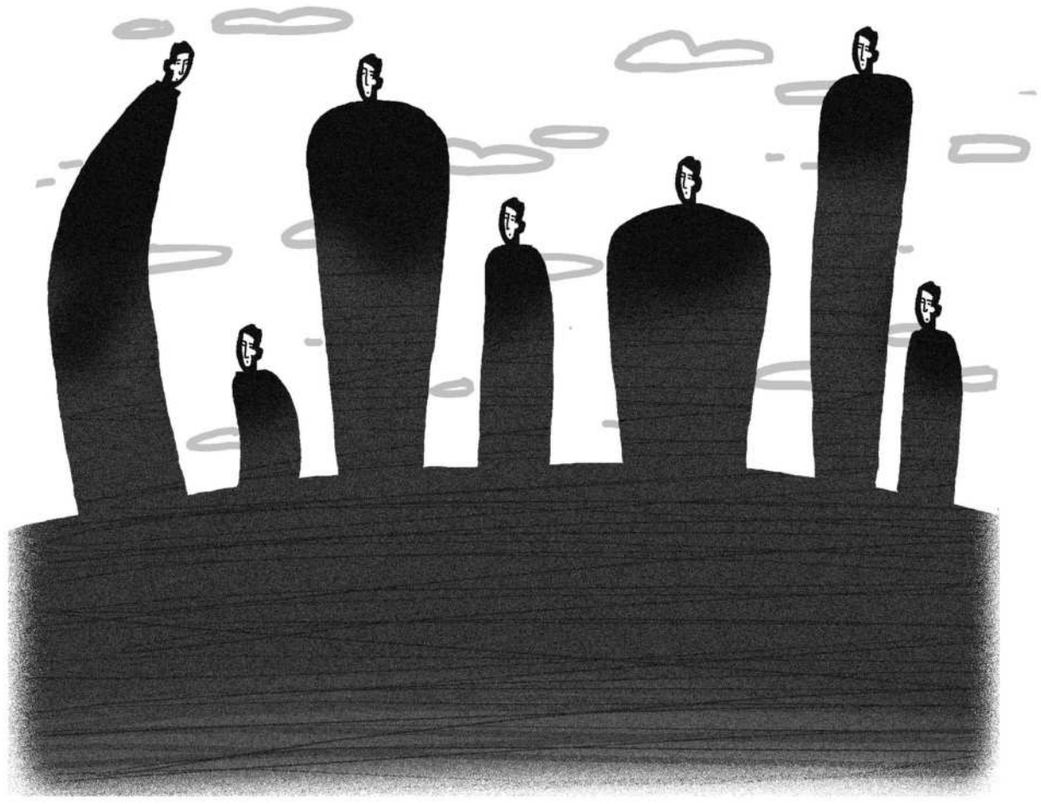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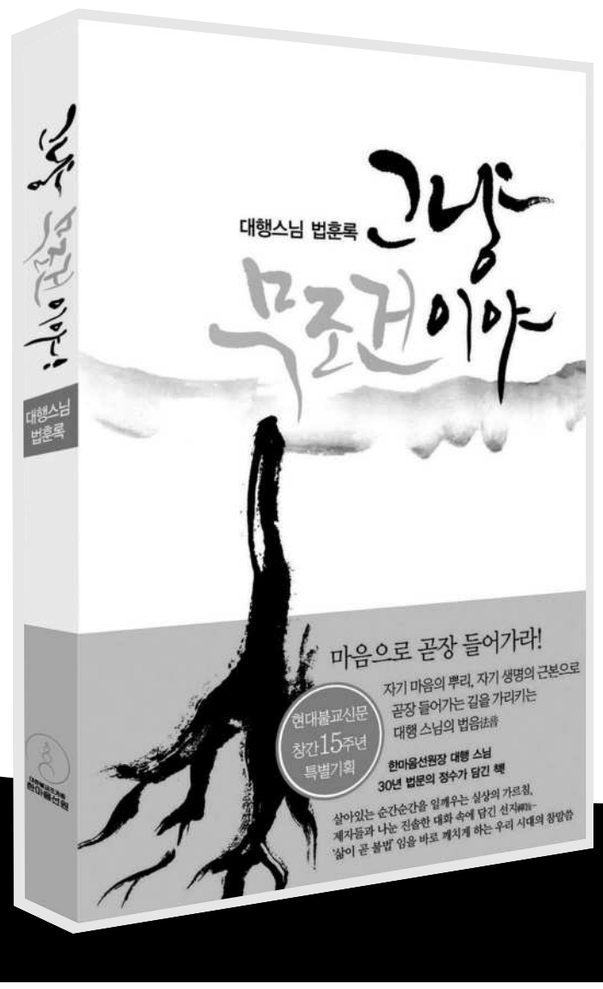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주인공에다 굴려놓아라

☞ 29면에서 계속

난과 액난을 적극적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거기서 정말 또 한 소식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향은 좋고 감사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는 그 회향이 더욱 큰 정진의 거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스님: 회향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죠. 지금 현재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인생의 회향을 어떻게 해야만 잘했다고 하느냐는 회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집안을 난가(亂家)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회향을 마치느냐, 또는 부인을 둘 셋씩 두어서 서로 은혜이 지게끔 해 놓고 회향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수수하게 잘 살다가 회향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는 그러한 일념으로써 살아나가면서 회향을 하느냐, 이런 거죠.

또 이러한 공부를 하는 스님네들의 일체 회향이 있습니다. 일체 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회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죽어서 회향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살아서 회향이 있는 까닭에 살아 나온다 죽는다 이런 언어가 막히는 겁니다. 죽은 뒤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열반이 되고 회향이 돼야 진짜 그것은 삼세(三世)를, 즉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찰나찰나 나투면서, 우주와 이 대천세계를 찰나찰나 나투면서 보고 듣고 행하고 맘대로 자유권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유권을 얻음으로써 지금 부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말을 했다 하면, 그 넓은 끝없는 바다 가운데서 도장을 받았다, 이 소리나 똑같은 얘깁니다. 해인(海印)을 받았다, 해인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 까닭에, 죽어서는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대의의 공부를, 죽고 사는 생사를 다 끊을 만큼 공부를 못 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고(苦)도 낙(樂)도 없어서 공부가 아니 되죠. 낙도 고도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자기를 다스리고 공부가 되는 거지, 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열반의 경지에 들어야 생사를 초월하고, 또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다, 가신다, 이런 언어가 끊어지고 살아생전에 회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지에 회향을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일체지를 회향을 한다 이런다면, 그 회향이라는 이름도 방편입니다.

그 회향이라는 이름도 방편이지 회향이라는 그 자체는 찰나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집에까지 데려다 놓는다.' 요게 회향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바깥에다 놔두고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안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까지가 회향입니다. 밥을 했으면 먹고 치운 게 회향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무엇을 맡아서 해 준다 그래 놓고 끝을 마치지 못하는 건 회향이 못 되죠. 그래서 그렇게 끝을 마치는 사람은 애당초에 그런 일을 맡지를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맡지를 않죠. 내 능력과 내 분수를 알고 내 능력이 되는 일을 해서 끝을 마치죠. 그게 회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들뜬 마음에서 그냥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뿌려 놓고 자기가 회향을 못하고 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찰나찰나 회향이

어떠한 용도가 오든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려서
자기네가 지혜를 낳아서
작용하는 거지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줍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네 스승을 네 스스로 찾아라
이겁니다.

지 회향이 따로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럽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진실하게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둔다. 나는 절대로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 속인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스무드하게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하고 또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러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렇게 착하기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양면을 다 줬습니다, 법도. 그래서 불(佛), 법(法), 승(僧)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맡아야 회향을, 끝을 잘 맺는다.' 고 했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보증을 서 주거나, 빚 보증을 서거나 그럴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봐서 만약에 그 집에서 안 갚아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또는 그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집이나 보증을 서는 거지, 아무한테나 보증 서는 게 아니죠. 자기 집 한 채 놓고 땅 몇 뙈기 있다고 보증을 탁 서 놓고선 그거 홀딱 뺏기고 거지가 돼 가지고, 식구들까지도 다 거지를 만들고 이러는 건 회향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착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따로 있어요. 똑똑하고 착한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희미하게 살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친 게 아니죠. 정확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죠. 하하하…. 그리고 인자하고요, 둥글고….

질문자1(남): 오늘 이 질문이 조금이라도 공덕이 된다면, 이 공덕이 우리 선원의 연세 많으시고 몸 불편하신 모든 보살님들에게 회향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아유, 그렇게 말씀 마시오.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거요, 우주 천하가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부처님만 자꾸 섬기길래, 부처님을 갖다가 그냥 바깥에 내다 놓고 부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 이 부처를 믿고 온다면 다 안 와도 좋다.' 이랬습니다. 다 안 와도 이 법당 안에 꽉 차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형상을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같이 둘 아니게 생각해라. 내 몸과 둘이 아니요, 내 생명과 둘이 아니요, 내 마음과 둘이 아니니까 그 둘이 아닌 걸로만 알고 나가라.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한테 다 일임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일념으로써 삼정례(三頂禮)를 하든지, 급하면 일정례를 하든지, 팔정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그러되, 그 정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네가 다 가지고 안고 가는 게 주인공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또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는 자기가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부처는 자기가 변소에 앉아 있으면 변소에 계시고, 들에 서 있으면 서 있는 부처가 들에 계시고, 바깥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부처가 계시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부처가 계시고, 또 방안에서 자면 자는 부처가 계시고….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큰일이죠. 하하하.

질문자2(남):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지난번 소년소녀 가장돕기 법회를 성황리에 마치게끔 해 주셔서 큰스님, 다시 한 번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한마음 공부를 접하게 된 인연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마음에 고통을 준 것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에 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에게 관할 때마다 제 마음이 다 전달되기를 바라지마는, 그 마음이 아마 전달이 못 된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스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공부를 접하게 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일반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스승을 스스로 찾는다면
그 안에서
다 길잡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서
굴리는 도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기가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으며, 전생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전생에 가졌던 그 업을 우리가 이승에서 다시 만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 두 가지가 다입니까? 그러면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군요.

질문자2(남):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큰스님: 신참이군요. 하하하….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했죠? 댁의 마음이 당차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그 마무리를 못하는 것을 주인공에다 맡기고 하려면 댁의 말마따나 통신이 돼야 하는데 통신은 되지 않고 힘들겠죠. 내 팔자 한탄까지 나오고요. 그렇지마는 절실히 믿고…, 지금 댁과 같은 상황 속에선 옴짝달싹도 못하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땐. 하지만 진짜로 믿어서 통신이 된다면 귀인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 불이 났어도 그 불덩이 속에서 빠져나가는 놈은, 벽이 없고 봇장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지, 문만 찾아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못 빠져나가죠. 아직은 댁에서 신참이 돼서 그걸 잘 납득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댁의 나무는 댁의 뿌리만 믿고 '너 뿌리만이 에너지를 줄 수 있어. 뿌리만이 가지와 잎새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어.' 하고서 모든 걸 거기다가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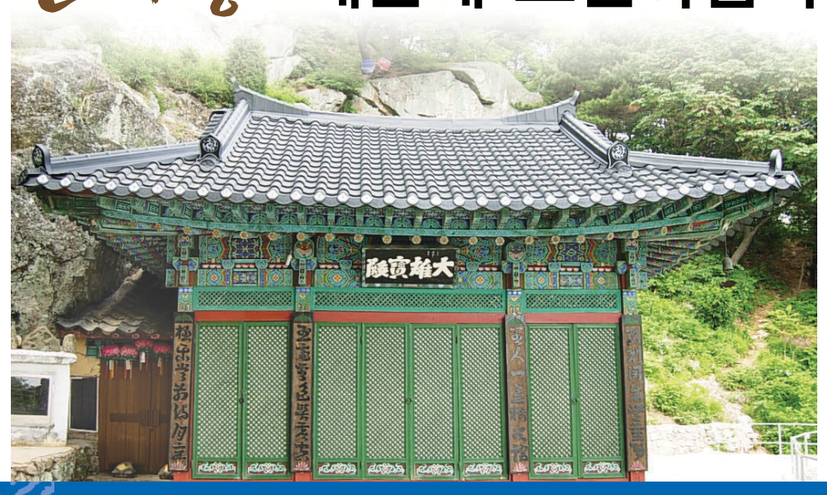
사회자: 질문 이제 끝났습니다.

큰스님: 그러세요? 그럼 뭐 다행이로군요. 하여튼 찰나찰나 회향이 있지, 미래에 회향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 올려 놓고 예불 모시고, 마지 내려가면 회향입니다. 그거와 같이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찰나 찰나, 내가 얼마나 뿌리고 얼마나 거뒀는가 그것이 정확해야만이 회향이 찰나찰나 잘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역시, 아주 준엄하게 가르치신 뜻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합장하시며) 더운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하하하. 이렇게 동참하시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요. '야, 우리의 인연도 보통의 인연이 아니로구나. 지금 세(世)에만 만난 게 아니라 수억겁 세에도 우리는 같이 만나서 공부를 했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 친구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도 됐었고, 남자 친구도 됐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도 됐었고, 그냥 자기가 자식도 됐었고, 자기가 부모도 됐었고 그냥 겁을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들 공부하세요. (합창단을 향하여) 음성공양을, 공양을 또 잘 들어야죠. 공양이란 말 무슨 소린 줄 아시죠? 합창하는 게 공양이에요. 공양!

※위 법문은 1996년 6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
DWKS-3000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자 세상보기

자기 의식부터 바꿔야 안전불감증 해소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갑오년이 시작 되면서 모두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서울2호선 지하철 추돌사고, 인천중앙병원화재, 합정역 지하철화재, 안산화학물질 제조공장 폭발사고, 대구사대부고화재,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시화공단 산업폐기물처리업체화재 등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28일 장성요양병원 사고등 하루에만 4곳의 화재소식을 쏟아냈다.

아직 세월호 침몰 실종자 희생자 유가족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온나라가 슬픔 속에 있는데 이런 사고를 꼭 당해야만 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이러다가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거 아니냐"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민이라도 가야 할 판이다"고 여기저기서 툭툭 터져 나온다.

"제군들아 자네들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자네들에게 더 이상의 것을 요구 할수 없구나. 자네들의 임무는 완전히 끝났다."

1912년 4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타이타닉호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이 선객들을 대피시키고 선원들과 가라앉는 배에서 최후를 맞으면서 한 말이다.

타이타닉 침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구에는 격동의 세월이 쌓였으나 이들은 온 지구인의 가슴속에 새록새록 영웅으로 남아있다.

당시 선장은 침몰직전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는 생존자를 구명정에 태운후 다시 배로 돌아갔고, 항해사도 구명조끼까지 남에게 벗어주고 기관장 기관사들도 마지막까지 탈출을 돕다가 전원 배와 함께 최후를 맞았다.

바이올린이스트 8인조의 차분한 마지막 연주도 우왕좌왕하는 선객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하는 각박한 세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후 백년 단원고 수학여행단과 일반 선객 등 총476명,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실은 인천-제주 간 여객선 세월호는 아침 해가 눈부신 밝은 날 침몰했다.

기울어 가라앉는 상황을 뻔히 눈 앞에 두고, 의전절차니, 대책회의니 시간만 보내면서 아이들을 배안에 둔 채 속수무책 보고만 있었다.

갑판 위로 몰려나와 구조를 기다려야 할 애들은 보이지 않고 선장, 선원들만 재빠르게 구명정에 옮겨타는 장면은 억장을 무너뜨린다.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를 지키라는 방송에 가라앉는 선내에서 재난 대피아닌 대피를 당하고 있었다.

"차라리 방송이나 없었으면…." 너무나도 자명한 인재에 내몰린 희생자, 실종자 여러분의 왕생극락과 무사귀환을 빈다.

선장은 선박과 운명을 같이 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 선장의 말이 명령이고, 규율인데 세월호는 명령도, 복종도, 규율도 없이 가라 앉았다.

타이타닉 선장이 오늘까지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음은 끝가지 배를 지키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직업의식이 있었고, 선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본인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소명의식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지녀야 할 기본덕목인데 세월호 선장에게는 그 기본이 없었다. 승객먼저 대피 시키고 선원은 나중에 나간다는 말단 승무원, 제자먼저 구명조끼를 입혀 내보낸 선생님, 자기 조끼를 친구에게 주고 희생된 학생, 의인들의 선행은 절망 속에 우리 심금을 울린다.

이번 사고들로 각계각층에서 진단 처방이 나오고, 거국적 개조론이 일고 있다.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한 해경해체, 안전행정부 축소, 형법 개정, (가칭)유병언재발방지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등 잘못된 제도는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사회 병폐의 근본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마음 개조다. "내가 최고요, 내가 먼저요"라는 마음을 바꿔어야 한다.

"남을 가르치는 바른 그대로 마땅히 자기 몸을 바르게 닦아라, 다루기 어려운 자기를 닦지않고 어떻게 남을 가르쳐 닦게 하랴."

혼미한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 말씀이시다. 이런 저런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형언할수 없는 마음을 보듬어 함께 가는 일은 우리 불자의 몫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공직자 윤리 문제 어떻게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후 엿새만에 사퇴했다. 청렴하고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전관예우를 통한 축재가 문제가 됐다. 2000년 이후 5명의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자신의 과거 업보로 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직자 윤리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부정 축재 거부가 진정한 보살행



법응 스님
한반도평화통일
실천기획단장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사퇴자를 포함하여, 지난 2000년 이후 도합 5명의 총리지명자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토지불법증여, 이중국적, 아들의 병역문제 등으로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30년 이상을 고위공직이나 학계에 종사했던 인물들이 총리 후보자로 낙점이 된다는 사실에서 이중의 가면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 지도층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지도층 인사들이라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일신상의 사익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온갖 비상식적 편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아이콘인 줄 알았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한지 5개월 만에 무려 16억 원이라는 수임료를 벌어들였다. 전관예우라는 악습의 특혜를 누린 덕분이 분명하다.

존경의 대상이어야 하는 사회 지도층이 전관예우와 투기, 편법으로 돈벌이와 일신만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권력에의 탐욕을 거두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인격형성문화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전관예우로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재판의 상대관계자요, 법과 사회의 질서다. 전관예우야말로 한국사회의 침몰을 조장하는 악습이다.

세상의 목탁이요, 등불이 되고자 하는 종교계부터 금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통렬히 반성하고,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인격형성과 인성 순화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불교계야말로 이번 기회에 '공공(公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문물의 재원을 공유해서 그 힘을 세상을 위해 쓰도록 하자. 진정한 보살행은 남에게 베풀기 이전에 부정과 편법에 의한 축재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돈이 우선인 사회, 확 뜯어 고쳐야"



정우식
前 대한불교
청년회장

지금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다.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공직윤리나 도덕성, 정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세태가 가장 극명히 드러난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 사람을 구하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 해운회사와 얽혀있는 여러 비위 사건이 터지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그 무엇보다 공직자의 윤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수의는 직업륜리를 넘선다.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처리하는 만큼 본보기가 외어야 한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일지 모르나 최근 취업시장에서는 인성 검사 바람이 불고 있다. 인사 담당자들이 사원 선발에 있어 개개인의 품성을 보는 것이다. 일개 사기업에서 인성을 강조 하긋 정부에서는 마땅히 책임윤리를 강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직자 윤리 기강 확립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사 안일주의와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직을 돈으로 보지 않고, 소명의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사람의 눈치만 보는 행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직위와 안위를 생각하는 행정을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이 중 공직자 윤리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교육 또한 돈이 최우선이 되는데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의 심성을 아름답게 밝히고 공동체에서 공생하는 그러한 인성을 가꾸는데 이제부터라도 힘써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공직에 거는 기대감은 크다. 우리 정부의 책임윤리 의식이 한층 강화된다면 우리 사회 발전에 이보다 좋은 밑거름도 없을 테다.

社說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신중한 검토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재추진된다. 하지만 불교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개최한 '자연공원과 규제완화'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선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경제적 활성화와 현실적 이용도 중요하지만, 복합유산자원으로 가치를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명품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공원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갖고 보존 위주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협동처장도 '자연공원 케이블카 논쟁, 이제 끝내고 싶다'란 제하 발제를 통해 자연공원법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블 설치는 주로 선거공약으로 많이 대두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영호남에 하나씩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원도 양양군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 때문에 표가 궁색한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팔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계종과 시민단체 역시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환경훼손보다 환경보전효과가 큰 경우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자연공원 정책과 공원안에 사찰이 많은 불교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선거철을 맞아 자연공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최근 우리사회에 규제완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규제완화는 보다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용성 · 만해 정신 선양은 실천에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6월은 민족대표 33인으로 참가한 용성스님과 만해 스님에게 특별한 시기다. 6월 29일 열반한 만해 스님은 열반 70주기 사업이, 용성 스님의 경우 탄신 150주년 사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는 오는 6월 5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용성 진종조사 탄생 1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6월 16일 서울 정법사에서 '한국근대불교사와 만해학(萬海學)'을 주제로 만해스님 추모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6월 29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만해 스님 70주기 추모제와 음악회를 연다.

만해학회도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7월 25일 유심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만해학회 세미나는 '만해와 심우장 그리고 근대지성과의 교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만해축전은 오는 8월11일부터 14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호국(護國)의 사전적 의미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함'이며 보훈(報勳)은 '공훈에 대해 보답함'이다. 반도 국가의 태생상 한국은 수많은 외침을 받았고 그때마다 선열들은 자신의 목숨으로 내 고향과 국가를 지켜냈다.

한국불교 역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에서 의승군으로 참여해 파계를 하면서까지 나라를 지켜냈다. 일제 강점기에도 용성?만해 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불교 인사가 조선독립을 위해 모진 고초를 겪으며 노력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위해 헌신 · 순국하신 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이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선각자이기 때문이다. 6월 다시 그들의 정신을 그려볼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法果

생활속에 만나는 부처님 말씀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법구경, 그 귀한 가르침을 법과에 담았습니다. 과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귀한 가르침!

세대를 가리지 않고 진한 감동을 선물할 수있는 법과.. 법과와 함께 하세요!

■ 법과란?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는 과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법과전용 포장지에 포장되며
법과안에는 법구경의 지혜로움이 적혀있는 슬립지가 있습니다.

쿠 키



포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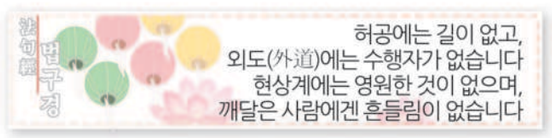
슬립지

■ 앞면예시



원하시는 문구(30자 이내)를 넣을 수 있습니다.

■ 뒷면예시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 법구경이
각각 다른디자인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법과의 효능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 법과와 함께 하세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
法의 지혜를 나누며
법과와 함께하세요~"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